

PRSRT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snuaa.org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재미 총동창회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 개최

〈시카고, 6월 14일~16일〉

한국의 最高 대학을 世界的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이번 평의원회는 재미 총동창회가 창설된 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경과하고 이제 초창기의 성장으로부터 발전의 내실을 목표로 하는 시기에 도달하였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미 7천여 동문들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우리를 기른 母校를 발전 高揚시키는 牽引車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명실공히 한국 최고 대학의 위치와 명성을 누리던 母校가 지난번 입시 철에 未曾有의 사태인 입학허가자의 등록 저조와 理工系 지원 기피현상을 경험하며, 그 탁월한 위치가 도전받고 있다. 이제 전지구가 한마당인 된 世界化시대에 어떻게 한국 사회를 이끌 棟樑之材를 교육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재미 총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년도 사업을 검토하고 미래의 발전 계획, 신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하기 위하여 19개의 미주 지역동창회의 대표와 총동창회 대표들 66명으로 구성된 제11차 총동창회 평의원회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다. 이번 평의원회에는 지난 8년간 서울의 母校 총동창회를 이끌었던 金在淳 동문(상대 46인, 현 명예회장)의 후임인 신임 林光洙 총동창회장(공대 52년졸) 일행과 母校의 이기준 총

장일행으로 구성된 순방단이 참석한다.

평의원회의에서는 정기총회 고유의 의제인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의결이 있는 뒤, 세계적인 선진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데에 재미 동문들의 유학, 연구, 직장생활 등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들과 산 경험들을 母校의 후배들의 교육현장에 연결하는 사업인 假稱 “재미 동문 知的 봉사단”의 발족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재미 총동창회 조직이 창설 및 성장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뜻있는 유지 및 동문독지가들이 선도하는 조직으로부터, 전체 미주의 주류사회에서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基層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는 自助 自立의 원칙에 따른 自律的인 조직으로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국 동창회를 지원하는 총동창회 분담금 책정과 미주 총동창회에 대한 지역동창회의 보조금 책정문제 등이 논의된다. 그리고 평의원회 전야(6월 14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에는 총동창회의 미래에 대한 ‘所望과 提言’을 주제로 한

symposium이 열린다.

재미 총동창회의 면세혜택(Tax Exemption Status)을 지역동창회 사업과 연결하는 과제와, 역동적인 동창회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미 총동창회의 회칙들의 검토, 개정이 논의될 예정으로 세부일정은 각 평의원들에게 서면 통지한다.

또한 이번 평의원회는 미주 전역의 지역동창회 대표자들이 각 지역 동창회의 활동과 사업을 통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본국 순방단, 재미 총동창회 본부가 소재한 시카고 지역 동창회 임원 및 미주 관악후원이사들을 초청하는 만찬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시카고 지역 동창회가 주최하는 평의원회 및 본국 순방단을 초청한 골프대회가 준비되어 있다. 평의원회 준비위원회는 동행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15일(토요일) 시카고 시내관광과 쇼핑관광을 마련하고, 바둑 애호가들을 위하여 바둑대회(단체전, 개인전)를 구상중이다.

李회장 총동창회와 노스캐롤라이나지역 방문

“母校를 위한 知的 奉士團” 구성 논의

재미총동창회는 미주 각 지역 동창회와 모국 동창회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4일 기간 중 North Carolina지역과 母國을 방문하였다.

North Carolina 지역의 3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한(NC State Univ. Duke, Univ. of NC), 이른바 “High Technology Park”에는 많은 동문들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NC지역 재미과학기술자협회에는 많은 동문들이 회원으로 있어, 재미 총동창회와 지역동문들의 지역동창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락회장은 3월 23일 있는 재미과학기술자협회 NC지역 세미나에 참가한 후에, 김기현 박사를 비롯한 서울대 동창회 발기위원인 7명의 지역 동문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지역 동문들은 30여명의 회원을 확보, 발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곧 지역동창회의 설립 신청서를 총동창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재미 총동창회 제 5차 임원회(4월 24일)에서는 NC 동문 대표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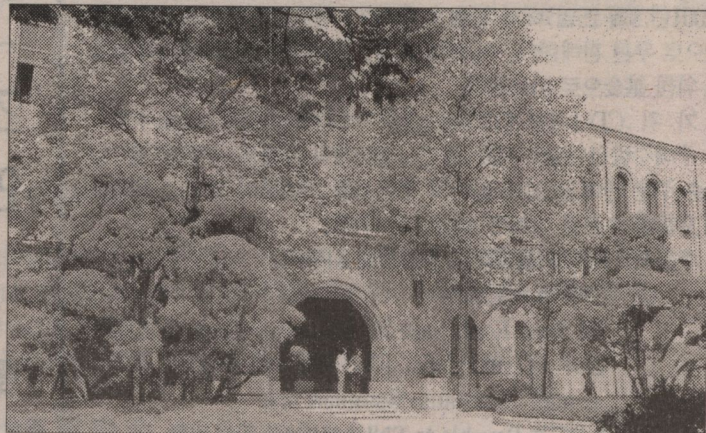
번 평의원회에 참관자로 초청하고, 제 11차 평의원회의에서 지부설립이 승인되면 NC 지역동창회도 평의원회의에 정식 참석하도록 협의하였다.

이어 귀국일정을 가진 李회장은 지난 3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34차 총동창회 정기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임광수 동문을 방문하여 본국 총동창회와 재미 총동창회의 협력 방안에 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4월 2일 있는 간담회에는 신임 임광수 총동창회장, 한두진 부회장, 이세진 사무총장, 공대식 공대회장 및 이형균 총동창회보 논설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임 임광수 회장이 취임사에서 피력한 “母校를 위한 知的 봉사단” 구상을 듣고, 李회장은 미국 각 지역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재미동문들의 人的資源을 모교의 교육현장에 연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렇게 되면 母校가 한국의 최고대학에서 세계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노력에 총동창회와 재미동창회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4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9면



4.19 의거때 독재타도의 지성인의 사자후가 격류하던 대학천 미라보 다리위에 피던 개나리와 동승동 구 대학본부 전경.

배중면 박사 FLC AWARD 수상

배중면(사진, 공대 85년 입) 동문은 작년도에 R & D Award를 수상한데 이어 올해 다시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Award를 수상하였다.

FLC Award는 첨단과학기술을 상용화시키는 것에 성공한 경우에 수여하는 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국립연구소의 경우 첨단 지식을 상용화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장려하고 독려하고자 제정 수여하는 것이 FLC Award이다. 배중면이 소속되어 있는 Argonne Fuel Cell Research Team에서는 개발한 Fuel Reforming Technology (Autothermal Fuel Reforming Catalyst for Fuel

cells)를 joint venture 회사와 합작 상용화하여, Fuel Cell의 상용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자는 배 동문을 비롯하여 Shabbir Ahmed, Mike Krmpelt, Romesh Kumar, Joh David Carter 이다.

특히 올해에는 26개의 FLC Award만 수여하므로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FLC에서는 오는 5월 6-10일 Little Rock, Arkansas에서 열리는 National Meeting에서 수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6월에 발간되는 워싱턴 DC 지부 동창회주소록 동문자료 보내주세요

문의: **진금섭 워싱턴 DC 지부동창회장 (703-627-8050)**
또는 **김주희 부회장(703-416-4325)**

워싱턴 DC 지부에서는 12년만에 지부 주소록 발간을 위하여 진금섭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동문회 임원,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들이 협력하여 주소록 발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진금섭 워싱턴 DC 지부동창회장은 작년 9월 취임 직후부터 김주희 부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주소록 발간을 준비하였으며 지난 2월 모든 임원들의 준비 모임을 갖고 발간 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동창회에서 관리해 온 주소록을 정리하여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들에게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확인된 각 단과대학 주소록을 편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새로 발간될 주소록에는 임광수 총동창회장, 이기준 총장과 이용락 미주 총동창회장의 인사말과 각 동문의 직장 및 e-mail 주소도 포함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소록을 정리하여 6월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행 부수는 1000부이며 약 5000불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경비 조달을 위하여 각 동문, 동문 기업체의 광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새 워싱턴 DC 지부 주소록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근황을 이곳 지부 동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 한국까지 모두 보급될 것으로 압니다. 이번 기회에 지부의 모든 동문들이 빠짐없이 수록되길 바라며 주위에 있는 미등록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 주소록은 저희 동문들에게 매우 유익한 주소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고자 김주희 동문>

공과대학 동문 주소록 자료 수집

工科大学 총동창회(회장 임광수)는 별도 주소록을 발간하기 위하여 개별 동문들의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 자료를 아래 투고처로 보내주세요.

<자료투고처 주소: 우편번호 120-70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문주소록 발간실,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번지 임광빌딩내 임광토건 주식회사, FAX: 011-82-2-360-5099 전화: 011-82-2-360-5001 ~ 3

"서울대 人名錄" 발간자료를

서울로 보내주세요

회원 인적사항 통보 및 문의처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2년 인명록 편집실 주소: 100-273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8-5 TEL: 02)704-8301(直) FAX: 02)704-8564 E-mail: snua2002@korea.com

| Sumi Jo 趙秀美 | |
|---|--|
| 1. (1:36:22) 6. Rossini 약혼 / La Princesse | |
| 2. (1:40:49) 6. Gierhard 로 140명 / Caro Mio Dio | |
| 3. (1:12:49) 6. Puffinberger 환기 / Ulanella | |
| 4. (1:14:11) 6. Grand 제네라 / Genade | |
| 5. (1:50:40) K. Richter 피아노 15곡 중 1곡 / Let Hand the seal! | |
| 6. (1:40:29) 송유민 노래 | |
| 7. (1:11:39) 신영희 성악 | |
| 8. (1:34:58) 신영희 노래 | |
| 9. (1:21:36) 김동진 연가곡 | |
| 10. (1:34:49) A. Rossini 발라드 2곡 / Una voce poco fa | |
| 11. (2:29:23) L. Berwald 프레그 발라드 | |
| 12. (1:31:52) P. Shostakovich 샹송 | |
| 13. (1:38:11) G. Handel 아리아 비에르도 / Lascia, Ch'io stiano | |
| 14. (1:02:15) 3중창곡: 사랑한 사람이 보면 / La Capinera | |
| 15. (1:15:00) G. Verdi 아리아: 318번가, 언제나 재능을 / Ah! Feras e Mi, Sempre Ubert | |
| 16. (1:56:08) 최정민 노래 | |
| 17. (1:50:23) V. Horvath Habanera Song | |
| 18. (1:10:44) 정지영 노래 | |
| 19. (1:48:47) 송유민 노래 | |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Love from Washington"

소프라노 조수미(Sumi Jo) Washington, DC Concert (2001년 8월 25일)에서 실황 녹음하여 제작된 CD를 500개 한정판으로 우편 판매한다. 이 판매 대금은 관악후원회와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으로 사용된다.

가 격 : CD 1개당 \$15(송류는 첫 한 개에 \$3 복수 구입 시 개당 \$1 추가)
구매수량(1인당): 제한 없으나 500개의 제한된 수량!므로 선착순 주문 판매함(30면 상단의 주문서를 기입하여 가격과 우송료를 포함한 수표를 아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SNUAA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sunaaua@sanuaa.org
*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로 작성 바랍니다.

제 5차 재미 총동창회 상임 임원회의

평의원회 준비사항 점검

전체 동문들의 회보 구독료 납부 요망

4월 24일 6시 30분부터 재미 총동창회 본부가 있는 시카고 중앙일보 구내에서 제 5차 상임 임원회의가 열려 6월의 제 11차 평의원회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 회의에는 이용락 회장, 구경회 사무총장, 김정주 총무국장, 전현일 재무국장, 장기남 섭외국장이 참석하고 (송순영 관악후원회 부회장, 정호 출판국장은 다른 일정과 중복으로 불참), 한재은 시카고 지역 동창회장도 이 평의원회 준비 협조 차 참석하였고, 김정수 편집인이 배석하였다. 이용락 회장이로부터 NC 지역 동창회 추진 경과와 서울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간담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전현일 재무국장으로부터 재정 현황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구독료 납부자가 1150명에 불과하였고 제 3차 구독료 납입서를 발송하기로 하였다. 또 부족한 회보발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관악후원 이사회비의 추가 모금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이어, 구경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평의원회 준비사항에 따라 보고가 있었는데, 평의원회 개최일자 통지서를 보냈으며 각 평의원들과 전화 연락 결과 현재 30명 정도가 참석 예정이라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평의원회에는 최소한 19개의 지역동창회의 대표가 한사람씩이라도 전부 참석하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이어 이용락 회장이로부터 평의원회 전야에 있을 재미 총동창회 창설 10주년 기념 Symposium 에 관한 구상안의 설명이 있었고, 전임 회장들 외에 추가로 약간명의 심포지움의 발제자 공모를 회보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또, 평의원회에 참석 할 모교와 총동창회의 순방단을 위한 초청장을 모교의 총장과 총동창회장에게 이회장이 발송하기로 하였다.

김정주 총무국장과 전현일 재무국장은 전년도 평의원회의 공식 회의록과 결산서가 전임 집행부로부터 평의원회 준비를 위하여 검토착취기를 바라한다고 하였다.

구경회 사무총장은 평의원회에 관한 상세한 행사일정과 관계자료를 마련하여 5월말까지 각 평의원들에게 발송하기로 하였다. 기타 평의원회가 열리는 숙소 예약은 평의원들이 5월 15일까지 직접 하며 (1-800-445-3315) 본국 순방단은 명단 확정 시 되는대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미 총동창회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개관할 수 있는 전시물을 지난 회보와 보관중인 자료들을 분석하여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재미 총동창회 10년 사의 발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년 제10차 평의원회 정기회의 광경

작년에 6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재미서울대동창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평의원회 제10차 정기회의가 시카고 교외의 옥브룩 힐스호텔에서 열려 평의원들이 차기 집행부 선출과 정관개정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진촬영=정호 출판국장>

조수미 CD 인기속에 판매 계속

귀국선물용으로 인기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4천5백불 확보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동문이 지난해 8월 25일의 Washington DC 공연에서 열창한 동서양 가곡을 담은 CD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이 CD의 판매금은 모두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과 재미 총동창회를 위한 관악후원금으로 납입되며, 잔여분 100개는 선착순 우편 주문 판매하며 주문서를 수표와 함께 총동창회로 보내시면 된다.

4.19 義學와 실천하는 知性人의 비판정신

4.19 宣言文(拔萃)

“韓國의 日淺한 大學史가 赤色專制에의 果敢한 鬪爭의 巨劃을 掌하고 있는데 크나 큰 自負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論理의 演繹에서 民主主義를 偽裝한 白色專制主義에의 抗議를 가장 높은 榮光으로 우리는 自負한다. 民主主義와 民衆의 公僕이며 中立的權力體인 官僚와 警察은 民主를 偽裝한 家父長的專制權力의 下手人으로 발벗었다. 民主主義理念의 最低의 公理인 選舉權마저 權力의 魔手앞에 壟斷되었다.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思想의 自由의 불빛은 無識한 專制權力의 악랄한 發惡으로 하여 깜박이던 빛조차 살아졌다.

우리는 기쁨에 넘쳐 自由의 햇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감감한 밤의 沈黙에 自由의 鐘을 亂打하는 打手의 一翼임을 자랑한다.”

(註= 歷史的인 四·一九데모의 烽火를 올린 그날아침 九時二十分 “서울大學校데모隊”는 이 宣言文을 天下에 公布朗讀하고 民主革命運動에 巨步를 내딛었던 것이다.

(大學新聞 289호 4293년 5월 2일자에 실린 原文을 전재함)



<大學新聞 社說 <단기4293년 5월 2일자>

항상 같이할 젊은 녀이여 이제는 눈감으라 미소와 함께

일찍이 없었던 크나큰 보람속에 그대들은 彗星처럼 사라져갔다. 欺瞞된 民權을 목매어 갈구하며 퍼붓는 彈雨속을 꽃처럼 散花해 간 아아 그대 젊은 녀이여! 이제는 새 날이 왔다. 모든 不正과 腐敗와 不合理속에 자란 偽裝된 民主主義의 舊殼을 芟除하고 젊음과 正義에 澎湃한 眞面目의 民主韓國을 바로 찾아 놓았다. 많은 피를 흘렸듯이 많은 結實을 얻은 것이다. 진실로 피의 代價는 高貴하였다. 우리의 同僚 우리의 親友 우리의 이웃이 쓰러지며 숨지울 때 그것은 제각기 約束된 榮光으로 얼마나 뜨거운 눈물속에 맺혔던 것인가! 엇그제처럼 다정한 體臭를 나누던 그대들! 이제는 救國의 祭壇위에 肅然한 姿勢로 微笑하고있는 그대들 피어린 자랑과 통땀 같은 사랑의 化身으로 그대들의 외침소리는 아직도 이렇게 切切하게 살아있음을 안다. 疾風같은 젊음의 應化力을 그대 가슴에 가르 말아 마지막 瞬間까지 물러서지 않은 그대들의 崇嚴한 鷹視를 본다. 永久히 뜨지 않는 불길처럼 우리들 젊은 가슴으로 點火되는 그대들의 빛난 녀은 이제 온 世界를 向하여 奔져가고 있다. 그대가 달려가던 그 地點에 그대가 쓸어졌던 footprint마다 이제는 大膽한 사랑에 넘친 歡喜와 待望의 萬歲소리를 그대들은 지금 듣고 있는가. 아아 四·一九! 그리고 四·二五! 그대들이 뿌린 피는 정녕코 헛됨없이 顯揚되었다. 그대들이 부르짖던 正義와 自由는 그대가 워치던 民權의 奪還은 거리거리에 넘친 勝利의 旗幅속에 豐滿한 感激으로 成就되어 있다.

祖國을 위해 青春을 바친 그대들 英靈앞에 웃기를 여미고 앉아 아픈 기쁨에 눈물을 흘린다. 정녕 辱되지 않은 崇高한 그대들의 죽음과 같이 卑怯하지 않은 義로운 삶을 위해 소리없는 慟哭속에 우리 모두 두손을 모은다.

리일락 香氣가 “캄프스”를 奔져오고 新綠의 清新함에 마음도 부풀건만 다시 보일길없는 그대들 모습에 서글픈 情感이 無限히 交錯한다. 그대의 體溫이 지든 講義室에 그대의 손길이 온 잔디밭에 우리 다시 모였건만 그대들 영영 잠든 靈魂들이여! 우리의 피맛인 사랑이여! 그대들의 아름다운 젊음과 그대들의 高貴한 녀을 받들어 우리는 얼마나 보람큰 來日 속에 자라날 수 있는가. 그대들은 갔어도 그대들은 잠들어도 悠久 連綿 같이 할 그대의 녀과 함께 우리 모두 永遠히 眞實과 義의 기리니 고히 잠들라 靈魂들이여! 고히 잠들라.

四·一九는 누구도 利用할 수 없다

피맛인 우리 學生들의 義學로서 모든 것은 成就되고야 말았다. 우리는 안타까이 祖國의 運命을 念願하였기 때문에 大學生의 良心으로 일어났으며 또한 事後 收拾에도 모든 힘을 다했던 것이다. 三·一五 不正選舉와 馬山 學生事件이 重要한 契機가 되었지만 우리는 官權에 玷染했던 民權을 찾기 위해 쌓이고 쌓인 義憤을 잠시 못해 일어났던 것이다.

前日 厚안無恥한 爲政者들과 官權에 積極 不부한 一部 知識層들은 馬山 學生事件과

四·一九 學生義學를 共產黨이 使喚하고 煽動한 것이라고 - 結局은 大多數의 眞正한 輿論앞에 屈服하였지만 - 가장 惡랄하고 獨裁的인 手法으로 國內외의 輿論을 여기에 集中시키려고 꾀함으로써 三·一五 選舉를 陰蔽하여 自己네들의 政治的慾望을 누리려고 企圖하였던 것이다. 또한 共產黨들은 血眼이 되어 可憎하게도 馬山 學生事件과 四·一九 義學를 마치 自己들이 主動하고 指導한 것처럼 逆宣傳하기에 尙속에도 狂분하고 있다. 우리 學生은 이 版局에 處하여 國內외에 四·一九의 意義가 “共產黨과의 鬪爭에서 피를 흘려온것처럼 우리는 또한 似而非 民主主義 獨裁를 排擊한다. 사일구 當日에 檄文과 “韓國의 日淺한 大學史가 赤色專制에의 果敢한 鬪爭의 巨劃을 掌하고 있는데 크나 큰 自負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論理의 演繹에서 民主主義를 偽裝한 白色專制主義에의 抗議를 가장 높은 榮光으로 우리는 自負한다....”는 宣言文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確認하는 바이다. 우리는 自發的인 學生의 總意로서 街里를 달렸고 이제는 理性으로 學園에 되돌아왔다. 앞으로 우리가 學徒의 本分인 眞理探究에 專念할 것은 勿論이지만 國內외의 政勢推移에도 非常한 關心을 가져야 되겠다. 共產系列의 蠢動을 止止하는데 積極的이어야 할 것은 勿論 民國의 轉換期를 틈타서 學生義學를 利用하려는 一部 政治人들과 英雄心에 날뛰는 一部 沒知識한 學生들을 嚴戒하여야 한다. 우리가 흘린 高貴한 피는 그 누가 利用할 수도 없으며 利用되었어도 안된다. 우리가 흘린 피는 누구의 손으로도 더럽힐수 없는 것이다.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 | |
|--|----|
| 1. 4.19 그날을 기리며, 大學新聞(289호 1960년 5월 2일자) | 4 |
| 2. 부정부패 - 한국언론 제구실 다 했나, 장동만 | 5 |
| 3. 시민운동 전문성 높여야, 박성조 | 5 |
| 4. 독백, 홍일제 | 6 |
| 5. 서울대학 개혁론에 대한 일 비판, 오태희 | 8 |
| 6. 9.11 사태와 나의 재학시절에 대한 단상, 방은호 | 6 |
| 7. 帝王과 牧童의 思考, 김봉현 | 7 |
| 8. 정치적 수사학의 새로운 원칙, 미국 時論 | 10 |
| 9. 오슬로 이전으로 돌아간 중동사태, 임관하 | 10 |
| 10. 팔레스타인에 벋빛정착을, 김종을 | 12 |
| 11. 外道는 아무나 하나, 송숙경 | 14 |
| 12. 오페라 나비부인, 고애자 | 10 |
| 13. 머나먼 오제트, 고희선 | 8 |
| 14. 나의 고향, 함흥, 한경섭 | 16 |
| 15. 4월은 건강의 달, 김일훈 | 12 |
| 16. 한국인과 傳記, 김향자 | 9 |
| 17. People지 편집장에 동문자녀 | 5 |
| 18. 세계적 심장내과학의 권위자, 김일훈 | 14 |
| 19. 지구를 살리는 ʼ비물 모으기 운동, 한무영 | 18 |

4.19 義學와 知性人의 비판정신

4월은 4.19 의거의 달이다. 일본식민지 통치 이후 해방, 동족상잔의 전쟁, 폐허 복구과정에 이르기까지 근대 한국사의 누적된 문제의 결정물인 독재정권으로부터 자유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젊은 지성의 獅子吼와 그 정신은 이 이후에 전개된 關係자와 역사의 歪曲에도 불구하고 그 克明한 명문속에 담긴 선언문과 단기 4293년 5월2일자 大學新聞의 社說에 살아있다. 이에 이를 전제하며 세계화의 시대라 하지만 아직도 미결상태인 한민족통일과 민족문화의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4.19의 과제는 이번호의 文筆과 論考란의 우리 동문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음을 느낀다.

봄이면 개나리꽃 만개하던 대학로, 낙산바위의 세월에 달아 흘러내린 모래위로 맑은 물이 흐르던 대학천의 “미라보”다리를 건너 絶叫하며 永久 집권을 기도하던 獨裁打倒에 앞장서다 민족의 自由의 祭壇에 散花한 젊은 영혼들이여 편히 잠드소서.

동문들이여! 세계의 선진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母校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제언과 남북한 關係, 날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문화의 조류를 소화하고 논하는 창의적인 과학 및 문화에 관한 文筆과 論考를 많이 보내시어 격조있고 유용한 재미 동창회보를 만들어 우리 다 함께 4.19 의거의 知性人의 批判精神을 繼承합시다.

자랑스런 2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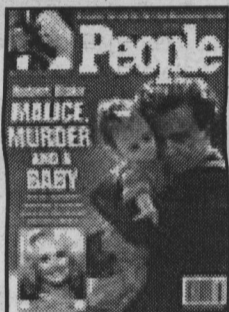
People지 편집장에 한인 2세 지니박

워싱턴 이민100주년 사업회장 박윤수 동문 장녀

평균발행부수가 355만부에 달하는 미국 최대의 대중잡지 피플(People)지 편집장에 한인 2세 여성 박진이(40·미국명 지니 박·사진)씨가 발탁됐다.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주요 언론의 고위 간부에 기용된 박씨는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워싱턴지역 회장을 맡고 있는 박윤수박사(미국 해군 과학기술 처행정관)의 큰딸로 워싱턴한인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피플지의 모회사인 타임(TIME)은 3일 자 인사발령뉴스를 통해 “피플지 매니징 에디터 마사 넬슨의 추천을 받아들여 지니 박을 편집장으로 임명했다”면서 “그녀는 85년 타임지에 조사부기자로 입사했으나 능력을 인정받아 89년 피플지 취재기자로 옮겨 톰 크루즈, 패트릭 스웨이지 등 섹시스타들을 멋지게 해부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버드대학 생화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한 뒤 저널리스트로 인생행로를 바꾼 지니 박은 17년간 TIME, PEOPLE, WHO, WEEKLY-REVIEW, IN STYLE 등 타임지 계열 잡지사를 돌며 언론인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고(故) 재클린 케네디 미국 대통령 부인과 세기의 연인 엘리

자베스 테일러(91년 10월) 등 유명 인사들과의 인터뷰로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로라 부시 대통령 부인이 미국의 주요 여성 언론인 10명을 위해 베푼 백악관 오찬에 초대받기도 했다.

또 소수계 언론인 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녀는 아시아계 미국인 저널리스트협회 뉴욕지부를 창설,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지니 박은 고등학교때까지 한국말을 배우는데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학 진학후에는 본인 스스로 한국말과 문화에 관심을 갖는 등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

았다고 부친 박윤수박사는 전했다. 하버드대학 동급생인 중국계 금융인 데이비드 쉐(제니슨연금 부사장)와 결혼, 1남1녀의 어머니이기도 한 지니 박은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면서 저널리스트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친인 박윤수박사는 “지니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기 보다 저널리스트의 길을 선택한 것이 본인이나 부모입장에서 더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딸애가 한때 자녀교육을 위해 직업을 포기한다는 말을 했을 때는 솔직히 섭섭했다”고 과거 심정을 토로했다.

박윤수박사는 본국의 박정수 전 외무장관의 친형이며 부인 현주여사는 현승중 전 국무총리의 조카다.

시민운동의 관료화에 대하여

朴 聖 祚 <문리대 1959년 졸업 자유 베를린대 정교수>

20세기 후반이후 시민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민운동의 발생지인 유럽의 경우 시민단체는 사회변화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녹색운동은 독일은 물론 유럽연합(EU) 전체에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고, 현재는 정당으로 발전해 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생활문제보다 變 革 치중

우리 나라도 1990년대 이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사회변화의 주체는 학생운동이었고, 8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운동이었다. 학생운동이 민주화에 앞장섰다면, 노동운동은 작업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제 시민운동이 비룡을 이어받아 시민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TV 뉴스 시간에 각종 사회 부조리·부정부패 등을 보도하면서 인터뷰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시민 운동가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 교수 리든가 동 분야의 전문 연구원들이 등장했는데 이 자리를 시민운동가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에도 정의하기 힘들지만 적도(適度)와 정도(正道)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운동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첫째, 한국의 시민운동은 환경문제·교통질서 캠페인 등 시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

제 대신 정치개혁·경제민주화 실현등 체제변혁과 관련된 거창한 문제를 다룬다. 유럽에서는 정당등 정치집단이 다루는 문제를 한국에서는 시민단체가 해결하려 든다. 둘째, 시민운동단체를 결성해 수십 명의 상근 인력을 두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 기업에 후원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수의사업까지 전개한다. 셋째, 시민단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제시는 물론 개별기업의 경영활동에까지 관여한다. 심지어 정부가 의약분업과 같이 개혁적인 정책을 실시할 때 시민단체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유럽과 같이 시민운동이 성숙된 국가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특징들은 시민운동 고유의 기능을 벗어나는 것이다.

필자는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시민운동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돼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되었으면 한다. 우선 시민운동은 전문성에 기초해야 한다.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인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여야 한다.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당해 시민단체는 없어진다. 단체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의약분업의 실패사례가 단적인 예다. 의약분업 이후에 발생할 사회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식의 시민운동을 전개한 결과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시민으로부터 소외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내 상근 인력은

최소화하고, 시안이 발생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옥스팜(Oxfam: 영국에 본부를 둔 NGO. 책·CD등 폐품을 팔아 그 기금으로 제 3세계를 지원하는 단체)이 그 전형적인 예다. 상근 인력이 많아지면 조직 내의 관료화는 물론 운영비 부담으로 여러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전개하게 마련이다. 이 경우 전문화하는 거리가 멀어지고 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세계화 경쟁력에 초점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되, 합리적 대안 모색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 16대 총선에서와 같이 시민 단체들이 연대해 특정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 등은 바람직한 시민운동의 모습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단체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편이하거나, 소액주주를 대신한 소 세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에 관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에 맡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 모체인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제도나 법률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화 경쟁력의 3대 척도라 할 수 있는 자유화·규제완화·민영화에 앞장 서야 한다.

우리에게 이제 자본주의 이외에 대안이 없다.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제도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중앙일보 2002년 2월 전제)

부정부패 보도, 한국언론 제구실 다했나?

장 동 만 <문리대 61년 졸업>

XX 게이트 OO 게이트- 들기도 보기도 지겨운 온갖 게이트 사건이 연일 한국 신문 방송을 타고 들려온다. 김수환 전 추기경의 말대로 부패하면서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부패하는 나라, 이제 많은 동포들은 고국의 이 부정부패 문제에 거의 절망 체념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역대 정권마다 그 말기에 와서야 이렇게 엄청난 부정부패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이번 Enron 사건을 두고 미국

의 양심있는 언론인들의 자성(自省)의 소리가 높다. NYT 러셀 루이스 사장 같은 사람은 WP에 기고를 통해, 기업 비리를 캐는데 언론이 너무나 게을렀다고 고백한다. 그 엄청난 사건을 사전에 인지, 경고음을 내지 못한데 대해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반성이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대형 부정부패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지듯 돌발한 사고가 아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그 사실은

물밑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더욱이나 요즘 한창 떠들석한 각종 게이트 사건같이 한국의 권력 핵심부 즉 청와대, 검찰권, 국정원, 정부부처, 심지어 조폭까지 가담한 국가기관 권력형 부정부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같이 엄청난 부정부패가 오랜 동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을 때, 사회의 목탁을 자처하는 한국의 언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언론의 사명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 이미 일어난 사건의 보도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언론의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잠된 언론이라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지닌 것들을 사전감지, 발굴해서 세상에 노출시키는 책임 또한 함께 지닌다.

그렇다면, 해저 보물 발굴 관련 허황 된 기사를 일 주일이 멀다하고 국내 주간지들이 특집으로 꾸미면서 요란하게 떠들 때, 한국의 어느 신문 어느 기자 하나 그 실상을 알아보고, 그 허황 뎀을 세상에 경고한 일이 있었는가? 어떤 한 기업의 주가가 불과 몇 달 사이에 몇 백원에서 몇 만원대로 폭등할 때, 어느 신문 어느 경제부 기자 하나 그 불가해성에 의문을 갖고 그 이면을 추적, 그 진상을 세상에 폭로한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돈 냄새 때문에 꼬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할 정도의 천문학적 현찰이 사과 상자에 담겨져

정치인들에게 오갈 때, 생리적으로 사냥개 같이 뉴스를 쫓는 후각을 가진 기자들이 그것을 정말 몰랐단 말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거나, 말을 하려해도 못했던 말인가? 어찌 되었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패 공화국의 경우 대형 부정부패가 역대 정권마다 한결 같이 그 말기에, 레임덕(lame duck) 시기에 와서야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정권이 살아 있을 때, 권력이 시퍼럴 때는 눈을 감거나 입을 다물고 있다가 정권이 다해갈 때, 권력이 힘을 잃어갈 때, 마치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 고기를 마구 물어뜯는 하이에나의 생리를 지닌 한국의 언론들, 이제 대오각성, 거듭나야 될 줄 안다.

전쟁이야기

9.11 사태와 나의 경성약전 시절 회상

방은호 <약대 45년 졸>

유사이래 오늘날까지 허다한 戰爭이 수많은 곳에서 있었다. 그 가운데 어떤 전쟁이 가장 뚜렷하게 역사의 전환 분기점이 되며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느냐고 누가 나에게 물어 온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1941년 12/8 진주만 기습공격과 2001년 9/11 무자비한 뉴욕테러사태라고 말하겠다.

요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TV 화면을 통하여 보고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60년전 있었던 태평양전쟁의 관한 일들이 주마등 같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이는 나의 근 80평생 동안 내 자신이 겪은 유일한 전쟁 경험이기 때문이다. 6.25사변때 나는 벌써 시카고에서 유학한지 2년째이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고 기어미 미국과의 전쟁은 터지고 말았다. 1941년경 한창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었다. 그 당시 일본 통치하에 식민지로 허덕이는 조선은 내선일체(內鮮一體) 황국 신민(皇國臣民) 등 구호 아래 온갖 희생이 강요되었다. 심지어 여자는 정신대 위안부로 끌리어도 가고 남아(男兒)에게는 징용 노동이 강행되었다. 급기야 그 무서운 징병제도도 실시하게 되었다. 1924년에 출생한 갑자(甲子)생이 제일기로 소집되어 한국의 젊은이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본 군대에 입영하는 첫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 쥐띠인 나는 이제는 별수 없이 일본 군대에 제일차로 입영하는 운명이었다. 할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의(醫) 약(藥) 치



(齒) 학과부문만은 졸업 때까지 징병이 연기되는 특전을 준다고 했다. 옳지! 잘 되었다! 피 할 길이 생기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원인이 되어 나는 경성약전에 응시 합격하고 나의 앞날의 갈 길도 그때 그렇게 되어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곡절로 나는 일본군대에 끌려 가지 않고 경성약전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약전에 다니고 1년쯤 되니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도는데 약전은 징병연기가 취소되고 곧 군대에 가야만 된다는 말이다. 우리 집안은 펄쩍 뒹잡히고 다 놀라고 낙심전만이었다. 그 중 우리어머니에게는 더 큰 일이 나시었다. 長男인 나를 장가라도 보내고 孫이라도 보시고 싶으셔서 다급하여지셨다. 이래서 나이 20의 애송이인 나는 그때 처음으로 맞선을 보는 경험도 하였다. 물론 그 여인을 단 한번 깜박할 정도로 잠깐 본 것으로 끝이 났지만 지금 생각하여도 운명이 바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문득 그때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고 이름도 얼굴도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그 처녀는 지금쯤은 나 같은 노령

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마저 스치어간다. 생각할수록 미소가 절로 난다. 그런데 실은 소문과 달리 징병취소 대상은 약전이 아니었고 경성치전이었다. 그 결과 많은 갑자생인 치과전문 학생들이 징병에 끌리어 가고 고생과 희생은 물론 죽음을 당한 동년배도 꽤 있었다고 한다.

1944년경 이야기다. 전쟁 중 약전학생들은 학업도 중요하였지만 군사교련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었다. 나 같은 사립학교 출신은 교련시간이면 죽을 지경이었다. 너무나도 교련을 몰라서 파견되어 온 일본장교 교관은 물론 급우인 일본학생들의 학대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배재, 양정, 휘문, 보성, 중앙 및 송도 등 군사교련이 없는 학교를 나온 30명의 우리들은 소위 "엽전"이라고 자칭하고 일본급우는 "쪽발"이라고 불렀다. 결국 별도로 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우리들로서 특별분대가 만들어지었다. 우리들은 마치 불란서의 유명한 외인부대와 같이 우리들 자신을 "엽전분대"라고 별명을 주었다. 그리고 일본급우들과 떼땀이 맞다고 행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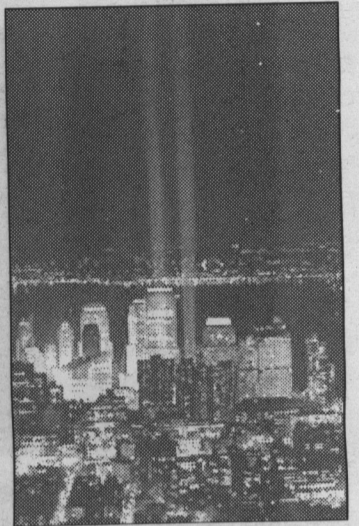
우리 엽전분대원은 모두 30명이었는데 비하여 일본급우는 90명이었다. 1대3이니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많은 숫자다. 경성약학전문학교는 분명히 당시 조선 경성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작은 minority이었으니 우리들 한국인이 얼마나 일제하에서 차별을 받고 멸시 당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일면으로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교육면에서 그랬으니 만사는 더 그러하였다.

점차 교련에 좀 익숙하여 지었다. 용산인지 서빙고인지에 있던 일본군대 연병장에 이른봄 새벽 끌리어 가서 달달 떨면서 이슬 맞은 잔디에 누고 기며 하는 훈련도

받았다. 또, 지금은 이북의 땅 일지(?) 모르는 평강(平康)에 있는 일본군대 야영(野營)훈련소에서 낮에는 모의전투 연습으로 무지하게 고생하며 훈련받으며 고달팠다. 저녁에는 일본급우의 조롱 시달림도 많이 당하여야 하였다. 때로는 우리들의 고달픈 처지에 무척 서러워 지기도 하였다. 우리 엽전 동지들은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가끔 우리끼리 속마음을 털어 놓고 투덜거리기도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엽전 분대원 들은 뽄뽄 함께 잘 뭉치어 참고 이기어 해 내었다. 지금 생각하여도 대견하게 잘 하였다고 생각이 간다. 그리고 한국남아의 긍지를 잘 지키었다고!

이러한 힘겹고 무미건조한 교련 훈련생활 속에도 유머라고 할지 웃기는 때가 종종 있었다. 지금은 그 지역 동네 이름도 나는 모른다. 일제하 황금정(을지로) 5, 6가로부터 남산 기슭 쪽으로 가는 곳은 신마찌(新町) 라고 불리었다. 이곳은 유명한 일본 유곽촌(遊廓村) 즉 公娼 紅燈街이었다. 공교롭게도 우리학교부터 남산 산꼭대기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유곽촌 중심가를 통하여야만 되었다. 몸을 단련한다고 우리들은 웃통을 벗고 맨 몸으로 매주일 한번쯤은 이곳을 뛰어 달리었다. 그러한 때면 아직도 지난밤에 육체노동으로 잠이 덜 깨인 유곽의 주인공들이 잠옷차림으로 우리들을 반겨 불러 주었다. "뭇 짱! 하야꾸 하있떼! (도련님 빨리 들어 오세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순진하고 아직도 동정(童貞)인 우리들은 얼굴이 붉어 타오르고 오히려 어찌 할 줄 모르고 당황하였다. 그러면서도 슬금 슬금 호기찬 눈으로 둘러보면 서 뒹었다. 뛰는 속도도 좀 느려 지었을 것이 분명하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는 해방 후 공창제도

가 폐지되었다. 그런데 독일 함부르크나 화란의 암스텔담에 가보니 그곳에는 공창이 즐비하게 있어 붐비고 있었는데 일본시대 때 보던 것과 똑같은 광경이었다.



9.11 사태로 가라앉은 "Ground Zero".

과거의 전쟁은 보병들이 칼을 총에 부치고 돌격 육탄 공격하여 승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국적이 완전히 다르고 다른 군복을 입은 적이 상대이었다. 그런데 9/11사태 이후는 그것이 아닌가 보다.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테러범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적이 고 어디엔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제는 국경도 없고 싸우는 장소도 불문이고 하여 戰爭은 언제고 어디서나 터질 수 있다. 군인도 아닌 무고한 시민들이 무차별하게 희생 될 수 있으니 참으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된 듯 하다. 이전 전쟁도 무인 비행기와 최첨단 과학 기술 그리고 막강한 파괴력과 정확한 폭파력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생각하여보니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역사가 BC와 AD로 구분되듯이 9/11사태 또한 역사의 또 다른 전환점 분기점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었다.

獨白

홍일체 <필명, 의대 62년 졸>

들어 봄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생각나는 구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몹시도 그리움에 마음 안달하고, 하지만 하루 이를 곁에 가까이 있어보면 그 안달함이 식어지니 이야말로 사람마음 알길 없네 그러! 더더구나 내 이 안달하는 마음 말이 외다. 팔랑이는 등잔불에 밝았다 희미해졌다하는 그 마음말이예요!

끝도 시작도 없이 일었다 사라졌다. 또 일었다 사라지며,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즐거웠던 흐름이 계속될 리는 없어도, 이것 저것에 뜻하지 않게 부딪히며, 크고 작은 그 즐거움의 흐름따라 계속함이 삶의 흐름이 아닐까 음미해 봅니다구려!

어디서 어떻게 시작돼 흐르고 또 흐르

는지는 몰라도 그 흐름으로 해서, 삶이 기억없는 즐거움이 더 해 갈테니까요.

허기야 그 흐름따라 날린 꿈들로 해서 그 삶의 경지가 더더욱 지극하여 지졌지요. 흘러흘러 저멀리 넓은 강을 걸쳐, 바다로 행함이 그 얼마나 가관이오만, 달콤한 꿈 실지않은 흐름의 강물이 뭐 그리 신통하라 말이외다.

달콤한 꿈이 있어, 넓디 넓은 바다에도 그 꿈을 던져 더해가니, 삶의 그 힘함이 더할지어다. 저 멀리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 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졸졸 그에 못지않은 꿈을 실어가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흘러흘러 넓디넓은 바다에 다하니, 그 얼마나 장엄함하오리까?! 달콤한 꿈같은 사랑이 있는 삶이 말이외다.

술술 잔 물결 일며, 말없이 무심히 흐르는 그 흐름, 그에 실은 자그마한 꿈들! 이것 저것에 부딪혀 산산 흩어졌어도, 또 다시 술술 잔 물결따라, 자그마하고, 달

콤한 꿈을 실어 흐르게 할 수 있는 내 이 마음이 심히 가상하기도 하구려! 더욱이 나 당신과 같이 멀었다 가까웠다 하며 함께 하니 말이외다. 아마도 모름지기 그 마음의 진광(眞光)을 깊이 알려면 조금은 떨어져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구려. 너무 가까워도, 또 너무 멀어도, 그 진미를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서서히, 때로는 급히 흐르는 강물의 찰랑이는 물결따라, 이 꿈 저꿈 실어 흘러보낼테지만, 그 꿈 갖게 한 이가, 영영 흐름따라, 저 멀리 넓디넓은 바다로 떠나 버렸으니, 이 술술 흐름따라, 그 꿈들이 옛같이 더함을 지금 어찌 할 수 없네요! 꿈을 따라 흘러감에는 더함도 못함도 없을테고, 재촉함도 없을 테지만, 이 순간 그 꿈 실은 잔잔한 물결의 흐름이 어이 그리여 전할까요?! 달콤한 꿈이 실렸기에 말인가 보이외다. 덧없이 흐르는 냇물이 거센 강을 걸쳐 넓디넓은 바다에 이르면 그에 실

었던 꿈들다 어디로 갈 건가요? 그저 꿈으로 꿈으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흘러 또 흘러, 저 이름모를 산골짜기에 다시 와 가나라라 그리고 시원한 실마리의 셋물이 되어, 그에 실려 다시다시, 심히 잔잔한 물결따라 흘러 또 자그마하고, 달콤한 꿈을 그 흐르는 물결에 실어 거센 강을 헤쳐, 넓디넓은 바다로 흘러흘러 갈건가요?! 내 이 마음 안달함 탓 알고, 가까웠다, 멀어졌다 술술 흐르는 잔잔한 물결따라 멀리멀리 꿈을 실고 흐르세요.

팔랑이는 등잔불에 가까웠다 멀었다하는 내 이마음의 안달하는 꿈을 실고..

내 사랑하는 님이여! 내 떨어져 있는 이 찰랑이는 마음이 무척이나 안달스럽구려! 가까이 곁에 꼭 붙어있어도, 그렇게 또 안달스러울까요?! 이 고요한 순간, 떨어져 있는 내 마음에 달콤한 사랑이 깃든 꿈이 더더욱 곱게 찰랑이네 그러! "사랑하는 내님이여"

帝王 대통령의 牧童적 국제정치관

부시의 악의 축 발언

김봉현 <법대 55년 졸>



1월 29일 미연방의회에서 부시 대통령이 행한 연두연설은 세계 각국에 다 방영이 되었는데 그때 발언한 악의 축(Evil of Axis)이라는 폭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그런 폭탄 선언에 이복을 포함시켰는가? 이것은 우방국가 뿐만 아니라 백악관 고위 측근자들도 이해를 못해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부시는 항상 돌발적인 발언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분의 언어상습인데 이번에도 결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단독 결정을 했던 것 같다. 9.11 사건이 났을 때도 그의 첫 발언은 "이것은 전쟁이다 (This is a war) 당장 보복을 해야된다(Retaliatio)"였다. 세계 최강국이며 가장 부유한 또 민주적인 대국의 최고 원수의 위신을 지켜서라도 차라리 테러집단을 세계의 심판에 응징하겠다고 하는 유연한 태도로서 위기를 임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테러단체와 국가는 일대일이 대등한 관계가 아님).

또 테러들에 대한 반격을 Crusade(원정)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중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중세기 기독교 십자군이 회교도 국가에 원정을 행한 성전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성경에서도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는 용어이다. 이런 용어선택을 한나라 원수로서 한 것은 마치 테러에 대한 처벌이 기독교와 회교도의 정면 대결 충돌의 전쟁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이로서 기독교 국가와 회교도 국가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분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이 테러 사태에 대응하여 당장 필요한 우방과 중동 아랍 국가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테러집단에 공동전선을 펴 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며 미국 외교정책 수행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발언이다. 이때문에 부시는 이것을 또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렸으며 부시는 회교도 성당을 여러 번 참배하면서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은 채 나 산채나 여기에 끌어오라 (Bring him dead or alive)"라는 말을 기자회견에서 하는 것은 텍사스 카우보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대통령으로서 하는 언사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대한 火力과 전쟁기술을 활용해서 큰 승리를 했다. 이번 승리에 너무 도취가 되었는데 이번에 발언한 Axis라는

말은 이차 대전시에 독일의 나치 정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국 동맹을 대상으로 썼던 호칭인데 하필이면 왜 다른 용어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민주국가 지도층에 있는 3개 국가에게 불쾌한 감을 연상케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걸프(Gulf)전쟁시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우방의 지지를 받는데 매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한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항상 말만하면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며 발언 후에는 그 해명 변명을 하는데 더욱 많은 신경과 노력을 온 백악관 측은 애쓰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미국 여론에서 열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또 견식도 없다. 그래서, 외교문제는 측근자에게 일체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체니 부통령, 럽스 해로드 국방장관, 라이스 안보 보좌관들이 거의 다 최종 결정을 해왔던 것이다. 이분은 외교정치에 있어서는 하등 아무 vision이 없는 것이며 한가지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Strategic Missile Defense Initiative - 미사일 방위전략이다. 이것은 어린애가 마치 장난감을 좋아하듯이 매일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있고 항상 그 Project가 어떻게 정당화하고 의회와 미국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란, 이라크뿐만 아니라 북한을 Rogue State(악성국가)로 보이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북한이 핵 문제 미사일 생산방출, 위험전쟁 도발을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자기의 이 Project를 납득시키는데 또 정당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 북한이 호전적으로 나가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대화 촉진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도 반갑게 여기지 않았으며 김대통령 방문 시에도 냉정한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관객에 소개할 때도 "This Man"이라는 외교수사에 어긋난 용어를 썼으며 나중에 또 해명을 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냉담했으며 심지어 그러한 이복 정권을 어떻게 믿고 회담할 수 있겠는가? 두고보라고만 하였다. 그후 남북 대화추진이 잘 안되었던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부시는 남북이 접근시도를 계속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나 또 남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점을 볼 수가 있다. 9.11 사건 후는 물론이지만 그 전부터도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완전히 백악관 강경파적인, 럽스해로드와 그 국방부 보수파나 또 라이스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온건파인 콜린파월 국무장관은 완전히 밀려나와 있었다. 그는 반대를 하다가 안되니 이제 와서는 강경파에 따라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월은 항상 테러전쟁을 군사적으로 무조건 확대해서 나갈 것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방과 아랍국가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야단스럽게 하지 말고 실속적으로 조용히 또 꾸준히 포괄적으로 대처하자고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부시의 circle에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으며 라이스가 더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미국은 과거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는 남북통일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냉전시대에서는 남한은 공산 세력이 동남 아시아 그리고 일본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물론 말로서는 남북통일을 지지한다고 해왔지만, 독일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통일에 미국이 그렇게 도움을 준 것은 없다. 오직 위대한 서독민족과 정부가 막대한 경제력과 당시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해서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련을 잘 구워삶았던 것이다.

냉전 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졌으니 이점을 한국정부에서 얼마나 미정부에 강조하고 외교활동을 했는지 모른다. 즉 남북분단은 미 외교정책의 실수로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미국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남북통일을 도와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 시대는 그 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가 대두하니 여기에 완전히 정신이 팔리고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남북통일 문제는 핵 문제 해결 협상은 이복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 도중에 남북문제가 대두되면 함께 토의진행을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한국 정부에서는 핵 문제와 남북대화통일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나가자 즉, Linkage 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미국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우리 외교활동이 얼마나 충분했는지 미비했는지 현저한 결과는 안보였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에서는 남북대화가 계속되고 접촉하는데 지지는 해왔으며, 이복하고도 핵문제 경수로문제, 식량문제, 북미국교 관계, 영사관 설치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에도 많은 신경을 썼으며 한국 정부하고 상의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노력은 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도 진전도 있었고 이복하고 대화가 계속되었다. 클린턴 정부가 이복을 많이 포용하면서 끌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태도는 대북한 견제가 첫째이며 전부이다. 남북대화, 교류, 통일 회담문제 등은 거의 다 도외시되었다. 이제는 악의 축 발언으로 이복은 선전포고나 최후통첩으로 받아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북미회담이나 남북 대화가 진행되었는가?

부시 대변인들은 미국은 그런 강경한 경고를 했지만은 아직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북한이 오 늘이라도 무기 방출을 중지하고 대량학살 무기생산을 중단하면 언제라도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화를 원한다면 왜 그러한 폭탄 선언을 생각없이 했느냐는 반문이 온다. 무성의해서 그랬는지 신중치 못해서 그랬는지 불필요한 발언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긴장을 불러오고, 전쟁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북한은 과거 몇 년 동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온건하게 비 도전적으로 처신해왔으며 긴장도 점점 풀려가고 냉전의 얼음이 점점 녹아가고 있었는데, 왜 이제와서 미국이 찬물을 부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남북 대화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고 북미회담도 끝장을 내리는 처사를 했는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다. 지금 미국과 우방의 여론도 점점 불리하게 예측을 한다.

부시의 이번 선언에 대한 지지는 미국과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가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부시의 재선의 가능성도 여기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본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테러전쟁을 우방이나 중동국가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미비하나 지지를 한 것도 우선 자기들 나라에도 이러한 테러가 자주 일어나서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자기네의 반테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들의 여론이나 지지가 반드시 부시 개인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역사상 미 국민들은 위기가 오면(과거 진주만 공격처럼) 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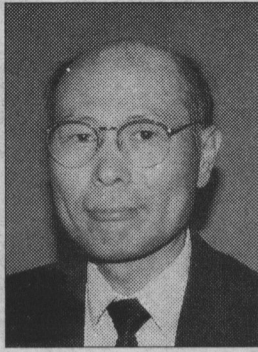
건 현직 대통령의 영도하에 단결을 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며 성조기를 내걸고 결속하는 전통이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이 탁월해서 그렇다고 자만하면 큰 오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부시는 이 사건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취임후 부시의 지지도가 가장 높아졌다. 왜냐하면 반테러전이라하면 아무도 반대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부시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인가?

1. 이라크하고 북한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미국에게 강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테러행위를 직접하는 나라가 아니고 다만 미사일 등 군사물자를 테러 국가를 포함한 여러나라에게 돈을 위해서 수출하는 나라이다. 주로 이라크하고 파키스탄에게 많이 팔았다. 테러를 양성하고 보호하는 나라는 아니다. 그러한 나라는 이란, 이라크외에 리비아, 시리아, 또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나라가 우선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부시가 꼭 축(axis)이란 용어를 쓰고 싶었다면 북한 대신 리비아를 포함시켰어야만 된다고 본다. 이복은 소위말해서 다루기가 "만만해서" 그렇게 한지도 모른다. 즉 배후에 중동회교도 국가같은 지역적 종교적 배후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라크의 Saddam - 사담은 사실 중동국가들에도 인기가 없으며 중동국가들도 이제 지켜서 사담이 물러나기를 속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별 염려 없이 "축"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2. 그래도 북한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도깨비 같은 예측을 불허하는 정권을 다룰 수 있는 나라는 남한 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통일 촉진이 오직 북한을 위협국가로부터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납득시켜야만 된다. 죽이되던 밥이되던 남한이 북한을 감당하고 대처하게 도와 달라는 것이다.
3. 이복에 대한 지나친 과격적인 대응은 -즉폭격 같은 것은 지평확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남북통일의 꿈을 완전히 말소하는 것이다. 미친개는 어떻게 나올 지 예측을 못하니 과격은 절대 금물이다.
4. 계속해서 미국은 남북통일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역사를 상기 시켜야만 된다.
5. 이제는 한국정부는 남북회담 화해추진 대회추진 등 통일사업 과정을 필요하다면 미국의 개입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정책계획을 잠정적이거나 연구하기 시작 할 때라고 본다. 즉 contingency plan 대비책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대학 개혁론

자율적인 교육행정과 동창들이 끌고 미는 세계적인 경쟁체제로의 전환

오태희 <의대 64 졸, 현 Yale대 교수>



동창회보에 거론된 <Blue Ribbon Panel> 보고서와 <서울대의 위기론>에 관한 특집을 읽고 재미서울대 동창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몇 구절 적어본다.

우선 해외최고자문단 (BRP)의 서울대학 평가보고서 (영문?)를 그 요지만 한글로 읽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나의 절견이 자문단이나 선후배 동창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자문단은 전직 현직 석학들을 망라한 외국인이다. - 전임 하버드 문리대학 학장, 전임 동경대학 총장, 전임 시카고 대학 총장, 전임 캘리포니아 대학 경영대학 원장, 현직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현직 영국 캠브릿지 대학 교수? - 이상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인데 선정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대학 경영에 일가견을 가진 최고 자문단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문단의 보고서는 서울대학이 모든 면에서 세계 주요 대학에 비해 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서울대학 당국이 자문을 구하지 않았는가? 최고자문단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비교가 되는 것을 비교하여 발표하였는지 알아 보았어야 마땅하다. 그간 적지 않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 결론을 내린 자문단의 보고서는 거창한 이름에 비해 아무리 생각해도 새로운 것이 없다. 역대 국립서울대학 총장이나 학장은 물론 일반 교수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외국인의 입을 빌려 한국의 위정자에게 고발했을 따름이다. 자문단이 한국의 교육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자문에 임했는지 의문스럽다. 서울대학을 한국에서는 항상 하버드 대학이나 세계의 명문대학과 비교하여 대학의 품위를 논의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최고자문단마저 그런 불합리한 방법으로 서울대학을 비교하다니 알토당도 않은 일이다. 처음부터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비교하여 열악한 국립서울대학의 제반사정을 다시 들먹인 것 뿐이다. 쉽게 말하면 어른과 아이를 두고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니 결과는 뻔할 수 밖에 없다.

둘째, 3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하버드 대학과 이제 겨우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대학을 비교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자주 쓰는

유행어로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격이다. 사과는 사과와, 오렌지는 오렌지와 비교해야 한다. 서울대학은 민족상징의 6.25 전쟁을 겪고 4.19 학생혁명과 5.16군사혁명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의 역경을 극복하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맡은바 임무를 다 하였다. 수 많은 서울대학 출신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도처로 진출하여 모든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런 인재 배출시킨 대학이 지상에 과연 몇이나 있는가? 그런 점에서 나는 서울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운영체제가 완전히 다른 하버드와 서울대를 마찬가지로 비교하여 우위를 거론하는 일도 이치에 어긋난다. 하버드는 사립대학으로 재단에서 관리하고 실제로는 재단이 임명한 총장이 운영한다. 미국의 명문대학은 대부분 사립대학이지만 명문 주립대학도 수 없이 많으며 교육행정은 교육전문가의 소관이다. 반면에 서울대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이

다. 임기가 겨우 4년인 대학총장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정부의 개입으로 대학운영을 소신껏 할 수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행정의 전문가도 아닌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총장을 견제하고 청와대의 허락없이 아무런 행정력을 구사할 수 없도록 만든게 사실인데 서울대를 하버드와 비교하다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넷째,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대학이다. 하버드의 자산 규모가 \$207억 (\$207x107)인데 서울대학 자산은 하버드의 0.5%에 불과하다고 발표되었다. 자문단만 아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하버드 동창의 숫자는 서울대학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으며 거액이든 소액이든 동창들이 해마다 꾸준히 기부금을 학교로 보내고 있음은 대학의 전통이다. 따라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하버드를 비롯하여 미국의 명문대학 총장은 기부금을 모으는 일에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 대학이 자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훌륭한 대학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하버드에 비해 서울대학의 학생 교육비나 교수연구비며 도서관의 장서수와 예산이 아주 적은 것은 당연한데 새로운 사실이나 발견한 것처럼 자문단의 보고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언론이 편승하여 대학의 위기라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만일서울대학이 하버드 대학같이 돈이 많고 운영

체제와 역사가 비슷하였다면 하버드 대학 못지 않게 우수한 명문 대학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끝으로, 서울대학이 세계의 대학과 경쟁을 치러야 하는 이른바 Cybernetics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 산재한 다른 대학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외에서 경쟁에 이기는 지름길은 무엇보다 먼저 서울대학의 예산을 정부가 현실에 맞도록 증가시키는 일이다. 거듭 하지만 재정이 풍부하면 산적한 문제가 대부분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 학생의 학구열, 창의력, 교수능력, 연구논문, 연봉제도, 교수초청, 등등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대학이 발전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재정이 풍부해야 한다. 이 기회에 서울대학을 하버드와 비교만 하지 말고 아예 하버드처럼 입학전형 위원회를 만들어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생정원을 결정하고 선발하여 기부금도 많이 받아 들여 대학의 재정을 차차 키워 나갈 일이다. 정부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의 재정을 적극 보살펴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대학이 독자적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게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창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켜 기부금을 끌어 들이는 일에 앞장서게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재정으로 공부벌레만 모아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반드시 훌륭한 대학이 아님을 대학과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 깨달아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울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04-18-02)

- Seattle 역사 기행

머나 먼 오제트(Ozette)

고희선 <법대 64년 입학>

나는 새라토가에 살고 있고 집 앞에 새로 지은 주택단지의 이름은 낸터켓(Nantucket)이다. 그리고 우리 동네 옆은 태투슈(Tatoosh)이다. 주택단지의 다양한 이름들이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건축회사의 이름 현대, 삼익, 한양 등을 따오던 것과 차이난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 집을 사면 당연히 주택업자가 지어 준 이름을 갖게 된다. 이곳 주택단지는 주로 地名을 선택한다. 그러나 낸터켓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기 일쑤다. 더욱이 태투슈가 마카 인디언 보존 구역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시애틀에 이민 온지 오래 된 사람일지라도 부시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과 그 미묘한 변화, 남한의 민주당 대통령



경선 주자 이름과 그들의 순위, 한국에서 방영되는 연속극의 결말, 그리고 부평에서 일어난 가스폭발 사고의 부상자수까지 기억할 수도 있다. 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사망자의 명단까지 외울 지 모른다.

또한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역사와 현재의 종교정책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다. 그것이 뭐 잘못 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오제트 湖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대답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아가서

미국 대륙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의 지명을 대라면 대개는 뉘통수를 굽적거릴 것이다.

오제트 湖水(The Lake Ozette), 시애틀에서 멀고 먼 호수이다. 올림픽 반도 서쪽에 위치한 호수의 이름이다. 호수를 들 수 있는 도로가 개발되지 않아 당일로 시애틀에서 보고 오기에는 교통편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오제트 호수에서 하이킹을 하여 서쪽으로 3마일을 걸어나가면 미국대륙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알라바카(Cape Alava)이 나온다. 도로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변가를 끼고 셀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가 널려있다. 파도 속에 우뚝 서 있는 수많은 바위섬들이 파도와 함께 태평양을 환상적으로 장식한다.

벼르고 베틀던 오제트 호수의 하이킹을 위해 하루 밤을 올림픽 반도에서 머물지 않으면 안되었다. 워싱턴주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 미국 대륙의 가장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을 시애틀 타임스의 야외 스포츠 칼럼니스트인

Ron Judd는 야외 캠핑의 최적지의 하나로 꼽는다. 그곳은 캠핑하는 텐트 옆에 사슴이 한가로이 누워있고 너구리가 음식을 뒤지기 위해 가방의 지퍼를 연다. 곰이 어슬렁거리며 캠핑장 옆을 지나간다. 캠핑과 하이킹을 좋아한다면, 브랜드 네임이나 名品을 찾듯이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이나 그랜드 캐년 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왔다. 곳곳에 한국민이 없는 곳이 없다. 적극적인 개척정신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열심히 파악하지 않는 듯 하다. 이곳의 호수는 주변 어디에 있는지 회색 고래 떼는 언제 워싱턴 주 연안을 지나가는지 알아야겠다. 이곳에서 우리의 2세와 나아가 우리의 자손이 살아 갈 곳이고 우리가 기반을 잡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폼페이 최후의 날을 기억하듯이, 5백년 전 이곳 오제트 호수를 근거지로 살던 마카 인디언들의 쇠락의 역사를 배워야 할 것이다. 한때 번성하

던 마카 족은 그 때 지반의 붕괴로 매몰되어 폐죽음을 당했다 한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머킬티오 바닷가의 공원에서 귀중한 자료를 수집 할 수도 있다.

시애틀의 북쪽 머킬티오의 공원 앞 바닷가를 거닌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공원에서 있는 이끼 낀 초라한 기념비를 유심히 읽어 본 사람도 드물 것이다. 기념비는 이렇게 적혀 있다. "1천 8백 5십 5년 1월 22일 워싱턴 지역의 인디언 부족 2천여 명이 이 곳에 모였다. 우리는 미 워싱턴 주지사 아이작스티븐스의 제안에 따라 우리 인디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복한다. 추장 시애틀은 이제 인디언과 미국민은 서로 형제가 되었다라고 선포한다. 우리는 미국측이 제공한 보호구역으로 들어간다".

무심한 기념비는 담담하게 인디언 역사를 말한다. 봄이다. 이제 슬슬 회색 고래 떼가 태평양을 끼고北上하는 시절이 왔다. 박물관을 찾아 마카 인디언도 배우고 오제트 호수도 거닐며 이민 온 이곳을 돌아보는 때가 되었다.

San Diego Journal

“韓國人과 傳記”

- 유기천 교수 추모의 모임을 보고

김향자 <약대 61년 입>

60년대에 母校를 다닌 세대에게
는 봄은 특별한 의미로 기억된다.
그래서 “예외적인” 자유의 나라
미국 서남해안의 도시의 일상의
자유 속에서 동문들은 재학시절의
자유의 시련기를 가끔 되새기게
된다. 이곳 San Diego는 모교의
9대 총장(1965. 8. 27-1966. 11.
11)을 지내신 故 유기천 교수
(Paul Kichon Ryu 1915-1998)
가 생애 마지막 20여 년간을 보내
셨던 곳이다(회보 #88호 24면 참
조). 지난 3월 4-5일 양일간 遺家
族과 동문들을 비롯한 지역 동포
33인이 고인을 추모하는 모임(“A
evening with professor
Choi”)을 가졌다.

이날 초대손님은 母校의 최종고
교수(법대 70년 졸)이었다. 그는
지난 학기에 이곳 산타클라라 대
학에 방문교수로서 동아시아 법제
사와 법사상을 연구 강의하셨는데
그는 24권의 저서와 6권의 역설을
가진 왕성한 저술가이다.

최교수는 한국역사의 격동기였
던 60년대 중반 모교의 역사의 한
단면을 집약하고 있는 유기천 교
수(Paul Kichon Ryu)의 전기
집필자로 위촉되었는데 이번의 방
문은 전기집필을 위한 자료수집과
증언채록을 겸하여 이루어졌는데
3월 4일에 이곳에 도착하였다. 이
날 모임에 앞서 최교수는 생전 유
총장의 遺跡(3131 Drive 소재)를
방문하여 평소 그의 스승이 사용
하시던 책상을 어루만지고 의자에
앉기도 하며 감회에 젖었으며 또
고인께서 3.1운동의 33인의 넋을
기려 정성스레 가꾸던 33그루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는 뒤뜰도 살
펴보았다.

3월 5일에는 33인의 초대손님들
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유가족 친
지들의 회고담을 듣고 최교수는
한국 법제사와 법사상 연구자로서
의 “전기문학관”과 이에 바탕을
두고 집필할 고 유기천 총장에 얽
힌 일화들을 참석자들과 나누었
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총장의 동
생 유기록님의 인사말씀에서 다음
과 같이 유총장과 관련된 일화를
말씀하였다. “... 전 연세대학 총
장 백낙준 선생께서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다가 시간 안에서 죽고
공간 안에서 살다가 공간 안에서
죽는다. 그러나 조만식 선생은 時
間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신 분이
기 때문에 우리들의 총애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일



제9대 총장 유기천
(1965. 8. 27~1966. 11. 11)

이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1914
년에 오산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하
여 인재를 양성하시다가 1919년
평양으로 오시어 3.1운동에 참가
감옥에서 2년간 복역하셨고, 朝鮮
物産 장려운동을 하셨습니다. 조
만식, 오윤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유계준 장로님은 평양 산정현 교
회의 큰 세 장로님들로 늘 모여 나
라의 독립과 교회의 일을 염려하
고 의논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
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
시다가 1944년 4월 순교하셨는데,
뒤에서 재정과 정치적 배경을 돌
보신 분들이 이 세분 장로님이었
습니다. 남한에 있던 북한의 譯者
들과 조만식 선생을 교환하려는
날짜가 1950년 6월 26일로 정해졌
는데, 저희 부친은 6월 24일 오후
3시경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시다
가 대동강 백사장에서 처형되셨습
니다. 조만식 선생은 훌륭하시며
역사적인 인물로 자신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3년 전에 서
울대학교 20년 史 첫머리에서 ‘인
간은 歷史 속에서 출생하여 역사
속에서 죽는 동물이다’라는 귀절
을 보았습니다. 장을 넘겨 누가 썼
나 보았더니 제 형님인 Paul이
(유기천 총장) 썼더군요. 오늘 이
모임에서 저는 인간은 역사 속에
서 살 뿐 아니라 역사를 만들며 산
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한 역사
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모
임이 각자에게 기념이 되는 저녁
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

이어 소개되어 등단한 최종고
교수는 그의 스승의 한 분인 유기
천 교수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
다.

“한국 법학사에서 유기천 선생
님을 따라갈 만한 학자는 前無後
無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긴



아래열 좌로부터 : 정경화(의대 54) 김병목(의대 45) 최종고(법대 66) 박정자(사대 61) 김향자(약대 61) 이소민(음
대 92), 2열 좌로부터 : 임천빈(문리대 61) 이양숙(치대 30) 박윤정(미대 62) 문지혜(농재 90) 이용준(공대 91) 이충
원(농대 91), 3열 좌로부터 : 정 철(공대 71) 손명세(공대 60) 김미리(음대 64) 안정모(공대 88) 이상협(공대 88) 오
동찬(자연대 92)

하나 그분께서는 일찍이 동경제대
를 졸업하셨습니다. 저의 대학 2
학년 재학시절에 선생님께서는 총
장으로 재임 중이셨는데, Bonn
대학 총장이시던 유명한 형법학자
한스 벨첼이 한국에 왔는데 그를
유교수께서 유창한 독일어로 소개
하셔서 제가 흥분했던 기억이
나고, 유교수의 부인은 유태계
의 유명한 형법학자이셨던 헬렌
실빙 여사였습니다. 두 분은 영
어, 독일어로 학술전문지에 많은
글을 발표하기도 한 탁월한 인
생행로를 걸으셨습니다. 선생님께
서는 6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시었지
만 그때의 선생님에 관한 상당한
誤報와 誤解는 당시 언론계의 희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서는 박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미국
으로 망명하셔서 20년 이상 여기
서 지내시다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는 또 이런 선생님이셨지만 세
월의 忘却의 힘은 이제 그는 한국의
일반인에게는 물론이고 심지어
법과대학 재학생들도 잘 알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잊기 잘하고 급
변하는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런
인물에 대한 기록을 전기로 남기
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한
다”고 하면서, 그는 2000년 11월
30일 발족하여 월례모임으로 활동
하고있는 인물전기학회를 소개하
였는데 지금까지 제일먼저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인
재독 한인 작가인 이머트씨를 다
루었고, 그후로 윤치호, 장면, 현
순, 김규식, 김교신(무교회주의
자), 화가 이중섭, 괴테, 슈바이
처, Lowell등을 소개하였고, 금
년 계획으로 이승만, 김구, 필벽
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 최교수는 傳記라는 문학형
태는 기본적으로 人間學의 한 분
야라고 하면서, 傳記 집필의 방법
론에 대하여 언급하며, 전기는 역
사학, 문학, 심리학의 개별분야를
뛰어넘는 學際間的 접근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기는
종합적 안목으로 다양한 학문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우선 이
것은 한 인물이 살아간 역사이므
로, 진실되게 써야 하는 역사학이
나, 꼬장꼬장한 학술논문 양식으
로는 좋은 傳記가 될 수 없고 이에
는 문학적인 측면이 가미되어야
傳記文學이 됩니다. 그리고 빼놓
을 수 없는 것은 心理學的 접근입
니다. 人間을 심리학적으로 들여
다보지 않고서는 그 內面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각도에서 동시에 照明되어야
올바른 전기가 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출
발의 발판을 마련해 놓고 죽는다
는 역사의식, 인간존중과 사랑,
박애정신으로서 전기가 이루어져
야 합니다”라
고 자신의 傳記
觀을 피력하였
다. 그런 관점
에서 그는 한국
에서 다소 神話
적으로 “死刑
囚의 代父”로
알려진 김홍섭
판사의 전기를
썼고 김판사는
몇 년 전에 국
민훈장 무궁화
장을 추서 받았
다고 하였다.

그는 스승 유기천 교수의 전기를
집필함에 있어서, 유교수께서 刑
法學에서 인간학의 중요성을 강조
하셨듯이 法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인간이 생각해
서 法制를 만들고 실천한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또, 그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
하여 偉人傳記의 중요성을 역설하
였으며, 다른 외국의 경우처럼 한
국에도 人物들을 체계적으로 소개
할 National Biographical Dic
tionary를 갖춘 도서관이 많이 설
립되어야하며 이를 위하여 韓國人
物辭典의 편찬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그래서 그는 스승 유교수의 전
기를 집필하여 달리는, 유기천 교

수를 기리는 추모 모임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바르게 스승의 모습을
전달할까 고심중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그분의 동생이신
Joseph 유박사님과 김향자 동문
등으로부터 많은 자료등을 수집하
고 증언을 채록하였다”며, 추후에
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逸話라도
좋으니 전기집필자인 자신에게 알
려 줄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끝냈
었다.

또, 이 강연에서는 문학과 미술
방면에도 다양한 소양과 재능을
가진 최교수는 이 모임이 있는 아
침에 쓴 “San Diego Morning”
이라는 詩畫를 낭송하였는데 여기
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하고도 남단
이름조차 라틴 밤새 풍기는
이국적 도시에 내려와 하룻밤 자고
청명한 아침 창 밖을 보니
아자수 사이로 빛나는 태양
이름 모를 식물들 무성히 푸르는데
쉐라톤 호텔 투숙객도 인종 전시회
일본인, 한국인까지 뒤섞인
최교수와외 하룻밤
(An evening with Professor
Choi)

아침부터 나뭇잎 안내판 보며
Who is Professor Choi?
What brought him to here?
나 스스로 되물으며
망중환(忙中閑)을 즐긴다.
세계의 동서를 돌아다니며
뭐라고 그래도 주장하는
대한민국 법학교수의 말에
얼마나 진실이 담기는지?
천혜(天惠)의 샌디에고 모닝
새삼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춘다.

<2002. 3. 5 최종고 씀>
이날 모임은 화기에애하고 엄숙
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데 참석
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이 모임을
끝내고 기념사진을 Lobby에서
촬영하였다.

그 이튿날 떠나시는 최교수를 보
내면서, 나는 이 순간 떠나시는 최
교수님께 손을 흔들면서 산마루에
걸려있는 하얀 구름 속에 계신 유
총장님의 미소를 본다.

歌劇

나비부인(Madame Butterfly)

고 애 자 <음대 61년 졸>



명작은 볼 때마다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오페라 나비부인을 20세 때 보게 되면 슬퍼서 많은 사람들은 울게된다. 30세 때쯤 보게 되면 몹시 화가 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다가 40대쯤 보게 되면 무대장치, 의상, 조명, 작곡가, 연극가 종합예술을 상영하는데 천재적인 인물들에게 감탄하게 된다. 그러다가 50세 때쯤 보게 되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인가 느끼게 되는데 60대쯤 보게 되면 별로 크게 느낌이 나오지 않는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여러 번 보았기 때문 일거다.

그런데 이번 계절에는 놀랄만한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 부부는 서로 안 우는척 하면서 몰래 몰래 막 울었다. 우리는 완전히 그 오페라에 빠졌었다. 이유인즉, 체격도 별로 크지 않은 36세의 칠레 출신의 Soprano인 Veronica Villarroel의 침울하고 가슴이 설레게 하는 목소리를 가진 그는 관현악을 뚫고 수천 명의 청중들을 표류시켰고 그 가극 극장 막이 내렸을 때 오페라의 청중들은 충격적 감동을 받아 모두 일어났으며 오페라 하우스(New York Metropolitan Opera House)는 떠나가는 듯한 박수소리와 환호성에 온통 수라장을 이루었다.

빌라로엘은 많은 오페라의 주역을 한 바 있는 유럽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가수다. 오텔로(Othello)에서는 데스데모나(Desdemona), 일트로 바토아(III trovatore)에서 레오노라(Leonora), 가면무도회(Umbello in Maschera)에서 아멜리아(Amelia)등등 여러 오페라의 주역을 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수미같이 절대음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高音에 가서 피요리같이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도 아니었던 만, 그의 애절하게 들려주는 목소리와 연기는 청중의 가슴을 울리고 또 뚫고 들어와 흐느껴 울게끔 까지 할 수 있었다.

실상 그는 이날 Daniela Dessi가 출연해야 하는 날인데 대리로 계획없이 갑자기 등용되었던 여주인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오페라 열광자들을 흔들어 놓고 울려까지 놓았다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번 계절의 놀라움이면서 근래의 아주 드문 예이었다.

그 가극의 내용인즉 과거의 게이샤 출신인 나비부인은, 관례적으로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는 몸가짐에다 사춘기때 미해군 장교의 부인이 된 것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던 남편이 미국 부인과 나타나 아이를 데려감으로 절망상태에 빠지게 되자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가극의 유래인즉, 그 작곡가인 푸치니(Puccini)는 나비부인(Madame Butterfly)을 토스카(Tosca) 1899년에 내놓은 후 새로 오페라를 구상하던 차 그는 현실에 가까우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쌓아 올려 극적인 결론을 효과적으로 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1900년 여름 London에서 미국 감독 극작가 벨라스코(Belasco)가 연출하는 나비부인 연극을 보게 되었다.

푸치니는 그 연극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풍만한 감정으로 오페라를 만든다면 훌륭한 작품이 될 것 같은 인상을 크게 받아 끝나자마자 무대 뒤로 급히 벨라스코에게 板權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벨라스코는 이미 푸치니의 작품

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을때라, 돈 계약도없이 그 순간에 허락을 하였을때 푸치니는 그의 목을 얼싸안고 눈물을 지었다고 한다.

벨라스코는 그 출생지인 San Francisco에서 Jewish 와 Portuguese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집을 떠나 곡마단에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뉴욕의 극장가(Broadway)에 와 활약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그의 유명함은 지금의 Steve Spielberg(스티브 스피버그)에 이었다고 한다.

푸치니는 데부시(Debussy), 와그너(Wagner)와 베르디(Verdi)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곡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놓은 작품들은 완전히 다른 음程, 음색과 리듬으로 특색있는 음악을 창조해 내놓곤 했다.

일막에서 나비부인은 일본풍의 민요들을 집어넣고 또, 미국의 국가도 좀 삽입하고 동양적 관현악 소리로 일본 분위기를 내고 동시에 또, 종소리, 징소리를 섞어가면서 西洋 멜로디도 섞어 넣으면서 nuance를 창조했다.

일막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부를 때는 서양 멜로디를 썼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할 때는 북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특이적인 짧은 악구를 반복하면서 가슴을 울리게 한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때는 번개가 치면서 빠른 속도로 금관악기들이 거친 소리를 낸다. 남편을 단념하라고 할때는 harp tune이 죽음의 소리로 들리듯 연주된다.

삼막에서 밤새며 바다를 내다보고 미해군 군함이 오기를 기다리며 들려지는 humming chorus

(가사없이 음으로만 불러지는 합창)는 뉴욕가극좌에서 할때는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모든 오페라중 가장 유명한 멜로디이다. 벨라스코 감독의 단막극 나비부인은 원래 John Luther Long이라는 필라델피아에 살던 변호사가 쓴 단편 소설인데 Long의 여동생의 남편이 그

당시 미국 선교사로 일본에 파견되었을때 그는, 주로 게이샤(geisha)들을 기독교로 인도하는 일이었는데, 한 게이샤가 미국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할복자살(harakiri)을 한다는 내용이였다.

하라키리는 주로 남자가 나라를 위하거나 명예훼손되었을때 할복자살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자는 목뒤에다 칼로 찍으면 전혀 고통도 없고 피도 안나오고 죽을 수 있어 젊은 부인은 이 방법을 써서 죽었다. 벨라스코 연극에서는 관중들이 놀라게 배를 갈라 죽게 해서 관중들에게서 비열한 수법을 썼다고 비난을 받았다. 푸치니는 이 작품은 완전 오페라 길이로 쓰면서 마지막 장면까지 음악과 연극을 쌓아 올라가면서 그 절정에 가서는 모든 것을 혼란 상태로 흐트러 버리는 것으로 각색하였다.

그 당대의 극작가들로부터 이 비슷한 작품들이 여러개 나와 있었다. 1898년에는 "Iris"는 Oriental 이라는 제목으로 마스카니(mascagni)가 오페라를 작곡한 것이 있다.

불란서 극작가는 Madame Chrysanthemum (국화부인)이라는 제목으로, 1893년에는 Massager에 의해 다른 오페라가 나왔으나 그 내용은 모두 미국 남편에게 여인들이 배반당해 할복자살하는 것이다.

일본 고유 풍습인 할복자살이 서양 극작가들에게 신기한 사실이었던 것이었다. 19세기 말엽 당시에 일본은 서양문화를 숭상한 나머지 자기 문화를 다 때려 부수는 동향이 일어나고 있을때이고 또,

유럽에서는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때여서 인상과 화가들도 일본과 중국화 등의 그림을 많이 배출했다.

푸치니는 나비부인을 착수하자마자 자동차 사고로 입원되었는데, 당뇨병진단을 받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후(1904) 첫 공연이 라스칼라(La Scala)에서 2월 17일 막을 올렸는데 오페라 역사상 가장 심한 आय, 고향소리와 조소를 받았으며 곧 그 음악은 다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관례적이 아닌 사람 또 죽음, 어차피 파탄이 올 현대판 국제결혼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떠난 불륜의 精에다 주인공으로 나온 Rosina Soprano는 실지로 임신중이어서 기모노 옷을 현저히 더 뚱뚱하게 만들었고, 알투로 토스카니니(Arturo Toscanini)가 지휘를 했는데 그 역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을 당시였다.

다음날 신문에 惡評이 실렸는데, 즉 이 오페라는 당뇨병에 걸려 결국 사고가 났다는 혹평을 받고 곧 광고 간판을 철거하고 푸치니 오페라단은 라스칼라 경비도 낼수 없게 되어 큰 희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의 작품은 하루 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

3개월 후 다시 완전히 뜯어고쳐 남자주인공에게도 동정이 가게하고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같은 해 5월에 부레시아(Brescia)라는 밀란(Milan)의 동부쪽에 있는 작은 대학도시에서 연주하게 되었을때 크게 절찬을 받았다.

그 일년후 1905년에 런던코벤가든(London Covent Garden)에서 공연 할 때는 카루소(Caruso)가 남자주역을 했고 대 인기를 얻었다. 다음해 1906년에는 파리에 서 대 성공적으로 연출되었다.

이 작품은 푸치니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고 또 정성을 가장 많이 쏟은 작품이라고 한다. 그 후 나비부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오페라 중에서 君臨하게 되었다.

美國 時論 中東事態, 도덕적 의무와 국가 이익

(뉴욕 타임즈 April 7, 2002)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Middle East - along with Europe and Asia - has been one of the three zones strategically vital to the United States' national interest. Domination by a hostile power or the outbreak of a major conflict in any of these three zones would pose a forceful challenge to America's ability to maintain the global equilibrium on which international stability depends.

America stepped into the Middle East as British and French colonial domination receded. Gradually, the United States became the principal guarantor of the region's peace and also of stable access

to the region's oil resources. In recent years the centrality of that role was underscored by the American military action against Iraq in the Persian Gulf war.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assuring Israel's survival, motivated by a sense of moral obligation to a people that had suffered immeasurably, has built an ever closer American-Israeli relationship based on political and military collaboration. But given the intensity of Arab-Israeli hostility, that relationship has also inevitably collided with America's interest in preserving its influence over the Arab states.

Obviously, a final peace settlement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would be best. But from the American standpoint, even an absence of war,

provided the situation was stable, would be tolerable.

The current crisis poses a grave threat to United States interests. One can argue forever as to whether Yasir Arafat or Ariel Sharon is more responsible for its eruption. What is clear is that the two cannot reach peace together and neither can impose his version of it on the other.

Ultimately, the 4.8 million Jewish Israelis cannot permanently sustain the subjugation of 4.5 million Palestinians (1.2 million of whom are second-class Israeli citizens), while Israel's own democracy and sense of moral self-respect would be jeopardized by continuing to do so.

<11면에 계속>

오슬로 以前으로 돌아간 中東事態

-중동평화의 길은 땅과 平和의 共有에서

林觀河 <문리대 50입, 맨하탄빌대 정치학 교수>

현재위기 상태에 빠져 있는 중동 사태를 어떤 방향으로 수습하느냐 하는데 國際社會의 공론은 「2민족·2국가」론으로 기울고 있다. 즉,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격상시키고 이스라엘을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수용하여 그 나라와의 국교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같은 이웃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1967년 6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을 침공했을 때 UN 安理會가 채택한 결의문 242호를 뒷받침하고 있는 「땅을 대가로 한 평화 - Land for Peace」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해결책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있는 웨스트뱅크(West Bank)에 팔레스타인 國을 設立한다는 것은 그 땅을 아랍 側에 돌려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 代價로 이스라엘은 안보결의문 242호에 명시된 바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權利의 保障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7일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아랍 22개 국가의 정상인 낸 성명은 바로 이 「땅을 대가로 한 평화」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성명에 이어 4월 3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부시대통령의 연설 역시 이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아랍 정상과 부시대통령이 제시한 중동사태의 해결책은 물론 그 맥락과 초점에는 차이는 있으나 팔레스타인 문제해결의 윤곽에는 놀라울 만큼 의견이

접근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동문제의 해결이 눈앞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 UN 안보리 결의문 242호가 갖고 있는 의의는 그 결의문이 중동문제 해결의 원칙을 제시했다는 데도 있지만 그보다 그 결의문이 채택된 지 35년이란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역시 마치 聖經의 구절처럼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원칙이 완전히 적용되기까지는 먼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만큼 원칙과 실천,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큰 간격이 남아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流血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중동사태는 단적으로 지적하면 오슬로 협정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1년 걸프전쟁이 끝난 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근교에 있는 농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표간의 비밀 회동에서 시작된 협상에서 나온 이 협정은 1993년 그 내용이 공표되었으며 1994년 백악관 앞에서 클린턴 대통령 입증하에 이스라엘 수상 Isaac Rabin 과 PLO 위원장 Yaser Arafat 가 직접 서명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을 중동사태 해결의 새로운 Yaser Arafat 을 열어 놓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그 결과 라빈, 아라파, 그리고 이스라엘 外相 시몬 페레즈는 1994년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가 되었다).

여기서 나온 오슬로 협정 역시 UN 안보리 결의문 242호의 연장선상에서 「땅을 대가로 한 평화 - Law for Peace」의 원칙

을 따랐다. 이 협정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에서 군사점령을 단계적으로 끝내면서 그곳의 管轄權로 새로 설립되는 Palestine Authority로 넘겨주는 대신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의 生存權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있는 極熱세력을 단속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하여 다루기 쉬운 것부터 해결해서 점차 단계적으로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며 거기서 생기는 信賴關係를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두 나라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타결해 나가 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슬로 평화 과정(Oslo Peace Process)이었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에는 처음부터 平和가 아니라 戰爭으로 몰아갈 수 있는 時限爆彈이 잠재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管轄權, 팔레스타인의 국경선과 팔레스타인 失鄉民의 歸鄉權 같은 정치적인 현안을 최종적으로 그것도 시한부로 타결해 보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최근 타결을 위한 정상급 회담은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하에 1998년과 2000년에 두 번 열렸다. 정상회담은 두 번 다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헤어지고 말았다. 이 外交的인 실패가 지금 물의가 되어있는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자살 공세로 이어졌고, 이것이 또 이스라엘 군의 대대적인 웨스트뱅크 침공을 초래하였다.

오슬로 협정을 뒤 덮고 있는 캄캄한 구름은 이 협정이 체결된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때 생긴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 암살에서 극적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의 반 오슬로 세력을 무마하는 방책으로서 웨스트뱅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를 대폭 증설하였

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인티파다(Intifada) 라는 민중항거를 감 **하였다. 이 결과 이스라엘과 협조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성취하려했던 아라파의 운신의 幅이 매우 좁아졌다.

아라파는 본인의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팔레스타인 解放의 領導者로서의 獨立性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라파트의 정치적인 입장은 오슬로 협정을 뒷받침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타산의 재평가를 강요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이스라엘이 아라파트를 유화파로 찍은 이유는 그가 걸프전쟁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편을 든 결과 사우디를 비롯한 반 후세인 아랍 제국간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탐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情報 判斷은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말고 딴 나라에 갈 수 없으리라는 政治判斷을 가져왔다.

오슬로 협정 이후의 이스라엘은 이것이 완전한 誤判이었음을 깨달았다. 팔레스타인 오소리티(Palestine Authority)라는 準國家 기구의 정상에 앉은 아라파트는 자기가 아무리 이스라엘과 협조를 하고 싶더라도 이스라엘의 傀儡로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라파트와의 협조를 끊기로 결심했던 것 같다. 지금 이스라엘이 감행하고 에 있는 웨스트뱅크 作戰 名目은 반 테러 作戰이라 하지만 실은 아라파트와 그의 Palestine Authority 를 除去해 버리려는 정치공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 아라파트 작전이다.

오슬로 協定은 사실상 죽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결과 팔레스타인은 물론 주변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 이

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인 공존을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외교정책을 지지해온 온건세력은 대폭약화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極과 極이 대치되는 政局에서 極熱勢力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안티화다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보다 強한 制壓策을 가지고 웨스트뱅크 일대를 통치해 불러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대내적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인구를 외국에 추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순전한 유대 국가로 保全해 불리고 시도할 것이다.

世界 각처에서 오슬로 平和課程을 回生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再介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9.11 이후 반 테러 전쟁을 國是로 하고 전세계에 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 현 부시정권이 팔레스타인 軍事作戰을 반테러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론 정권에 대하여 뜻 있는 制動을 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다만 이 사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국한되고 딴 지역에 퍼지지만 않는다면 多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歷史는 悲劇을 통하여 人類에게 敎訓을 준다」는 말을 종종 들어본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歷史的인 惡循環이 어는 時點에 가서 그 방향을 바꾸어 평화적인 날을 인류에게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일까? 오 년 후? 십 년 후? 하나 확실한 점은 그날은 미국에서 부시대통령이 執政을 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샤론이 수상으로 있는 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땅을 대가로 한 平和」는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임관하 교수 현재 manhattan ville 대학 정치학 주임 교수,

<10면 도덕적 의무와 국가 이익에서 계속>

The Palestinians have neither the power nor the international support to drive the Israelis in-

to the sea, while their terror tactics are morally indefensible. The Israeli sense of outrage at the suicide bombings is understandable. Any Israeli government would have had to react in the face of such provocation.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r. Sharon's retaliation over the last year has focused largely on undermining the existing Palestinian Authority, much in keeping

with his decade-long opposition to the Oslo peace process and his promotion of colonial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and Gaza.

With the Palestinian Authority in shambles, the Palestinians are likely to slide into a state of anarchy, with their leadership gravitating toward more extremist underground elements. In Israel, and especially among the Likud Party, more voices are likely to be heard advocating the expulsion of the Palestinians from the territories. Arab resentment at America's apparent partiality will rise, placing in greater jeo-

pardy regimes that are viewed as friendly to the United States.

In these circumstances, America cannot ignore world public opinion. There is a nearly unanimous global consensus that United States policy has become one-sided and morally hypocritical, with clear displays of sympathy for Israeli victims of terrorist violence and relative indifference to the (much more numerous) Palestinian civilian casualties.

At risk is America's ability to maintain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war on terrorism, and especially for plans to deal with

Saddam Hussein.

The United States response, therefore, has to be guided by a strategic awareness of all the interests involved, and not by the claims of any single party. The course followed in recent times, with its largely procedural emphasis on cease-fires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hile waiting for the parties to agree on their own, has become a prescription for procrastination.

It is now painfully evident that left to themselves, the Israelis and the Palestinians can only make war. Their suspicion of each other's motives and

actual hatred is too great to permit the needed compromise. Moreover, each side has powerful factions even more extremist than the current leadership, with Benjamin Netanyahu poised to challenge Ariel Sharon while some unknown Islamist militant steps into Yasir Arafat's shoes if he is killed in the current offensive.

President Bush's statement on the crisis on Thursday took an important step toward shedding the administration's ambiguous and, of late, somewhat incoherent posture. But it falters on three points. <12면에 계속>

팔레스타인에 햇빛 정책을 -싸우지 말고 나누어 가지자

김종율 <사대 55졸>



이솜이야기 "바람과 해"의 일화는 우리가 어릴적 부터 많이 들어왔다. 강한 바람보다도 온건 정책을 쓴 따스한 해가 외투를 벗긴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위 대북 햇빛 정책 원리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 팔레스타인 정책에 적용되었으면 한다. 강경 보수파 사론이 수상에 들어가면서 과거 18개월간 팔레스타인의 자폭 테러 행위는 30여 차례나 일어났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정책으로 탱크나 폭격으로 대응해 나갔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3월 28일 유월절의 자폭 테러는 이스라엘에 전면 공격의 구실을 주었다.

공격의 뒤에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힘이 된 것이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자폭테러행위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자국 방위권이라고 이스라엘을 옹호하였다. 이것은 침공에 청신호를 준 것과 같은 것이다.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그에게는 테러행위의 근절엔 강경하였다. 무엇보다도 클린턴 전 대통령과 달리 그는 취임 초부터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에 손을 놓았고 그리고 알파타(Arafat) 수반을 무시하고 나섰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UN 총회에 각 나라 수반이 참석했을 때도 그는 알파타와의 면담을 완강히 거절하였다.

이스라엘은 공격 목적이 테러의 근절에 있다고 하지만 별 훈려없이 개인에 의해 손쉽게 이루어지는 자폭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보다 이번의 공격은 즉각적인 보복행위이며 또 한편으로는 사론 수상의 앙숙인 알파타와 그 자치 정부를 파괴하고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 하겠다. 이스라엘 군은 West Bank

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라마라에 있는 알화타 수반 청사도 포격의 대상이 되었다. 제닝의 난민촌에서는 팔레스타인 시민이 수없이 희생되었다. 집집마다 다니며 젊은이를 검거하고 그들을 구류하였다. 탱크가 가는 곳엔 무엇이든 장해물은 있을 수 없었다. 건물이 파괴되고 상수도, 전선주, 자동차도 모두 쓸어 나갔다. 총탄에 맞아 쓰러져 신음하는 사상자에 구급차와 접근을 막았다. UN 구호대의 접근조차 차단하였다. 이런 상황을 보고 아랍세계는 분노하였다. 유럽국가들은 매일 같이 자국에서 일어나는 데모 군주에게 미국 정책을 옹호할 여지가 없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은 자살 폭파행위를 근절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테러행위는 공격후 비변도가 늘어만 갔고 팔레스타인은 알화타를 중심으로 뭉치고 전 아랍 국가들은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유럽 15개국 유나온(EU)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까지 고려하며 철군은 강력히 결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 테러전쟁에서 처럼 이스라엘 테러작전이 세계의 여론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고립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계획하는 이라크 공격에 아랍이나 유럽국가들의

도움은 생각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은 이스라엘의 철군을 요구하고 나왔다.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마대로 때리도록 놓아두었다가 싸움이 어른들에게까지 미치지 중재를 한다고 나선 거와 같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이스라엘 이익과 다르며 팔레스타인의 테러가 뉴욕의 무역회관 테러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왔다고 본다. 고향을 잃고 수십년 간 피난 생활을 해온 그들의 울분과 맨 주먹으로 밖에 대항 할 수 없는 그들의 심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팔레스타인의 양민에 대한 자폭 테러 행위를 용납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자폭테러에 이스라엘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정책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것이다. 첫째 힘이 강한 이스라엘은 참고 견디어야 한다. 그런데도 자폭테러행위가 거듭되면 세계 여론은 팔레스타인을 견제하고 이스라엘을 동정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미국은 동등성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대해야 한다.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중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아랍인들의 미움만 사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 자부하며 수호하고 있는 인권과 평등과 인간애를 토대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재조명 해야 할 것이다. 수십 년의 피난 생활에 이스라엘의 1/10도 안되는 연 1500불 개인 소득에 거의 반수가 실업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알화타를 포용하고 미국이 후세인의 이라크에게 까지 햇빛정책을 쓴다면 머지않아 중동에는 평화의 봄이 올 것이다. 물론 예루살렘 관할권, 팔레스타인 난민 귀향, 이스라엘의 West Bank 내에 있는 정착민 문제등 어려운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유명한 책에서처럼 "싸우지 말고 나누어 가지자"는 말을 어른 세계에도 적용한다면 해결의 문이 열릴 것이다.

4월은 건강의 달

미국정부의 국민건강캠페인

김일훈 <의대 53년 졸>

(I) 세계보건의 날은 운동의 날

WHO는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이날을 Move for Health(건강을 향해 운동하는)날로 이름지음으로서, 운동과 건강한 생활양식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인의 각성을 촉구했다.

같은 날 미국연방정부 보건부장관 토미 톰슨은 발표문을 통해서 국민에게 운동을 권장하고, 그 자신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이날 행사인 "10마일 걷고 달리기운동"에 참가했다.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그리고 여러 암은 운동과 건강체중유지로 예방이 가능한 생활습성질환인데도, 미국에서 매년 30만 명이 죽고있는 사실을 톰슨 장관은 국민에게 다시금 환기시켰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실내운동장에서 땀 흘리거나 장거리 달리기까지 할 필요 없이, 1주에 5일간 매일 10분간 걷기만 해도 된다. 뒷마당에서 자녀들과 같이 매일 1시간씩 뛰고 논다면, 온 가족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적절한 육체적 운동을 일상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정부에서 추천한 이러한 운동의 보급률은 현재 25% 미만이며, 지난 10년간 변동이 없다.

(II) 1997-1998년 미국성인의 여가(餘暇)시 운동현황

미국정부는 전국적인 건강문제 면담조사의 일환으로 CDC 산하 기관인 NCHS에서 18세이상 미국성인 6만8천명을 면접하고, 운동에 관한 조사보고서 "The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Among Adults: United States, 1997-98"을 발표했다.

<주> CDC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국립 질병관리예방센터), 그리고 NCHS는 National Cen-

ter for Health Statistics(국립건강통계센터)의 약자임>

그 보고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운동보급률: 미국의 성인 62%는 어떠한 운동을 하고있으나, 10명 중 3명만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젊은이가 노인보다 여가시 운동을 더 많이 한다. 18-24세 젊은이는 10명중 7명이 여가시 운동을 하며, 75세 이상 노인보다 2배나 더 한다.

결혼한 남자는 독신자보다 더 많이 운동한다.

인종별: 백인과 아시아인 성인의 2/3는 여가 때 운동하는 반면, 흑인과 히스파닉은 1/2만 여가시 운동한다. 백인성인 1/4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다른 소수족보다 더 많이 한다.

교육별: 대학출신은 10중 8명이 여가시 운동하며, 고졸출신자보다 2배나 많이 한다.

수입별: 빈민수준(FPL=Federal Poverty Level)보다 4배 이상 수입이 있는 층의 성인은 빈민보다 2배나 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지역별: 도시교외에 거주하는 성인은 도시시내나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운동을 많이 한다.

(III) 미국정부의 국민건강증진 계획

미국연방정부는 국민건강 10년 계획을 작성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목표를 책정하고, 사회 전체참여를 촉구하며 현재 시행중이다.

국민건강계획의 10대 주요건강 지침(10 LHI= 10 Leading Health Indicator)은 다음과 같다.

- 1. 체육(Physical Activity)
 - 2. 체중과다와 비만 (Overweight and Obesity)
- <13면에 계속>

<11면에서 계속>

First, by noting that an imminent agreement on a cease-fire was aborted by the bombing of March 27, Mr. Bush risks making the peace process again a hostage to any future terrorist act. Israel would be justified in retaliating against further Palestinian acts of terrorism, but reprisals should be aimed at actual perpetrators and not at destroying the Palestinian political structure. Second, Mr. Bush's highly

personal condemnation of Yasir Arafat implies that the Palestinians should select their leader in keeping with American or even Israeli preferences. Third, the president's statement should have made clear that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s mission to the Middle East is not to be part a process that focuses more on procedure than on substance. Secretary Powell should seek an Arab statement that categorically condemns suicide bombing even if it reserves the right of

the Palestinians to resist the occupation and the settlements. Mr. Arafat could then issue such a statement without seeming to be bowing to American and Israeli dictates.

The United States must also now push forward with a specific peace plan. The point of departure for such a plan - based on United Nations resolutions, earlier settlement negotiations conducted at Taba, Egypt, in January 2001 and the Saudi proposal for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Israel

and Arab nations - is already in place. The United States should also indicate its willingness to deploy, with the consent both of Israel and of Palestine, a peacekeeping force to enhance security for both parties. NATO might also choose to participate in any such deployment, given Europe's interest in containing the Middle East crisis.

One should entertain no illusions that any such initiative would gain the immediate approval of either the Israelis or

the Palestinians. But one should also not underestimate the leverage the United States has or the degree to which the people on both sides are eager to find a way out. Our own national interest and moral obligations demand that we do no less.

原題는 "Moral Duty, National Interest" 이며 필자 Zbigniew Brzezinski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카터 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냈으며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교섭을 주선하였다.

<12면에서 김일훈 건강캠페인서 계속>

- 3. 흡연(Tobacco use).
- 4. 마약상습 (Substance Abuse)
- 5. 성행위(Responsible Sexual Behavior).
- 6. 정신건강(Mental Health).
- 7.상해와 폭행 (Injury and Violence).
- 8. 환경문제 (Environmental Quality)
- 9. 면역(Immunization).
- 10. 의료접근혜택 (Access to Health Care)

위에서 보듯 향후 10년간 미국 건강정책의 최우선 목표지침이 1과 2 즉 운동장려와 체중과다퇴치이다. 여기서 운동과 체중과다는 가장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며 운동을 통한 체중과다/비만퇴치를 강조하고있다.

1964년 담배상자에 "담배는 건강을 해친다"는 보건원장경고문부착으로 시작한 금연운동이 미국국민의 흡연인구를 대폭 줄이게 한 전례에 따라, 미국정부는 체중과다/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다음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 건강의 새로운 적(敵)으로 부상한 체중과다/비만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IV) 국민건강의 새로운 적 체중과다/비만

미국인은 체중과다와 미만으로 오는 질병 때문에 매년 30만명이 사망하고있다. 비만이라는 병은 규칙적 운동과 절식으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으로 인한 건강침해는 현재 담배를 앞지르게되었다고 최근 Satcher 미국 보건원장은 발표했다. 흡연이 1960년대의 크나큰 이슈였는데 비해서 비만문제는 그 동안 잠잠했다가, 지난 10년간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게되었다. 뒤늦게나마 비만이 흡연보다 더한 위험인자라는 사실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1964년 미국연방보건원장이 담배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한 이래, 미국성인의 흡연률은 계속 내려갔다. 이러한 성공은 정부의 금연운동을 사회 모든 분야가 적극 후원하여, 다음과 같은 공중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즉 담배광고금지, 미성년자에게 판매금지, 담배세금인상,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비흡연자의 권리보호 등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건강을 향한 행동변화로 미국성인의 흡연률감소를 이룩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배경이 미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적으로 떠오른 체중과다/비만도 금연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통제와 사회 각 기관의 협조로 극복할 날이 올 것이 기대된다.

BMI(Body Mass Index): 체중과다와 비만은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추천에 따라 BMI로 진단한다.

BMI(Body Mass Index)는 신체에 부착한 지방조직의 분량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편리한 수치이며, 체중(Kg)을 신장(m)의 2승으로 제한 숫자다. 이 BMI에 의한 체중과다와 비만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a. 건강체중: 18.5-24.9
- b. 체중과다: 25.0-29.9
- c. 비만: > 30

(V) 체중과다/비만의 원인과 해(害)

원인: 과다한 칼로리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오는 불균형의 결과 체중과다와 비만을 초래한다.

각자의 체중은 유전, 신진대사, 행동, 환경, 문화,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인 여러 복합체의 영향에 따라 다르다. 그 중에서도 행동과 환경요소가 즉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중과

이상에서 증가되고, 비만증은 높은 Triglyceride와 낮은 HDL로 인해 발생률이 더욱 높아진다.

성인당뇨병환자의 80%는 체중과다며, 체중 11-18파운드 증가에 따라 당뇨병은 2배나 많이 발생한다.

암과 관련해서 체중과다/비만은 자궁암, 대장암, 담낭암, 전립선암, 신장암, 그리고 갱년기후의 유방암 위험도를 높인다.

비만환자에 흔한 호흡장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에게 천식환자가 많으며, Sleep Apnea(취침중 호흡장애)도 자주 동반한다.

체중부담으로 인한 관절염발생도 높으며, 체중 2파운드 증가 때마다 관절염의 위험도는 10% 증가한다.

생식기능장애는 특기할 만하며, 비만한 산모의 고혈압이 될 위험도는 10배나 되고 임신중 당뇨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난산(출산곤란)문제가 자주 생긴다.

또한 출생아의 체중과다로 제약

다.

비만(BMI 30이상)만을 따진다면, 백인여자가 백인남자보다 조금 높다(23% 대 21%).

다음 사회경제면에서 보면, 저소득층(FPL 130%미만)이 고소득층보다 체중과다가 남녀 모두 50%나 더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FPL 4배 이상 수입이 있는 층보다 체중과다가 2배나 더 많다고 한다. (FPL= Federal Poverty Level. 연방정부서 책정한 빈민수입수준. 2001년도 FPL는 3인 가족일 경우 1년 수입 1만4천630 달러 미만임).

비만증의 유행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금액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 저명한 연구기관인 Rand Corporation에 의하면 비만은 현재 흡연과 과음, 그리고 빈곤을 합친 것 보다 더 건강을 해치는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비만한자는 흡연과 과음보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노력이 돋보인다.

1. 각 학교는 학년마다 체육시간을 갖게될 것이 기대된다. 과거에 필수였던 학교체육시간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학교체육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2. 학교점심음식은 건강식에 유의하고있다. 정부(농업부)에서는 학교점심메뉴에 지방음식이 30% 이하(일반 평균은 34%)로 할 것을 규제하고 있다.

3. 지역사회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시설, 걷기와 자전거운동통로 등을 많이 만들 것을 법으로 추진하며, 여기에 대해 전국공원협회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받고있다. 그리고 직장고용인에게 운동시간을 제공하는 규제를 고려중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에서 제정한 <미국인을 위한 음식 가이드라인>은 "건강체중을 유지하라! 그리고 매일 육체활동을 하라!"로 시작하여, 국민이 지켜야할 건강음식을 열거했다. 그 내용은 미국심장학회와 암 학회의 음식가이드라인과 대동소이하다.

또 특기할 일은 비만예방과 치료를 도우려는 정부노력의 하나로, 지난 2002년 4월 연방국세청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비만증치료에 소요된 의사상담 및 치료비용을 다른 질병치료처럼 세금공제 할 수 있게끔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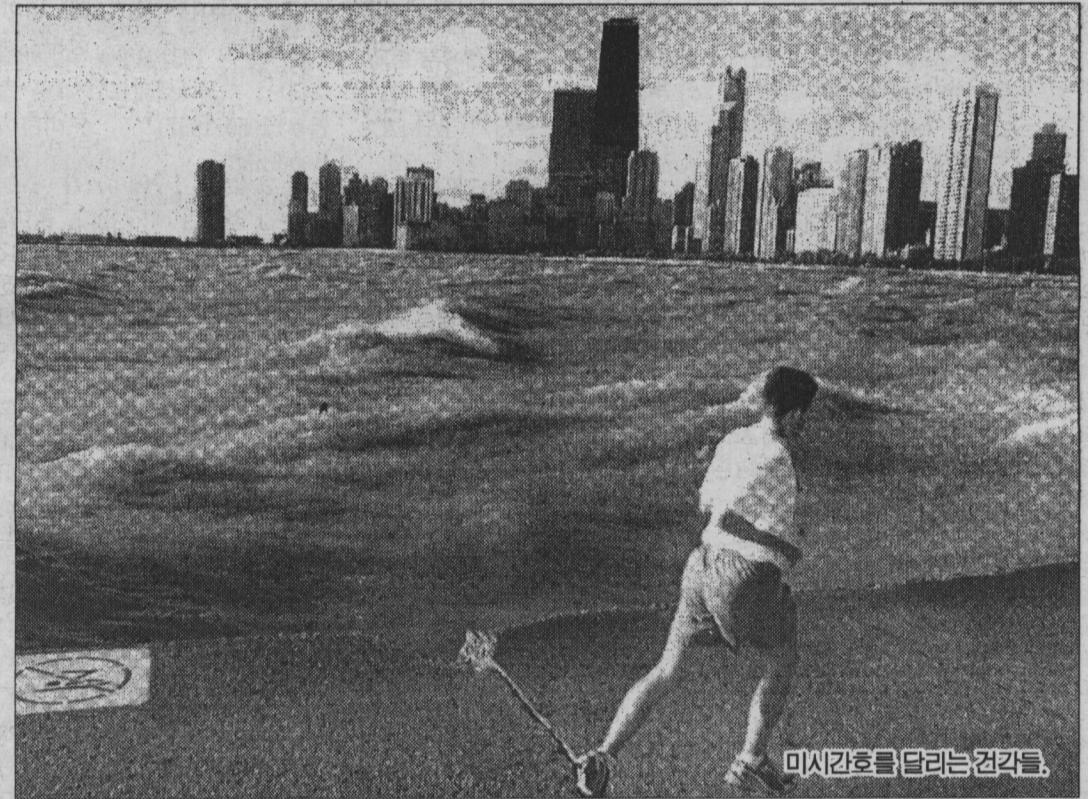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지불한 의료비는 그 액수가 총수입의 7.5%이상일 경우만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저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으며, 사실 비만증은 빈민에 더 많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아직 비대증 커버를 고려치 않고 있다. 그들은 이익추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에서 제정한 <미국인을 위한 음식 가이드라인>은 "건강체중을 유지하라! 그리고 매일 육체활동을 하라!"로 시작하여, 국민이 지켜야할 건강음식을 열거했다. 그 내용은 미국심장학회와 암 학회의 음식가이드라인과 대동소이하다.

또 특기할 일은 비만예방과 치료를 도우려는 정부노력의 하나로, 지난 2002년 4월 연방국세청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비만증치료에 소요된 의사상담 및 치료비용을 다른 질병치료처럼 세금공제 할 수 있게끔 정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지불한 의료비는 그 액수가 총수입의 7.5%이상일 경우만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저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으며, 사실 비만증은 빈민에 더 많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아직 비대증 커버를 고려치 않고 있다. 그들은 이익추구기관이기 때문이다.

<끝>



미시간호를 달리는 건달들.

다/비만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도 이 생활양식변혁에 주안을 두어야할 것이다.

체중과다/비만의 해(害): 비만은 과거에는 용모 특히 여자의 미모와 관련된 문제였으나, 지금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변했다. 체중과다와 사망위험도는 정비례하며, 비록 정상체중에서 10-20 파운드를 초과해도 성인의 사망률을 높게 한다.

체중과다/비만의 위험도와 관련해서 조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기사망률은 비만환자(BMI>30)가 정상 체중자 보다 50-100% 더 높다.

심장병(관상동맥질환, 울혈성 심장병, 심장성 급사(急死), 부정맥, 흉부통 등) 발생률은 BMI 25

수술의 확률이 높고, 비만한 산모는 기형아를 출산하는 일이 많다.

이외에도 체중과다/비만은 담낭병과 우울증을 자주동반하며, 수술시 위험도를 높인다.

(VI) 미국의 체중과다현황과 엄청난 의료비

NIH(국립보건원)에 의하면 1999년도 미국전체의 체중과다인은 BMI 25이상이 61%, 즉 1억 6천만 명이니 된다. 6세-11세의 아동 13%와, 12세-19세 사춘기의 14%이 체중과다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체중과다인은 무려 3배나 증가했다.

인증적으로 체중과다는 흑인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69% 대 58%), 반면 백인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62% 대 47%). 그리고 백인남자가 흑인남자보다 높

다 36%나 더 많은 의료비와 21%나 많은 약품을 소모하고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간 미국인 30만명 생명을 앗아가는 비만증과 관련된 질환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해마다 늘어나 2000년도에 1,170억 달러가 됐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비만증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소모되는 의료비는 미국연방 의료비예산의 12%나 된다.

이 외에도 직장에서도 비만증 고용인의 잦은 결근과, 그들의 낮은 생산력 때문에 오는 기업손실은 매년 500억 달러에 가깝다고 한다.

(VII) 정부와 사회의 비만퇴치노력

비만퇴치의 첫 단계로 NIH는 학교, 지역단체와 산업계가 앞장서서 비만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자랑스런 동문들

세계적인 心臟內科學의 권위자

鄭求榮 <Edward K. Chung 의대 57년 졸>

역사상 평생에 가장 많은 분량의 저술을 남긴 이로 흔히 서양 중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Thomas Aquinas를 든다. 한국인으로서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이가 누구 인지는 과문(寡聞)한 탓에 잘 모르지만 의학도중 가장 많은 학술적 저술을 남긴 이를 꼽는다면 정구영 동문을 빼놓을 수 없다. 정 동문은 심장내과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이미 99권의 책을 편 저술하였고 금년에 100권 짜 저술인 "심장병의 여러 문제"를 출간할 계획이다. 가히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에 오를지하다.

鄭 동문은 지난 3월 26일 제3회 합춘대상 수상자 3인중의 한 분으로 학술연구부문 대상을 받았다. 합춘대상은 모교 의과대학동창회(회장 이길너)에서 제정하여 해마다 서울의대 동창회원 중에서 학술부문, 의료봉사부문 및 사회 공헌 부문에서 인류와 국가를 위해 공헌한 60세 이상의 생존 동문에 게 수여된다. 참고로 금년도는 의료봉사부문 수상자는 주근원 동문(43년 졸, 모교 명예교수)이고 사회공헌 부문은 한상태 동문(55년 졸,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지역임)이 수상하였다.

鄭 동문은 57년 모교 졸업후 도미, 40년 가깝게 심장내과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심장내과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ECG(心電圖)와 Arrhythmia(不整脈)검사와

분석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성취는 世界的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 방면에 관한 그의 의학 서적 저작은 99권에 이르며, 발표한 醫學 논문이 615편이나 되어 의학 서적 저작과 의학 논문 저술의 두 방면에서 모두 世界的 기록을 세웠다. 세계 각지의 의학 학술회에 초청되어 발표한 논문과 강연회수가 350회나 되고, 세계적인 의학잡지 23개 잡지의 편집 및 감수위원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의학 서적 99권 중 32권은 영어 이외에 12개국의 외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전세계적으로 심장 內科 醫師, 내과수련의, 醫大生 그리고 심장 간호사들의 필독 도서로 되어있다.

이런 획기적인 공적으로 인해, 그는 14명의 가장 출중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한사람(One of 14 Most Prominent Asian-American)에 뽑혔고, Thomas Jefferson 대학에서 주는 최대 영예인 특별 강연자("Distinguished Lectureship")로 선발되었으며, 이 학교의 개교 이후 200년 역사상, 지금까지 단 3명의 교수만 수여된 최고의 명예인 특출한 교수("Distinguished Professorship")로 지명 받았는데, 이 명예는 이 대학교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칭송되는 영광스런 호칭이다. 그리고 그의 초상화 헌액(Portrait Presentation) 행사는 미



국 내에서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었다.

每年 6萬여장의 심전도를 40年間 분석, 진단하면서, computer를 이용한 심전도 진단 방법을 연구한 결과, 鄭박사 고유의 컴퓨터화된 "Stress ECG Testing Chung Protol" or ECG program("Chung's Diagnostic Criteria")을 발명하여 미국의 Hewlett-Packard 社와 제휴하여 생산되어 일반화되었다.

鄭 박사는 美國 內뿐만 아니라 세계각지의 醫學 學術會에 초청되어 논문 발표와 강연회 뿐만 아니라 많은 醫學잡지(JAMA,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 Primary Cardiology 등) 23개의 잡지의 편집 및 감수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여러 有名한 製藥會社에서 설립한 visiting professorship program의 교수로서 世界 여러나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Merck Co., Wyeth Co., Parke-Davis Co., Hoechst-Marion-Roussel Co., 등).

또한 鄭 박사는 우리나라의 여러 大學病院(釜山大學, 순천향大學, 김병원의 가산 大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 32명의 심

장내과 전문의 혹은 교수를 초빙, 수련시키고 함께 연구하였다. 이들은 1-2년간 연구 수련한 후에 가자 大學병원에 돌아가서 모두 중견 교육자가 되었다(신영우 교수-부산대학병원 심장내과 과장급 부학장, 김현승교수-연세대학교 내과과장, 고재기 교수-전북대학교 내과과장 등).

鄭 박사는 과거 10여년간 心電圖 세미나를 우리나라 (서울, 부산)에서 5회에 걸쳐 가졌는데, 처음 1,2,3회는 혼자서 one-man show 강의를 하였고, 다음 4,5회 때는 鄭 박사 밑에서 수련한 교수들과 함께 심장내과 세미나를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이런 鄭 박사에게 모국은 "조국을 빛낸 海外同胞賞"(1995. 광복절)을 수여하였고, 母校는 "자랑스런 서울醫大동문"(1997)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KBS는 제6회 海外同胞 特別賞(1998)을 수여하는 등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鄭 동문은 1931년 3월 3일에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후(1950-1957) 도미하여 Washington University의 Barnes Hospital(St Louis, U.S.A.)에서 Internship과 Medical Residency 수련(1958-1962)을 마치고 이어 Cardiology Fellowship 수련(1962-1964)을 마쳤다.

그의 주요 경력은 West Virginia University Medical Center(Morgantown, West Virginia, U.S.A.)에서 심장내과 교수를 역임(1964-1973)하고, Thomas Jefferson University Hospital(Philadelphia, U.S.A.)에서 심장내과 주임교수와

Heart Station 과장을 역임(1973-1998)했으며 현재는 Thomas Jefferson 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鄭 동문은 수상소감에서 "합춘대상(학술연구부문)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고 몹시 기쁩니다. 우리 동창회 여러분들, 특히 심사위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히 여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서울의대 동창회,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해서 교육, 저술, 연구에 힘자라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의학 대학 현역에서 은퇴를 했지만,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鄭 동문은 은퇴하였음에도 금년도 계획으로 100번째 저서 "심장병의 여러문제"를 출간예정이라고 하였다. 정 동문의 다음 冊은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에 오를 만한 놀라운 기록이라 하겠다. 의학冊, 특히 심장冊이 전공분야인 그의 기록은 의학도서 출판수로 보면 세계에서 독보적이다. 이와 비슷한 기록 소유자는 東西古今에 아직 없을 것이다.

Guinness Book에 "세계 제일"로 올라있는 유일한 한국인은 경상남도에서 1982년 4월에 경찰관(이름:우법권) 총을 난사하여 57명을 죽이고, 35명을 중상시킨 사건이다. 이는 역사상 1인이 총으로 한꺼번에 가장 많이 죽인 세계 기록이다. 이러한 불미스런 한국 이미지를 씻어버리고, 훌륭한 기록을 세울 한국인은 鄭 동문밖에 없을 것이다. 동문들이여 Guinness 편집인에게 우리 정동문의 업적을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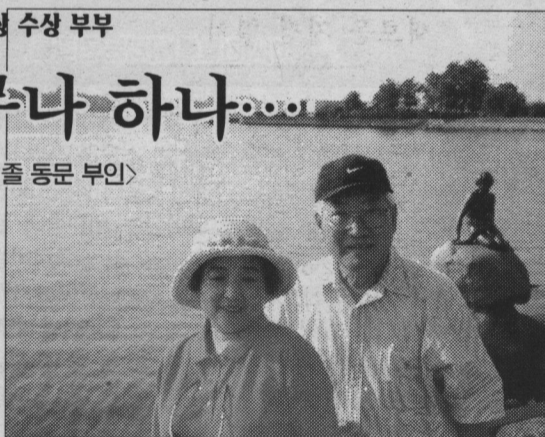
<투고자 김일훈>

2001년 장기남 남편의 섬계명 상 수상 부부

外道는 아무나 하나...

송숙경 <송재현, 의대 52년 졸 동문 부인>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2월의 햇빛이 거실 가득히 들어와 있다. 햇빛을 통해 지고 앉아 보았다. 기분 좋은 나른함이 어깨위로, 무릎위로 올라 앉는다. 이럴 때 나이는 세여 무엇하랴만 아득한 지난 세월부터 세어본다. 내게 허락한 내 삶에 잔고가 얼마나 남았을까?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 하고.... 어떤 따스한 회상으로 나는 차츰 상기되기 시작했다. 며칠 전 나는 두 아들네 집을 방문했었다. 두 집 다 장미꽃 다발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발렌타인데이에 받은 꽃들이었다. 사랑이 가득히 담겨있어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내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아주 오래 전 Valentine Day이었다. 퇴근한 남편이 "오늘 무슨 날이지?"하고 묻는다. 나는 꽃이라도 주러는가 하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이나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래요 했더니 "음, 그렇군" 그런데 오늘 간호사가 아이들에게 캔디를 주기에 나도 캔디를 주면서 해피 할로윈 했더니 간호사와 아이들이 눈이

무슨 날이면 꽃배달이 왔다. 배달 꽃은 비싸기만 하고 싱싱한 것 같지도 않은데 보내지 말라 했더니 그 후로는 그런 꽃마저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가만이나 있을걸... 그런데 요즘 남편 얼굴에 저승꽃이 피었다. 할 수 없이 매일 그 꽃을 보게됐다. 부부간에 雲雨之情이 무엇인지 알게되고 힘겹게 살아온 세월이 깃들여 있어서 연민을 느끼려 한다.

남편의 머리카락이 뿌리부터 하얗게 변하고 있을 때 우리부부는 18년만에 한국을 갔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외국생활의 객고를 달래주는 방법도 다양하여 인생에 최대의 꽃마당을 피워주는 것이 있었다. 젊고 예쁜 아가씨를 소개하겠다는 친구들이 있나며 남편은 좋아한다. 내가 생각해도 늦게 외국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 한 번쯤 친구들과 즐겨보는 것도... 아침에 넉넉한 돈을 주면서 "잘 즐겨요!"했더니, 남편은 허락 받은 도둑같이 밖으로 나갔다.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 꽃 마당이 될 수도 있고 험악한 지옥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서 혹시 통속잡지에 인생 상담란이나 등장해서 어찌하오리까? 하는 일이나 생기자나 않을까? 나는 나대로 그날 친구들과 어울려 친구의 딸 결혼식도 참석하고 식사도 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는데 "뽍뽍" 노크 소리가 났다. "네"하

고 열고 보니 남편이 젊고 예쁜 꽃같은 여자와 함께 서 있다. 나를 본 여자는 흰비백산 도망을 가버렸다. 그들의 얽은 인연을 찾다면...하필이면 많고 많은 서울거리에 호텔을 두고 우리가 묵고 있는 이방으로 데리고 오다니. 외길로만 가는 사람은 달리 택해야 할 길이 없는 것일까?

남편은 멧쩍은 얼굴이 되어 방으로 들어온다. 어깨에 메고 있던 카메라가 침대에 팽개쳐진다. 남편은 왜 일찍 들어왔느냐고 화를 낸다. 일찍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필 이리로 오면 어찌누... 外道는 아무나 하나? 오래도록 그때의 기억에 젖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재미를 만끽한다. 이제는 모두가 추억이 되어 어떠한 망상도 내게 행복했던 과거를 되돌려 주지는 못한다. 노년이 되어 저승꽃만 보여주는 남편도 당당한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으니 이 아니 은혜라! 오늘은 멋진 하루였다.

SNUA OPINION LEADER

완전한 형태의 인공피부 만들기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사람의 피부조직을 이용, 실제 피부처럼 표피와 진피로 구성된 인공피부가 개발됐다. 모교 의대 피부과 朴景贊교수와 성형외과 金石華교수팀이 그 주역들. 이에 바이오벤처기업 (주)웰스킨 대표를 겸하고 있는 차교수로 부터 인공피부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와 그 효용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신이나 장기 기증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간·심장 등 장기이식이 필요한 수많은 환자들이 현재 대기중에 있으며 이는 장기기증 등 장기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물론 더 많은 장기기증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범사회적인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나 최근 조직공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조직공학에 의한 인공장기의 개발이 시신이나 장기기증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식 장기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부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대체 조직의 개발은 수백만불의 가치가 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어 여러 기업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생물학의 최근 진보상황은 너무나 빨라 DNA의 구조가 밝혀진지 불과 반세기 만에 인류의 유전자정보가 전부 해독되었고 피부세포의 배양이 시험관 내에서 성공한지 불과 20여 년만에 세포와 세포 외기질로 만들어진 인공피부가 화상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최근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가를 알 수 있다. 세포배양을 통해 세포가 유래된 조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장기를 개발하려는 노력 즉 조직공학은 세포연구자와 재료연구자의 공동 노력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조직공학을 이용해 인공장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피부·연골·골·간·췌장 등 여러 장기를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공장기는 인공피부 정도이며 1998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임상에 사용되고 있다. 인공연골이나 인공골 등도 임상적 사용에 접근되어 있는데 특히 인공피부의 재생은 1979년 미국의 Green교수에 의해 각질형성세포의 배양이 성공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Green교수는 방사선처리된 세포 분열이 억제된 섬유모세포 위에 각질형성세포를 배양하여 각질형성세포의 성장에 섬유모세포로부터의 성장인자 혹은 세포외기질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 주었다.

인공피부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문헌상 나타나 있는 보고만 해도 2천여 개가 넘고 있다. 그러나 문헌보고 상으로 화상 환자나 동물실험 등을 통하여 인공피부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예가 1990년대 초부터 보고된 반면 표피와 진피로 구성된 온전한 형태의 인공피부는 1998년 「Apligraf」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현재 캐나다와 미국 등에

서 당뇨병에 의한 궤양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개발된 피부대체물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한 형태는 배양된 표피만 제공하는 형태로서 기계적 강도가 약하고 착상률이 낮은 단점이 있다. 두 번째 형태의 인공피부는 처리된 피부로부터 얻은 진피나 콜라겐과 세포외기질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표피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의 인공피부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세 번째 형태의 인공피부가 표피와 진피로 구성된 온전한 형태의 피부로서 「Apligraf」는 이 중 세 번째 형태에 해당된다. 이 제품은 신생아의 피부세포와 섬유모세포로 만들어지며 주문에 의해 탁송된다.

인공피부는 약물의 특성, 약물흡수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실험에 사용된다

최근 외신이나 사이언스誌에 의하면 모낭을 이용해 인공피부를 제조하는 방법이 보고되어 인공피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피부의 배양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래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는 남아있으나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세포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장차 인공피부는 물론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장기의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보건복지부 등 여러 연구지원기관의 도움에 의하여 인공피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 인공피부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약 5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피부와 인공각막 등의 실험모델을 개발하려는 연구와 키토산 등을 진피에 이용하여 진피대용물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수행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진피를 이용한 모델 등도 개발되어 동물실험을 거친 상태이다.

이미 구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Apligraf」는 Organogenesis社의 제품으로 세계판매권은 다국적 기업이 맡고 있다. 국내의 현재 연구 진행상황으로 보아 국제적인 경쟁을 이기고 인공피부의 국내생산을 성공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로 생각되나 여러 기업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중에 있어 이러한 노력이 불가능한 것만은 여겨지지는 않는다.

또한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장기는 세포와 생체 재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시간이 길지 않고 또한 항공 등을 통한 탁송방법도 용이하지 않다. 물론 AIDS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어느 나라에서라도 그 국가

내에서 사용할 제품은 그 국가 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것이 조직공학 제품이기에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조직공학 제품의 국내 경쟁력은 노력하기 나름에 따라 외국의 기술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인공피부의 다른 한 가지 효용성은 실험모델로서의 가치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화장품의 효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금하고 있으며 약물과 달리 화장품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직접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또는 인공피부를 이용한 실험모델을 이용하여 효능을 테스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물론 실험에 사용 가능한 인공피부모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장에 소개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일부 모델이 수입되어 공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인공피부는 약물의 특성, 약물흡수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실험에 사용될 수 있는데 국내 연구진에 의한 인공피부모델 개발 역시 수년 전부터 시도되어 왔으나 아직 실험실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국내 유관 연구분야도 활성화되리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진피대용물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진피를 가공하여 만든 진피대용물 「Alloderm」이 이미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제품의 파우더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물론 돼지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도 과거로부터 사용되어 왔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진피대체물질들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자신의 세포를 어릴 때 냉동보존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등 조직공학의 새로운 지평 열어

Organogenesis社의 VITRIX™은 살아 있는 섬유모세포와 콜라겐을 포함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진피대용물로서 상처가 깊은 경우라면 여러 겹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진피대용물은 일반적인 깊이의 상처뿐만 아니라 뼈까지 소실된 깊은 상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부에 손상이 있을 때 치료의 경과와 피부손상의 종류나 나이 혹은 전신적 건강상태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의 료기술의 발전은 화상에 의한 사망률을 크게 낮추었으며 피부손상을 즉시 대체하여 기능적·미용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넓은 부위의 화상환자의 경우 피부손상 부위를 덮어주면 이차세균감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수분손실을 막아 경과에 크게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형태의 피부대용물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비교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대체적으로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진피대용물과 표피

로 구성된 인공피부의 형태가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콜라겐이 중요한 생물학적 신호를 매개하거나 또는 콜라겐 혹은 이의 대사산물이 여러 가지 세포를 유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 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가지 실험모델에서 콜라겐의 창상치유에 대한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으며 콜라겐은 세포를 정상적인 상태와 비슷하게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콜라겐은 조직형성을 촉진시켜 주는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는 기본 구조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직공학은 자신의 세포를 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자신의 세포를 어릴 때 냉동 보존하여 필요한 경우 꺼내 사용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어른의 경우 피부에 손상을 입으면 흉이 생기고 상처의 수축이라는 이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미용 및 기능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기게 되지만 어린 조직은 재생하는 능력이 높아 이를 이용하여 조직을 재생하려는 희망은 앞으로 조직공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완벽한 조직의 재생이 단지 꿈인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의 의학발전 에 따라서는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도 멀지 않았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인공피부의 임상적 사용은 앞으로 매우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나 이러한 발달과 함께 인공피부의 가격 또한 일반화되어야 보다 용이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기술만으로는 화상과 같은 응급상황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인공피부를 공급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피부이식을 위한 이상적인 인공피부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사람의 진피와 얼마나 비슷한 인공진피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진피의 주성분이 콜라겐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외 다른 세포의 기질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현재의 인공피부는 단지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을 뿐 피부의 완전한 기능을 다하기 위한 피지선, 모발 등은 전혀 개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피부 부속기를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피부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지도상의 남북한의 존재

그 지도 위 쪽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산주의 사상의 국시가 빨간 글로 인쇄되어있고, 글을 소개하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김일성"이다. 그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자강도', '량강도', '황해북도', '황해남도'가 신설되어 있었고, '강원도'의 경계가 변경되어 있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南과北의 경계, 즉 휴전경계선(38線)의 표시가 전혀 없으며 또한 제주도를 현재의 제주도로 표기하고 서울특별시 경계 표시도 현대대로 되어있고, 부산시도 직할시 경계가 표시되고, 전국 철도망도 현재 부실한 대로 표시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 지도에는 평양이 수도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실 하나만 예를 들어도 北-조선 정권이나 국민들이 南-한국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나는 南-한국에서 21년간 사는 동안 6.25동란의 피해도 입었고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았기에 北-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향 땅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의 고향 방문이 결정된 후 북경으로 출발하기 전에 역시 나의 버릇대로 내 고향 지도를 구하려 하였으나 南-한국에서 발간된 지도에는 北-조선이 완전히 무시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南-한국에서는 北-'朝鮮'의 지도를 구할 길이 없었다. 南-한국의 정권이나 국민은 北-조선은 우리의 땅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즉 외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한글 오피스 96 CD-ROM"을 사용하여 이 글을 쓰면서 南-한국 사람은 北-조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재삼 느낀다.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제주도-[濟州道], 마산-[馬山], 광주-[光州], 목포-[木浦]를 한글로 써 놓고 漢字로 바꾸려면 쉽게 나오는데, 함경도-[], 평안도-[], 함흥-[], 신의주-[], 청진-[], 원산-[] 하고 한자로 바꾸려하면 나오지 않는다.

이같이 생각이 부족한 南-한국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北-조선은 우리와 무관한 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더 심한 예를 들면 중국-북경[中國-北京], 일본-동경-[日本-東京], 조선-평양[朝鮮-平壤], 즉 국가와 수도명 만이 이CD-ROM에서 한

<郷土史 연구>

나의 고향 咸興 <3>

'1991년 고향 함흥에 다녀와서'

한경섭 <공대 52년 졸, 캐나다 거주>



자 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야말로 北-조선을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하는 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

南-한국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철저한 반공, 대적 교육을 받은 南-한국 사람들이 北-조선의 현재 현황 지도를 발간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는 공포심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요즘은 南北의 대화가 시작 되었다니 화해를 기대하여 본다.

5) 한국의 지역감정의 역사적 기원

다음에 내 고향의 "자랑"과 이 "자랑" 속에 숨어 있는 지역 감정을 생각해 본다.

南-한국이나 北-조선 국민들이 지역 감정이나 지역 반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 편 자기 고향을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믿는 사람도 없겠지만, 문제는 "자랑"속에 숨어있는 내용과 사상이며, 누구나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의 문화, 전통, 풍속, 신앙 등을 지키기 위하여 합심하여 서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권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우리모두가 이해할 수 있으며, 고향 자랑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왜 지역 감정이나 지역반목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것은 지역과 지역간의 이권의 대립이며, 서로가 권익을 보편 타당하게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반감이 심하게 번져 지배의 싸움이 되고, 드디어는

통치권 싸움으로 발전한 것이다.

통치주도권을 장악하려고 그 지역의 지도자적 인물들이 지역인들의 단결과 지지를 호소하다 보니 지역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그 다음은 동향인들끼리 모여서 정치단체를 만들어 동향 사람만 등용하는 '同郷政治體制'(동향정치체제)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가장 초보적 정치과정으로 돌아가니, 오늘날 경상도 대통령, 전라도 대통령, 평안도 주석 '대통령'이란 서글픈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우리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고, 통일국가로서 오백여 년 내려온 '朝鮮國'이 이와 같이 가장 원시적이고 초보적 정치 체제 과정으로 되돌아 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현대국가 체제는 정치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 당을 조직하고 정강,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계를 넘어서 전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여 올바르게 정한 정치를 하는 것을 현대 정치이념으로 하고 있다.

南-한국의 지역감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백제인 전라도와 신라인 경상도"이다. 이 감정은 신라의 金庾信(김유신)이 백제의 의자왕을 폐위시키고 신라통일 하였다는 660년경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北-조선의 평안도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안도인은 契丹[거란]족의 후손인 고구려 전성시대에 평양을 수도로 하고 신라와 백제 땅을 거의 지배하였다고 하는 長壽王(장수왕:413-491) 때부터 신라,

백제인들과의 지역감정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 같다.

함경도인과 경상, 전라, 평안도인들간의 지역감정을 살펴보면, 이것도 함경도 李成桂의 조선통일, 다시 말하면 경상도-신라인, 전라도-백제인, 평안도-고구려인들을 지배한 1398년경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北-조선에서의 함경도인 대 평안도인의 지역적 반감은 南-한국의 경상도인 대 전라도인의 지역 반감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알고 있다.

6) 중국의 지역감정

이와 같은 지역감정이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을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지역반감은 세계의 어느 곳이든 동서고금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고대의 지역감정을 이해와 양보, 타협, 공동 이권을 위하여 공정한 정치를 함으로서 해결한 나라도 있는가 하면, 현재도 중동지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 대개는 미발전국에서는 고대부터 내려온 지역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피의 전쟁을 하고있는 뉴스를 매일 신문 TV를 통해 듣고, 보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하나의 예로, 中國역사에 나타난 지역감정의 경우를 보면, 전국시대의 秦, 楚, 齊, 燕, 韓, 魏, 趙 7개국이 250여 년간 패권을 다투다 드디어 가장 후진국이던 秦나라-周王朝의 말을 기르는 일을 하였던 유목민-가 천하통일하여 秦帝國(서기전221-207년)을 건국하고 始皇帝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현재 서구에서 쓰고 있는 "China"는 "진(秦, Chin)에서 유래된 것이다. 7 국간의 지역감정이 어떻게 진전되었는가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 있는 일이다.

수년 전 나는 진시왕의 고장인 陝西省, 西安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곳에서, 1974년에 우연히 한 농민에 의하여 발견되었다는 진시 황제의 兵馬俑(병마용)이 있는 지하 궁전과 36년간에 걸쳐 건조하였다는 진시황제 능을 가 본 적이 있다.

이 지하 궁전은 역사기록에는 없고, 또한 전설에도 전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록이나 전설이 전해 내려 왔다면 그 지방 사람들은 발굴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中國정부나 사학자들이 학술 연구목적으로 이 능을 발굴하려고 해도 그 곳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진시황제 능에는 손을 댈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섬서성지방 '秦나라 사람' 들은 진시황제를 "天帝"(천제)와 같은

존재로 숭배하고, 2천 2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전국시대 7개 나라들은 치열한 지역 싸움과 패권 싸움을 장기간에 걸쳐 하였지만, 이 나라의 백성들은 堯와 舜의 성왕들의 선정 하에서 살아온 한 나라의 漢民族, 중국인이라는 절대적인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中國史記(사기)에는 堯, 舜, 聖王들로 시작해서 그 후 帝王들이 영토를 확장하게되면 그 새로운 封土(봉토)에 나라명을 정하고 시조 군주를 책봉하였는데 이들이 秦, 楚, 齊, 燕, 韓, 魏, 趙,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간에 패권 싸움이 있다가 어느 한 나라가 천하통일을 하게 되면 이간나라 이름을 통일 중국의 국호로 한 것이 周, 秦, 漢, 魏, 晉, 隋, 唐, 宋 나라들이었고, 元-몽고족과 淸-여진족은 中國 국호의 관례와 전통에 따라 지었으며, 뭇나라가 밝은 [明] 나라를 건국하겠다고 국호를 明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것이 천하통일하는 中國의 전통이다. 이 같은 실례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에도 볼 수 있으며 蔣介石과 毛澤東은 천하통일의 패권 싸움을 하고있었지만 日本이 침략을 시작하자 그들은 패권 싸움을 중지할 것을 합의하고, 우선 日本을 추방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펼쳐서 일본 침략군과 싸웠다. 그들은 항상 漢民族, 中國이 첫째이고 지역 세력은 다음에 온다는 사상을 갖고있었다. 蔣介石政府는 中華民國이라고 하였고 毛澤東政府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 하였다. 그들은 정치적 적이었지만 "中華=中國"으로 국호를 지켰다. 지금도 中國과 臺灣이 갈라져 있지만, 中國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中國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獨逸[독일]의 예를 본다면, 불과 130년 전 1871년에 독립한 獨逸은 2차 대전에서 패전으로 양분되었다.

1949년에 서독은 정부를 수립할 때 Grundgesetz ('국가 기본법)를 제법하고 서독헌법으로 대신하고 독일 헌법은 장래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된 후에 독일 국회가 제헌한다고 하고 하였다.

국호를 동독은 "Deutsche - Demokratische - Republik" 로 하고, 서독은 "Bundesrepublik - Deutschland "(Deutsche = German, Deutschland = Germany = 독일)이라고 동일한 독일 국호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기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독일의 상징인 재래의 흑, 황, 삼색 국기를 東과 西가 사용하였으며, 단지 동독은 국기 중심부에 공산당의 마크를 표시하였을 뿐이다. <17면에 계속>

'1991년 고향 함흥에 다녀와서'

<16면에서 계속>

7) 남북 분단과 정통성의 문제

잠시 우리 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南-한국과 北-조선은 과연 어떠한가? 李承晩 정권은 1948년 8월에 국호를 정할 때 오백여 년 통일조선의 국호를 버리고 大韓民國이라 하였다. 물론 北에서 이미 朝鮮이라고 쓰고 있으니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南-한국은 신라, 백제사람들이 살던 韓民族의 땅이라는 뜻이고, 北은 朝鮮族이 사는 땅이라는 뜻이다. 北에서는 국호를 1948년 10월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오백여 년간 조선으로 써오던 국호는 朝鮮과 韓國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南-한국이 국기를 太極旗로 정하니, 北-朝鮮의 김일성 정권은 전통적 조선을 상징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국기를 만들어 내었다. 외세에 의하여 이와 같이 南-北이 분단된 민족의 비극을 南-北이 합심하여 이 외세를 물리치고 오백여 년 지켜온 통일조선을 다시 찾을 생각은 없고, 오히려 외세와 타협하여 南-北을 분단하여 정권 장악에만 정신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극히 이기적이고 정치 철학이 결핍된 군사안정 정권들이요, 얼마나 옹졸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나 하고 나는 슬퍼할 뿐이다. 더욱이 한심하고 슬픈 일은 이러한 사실을 南-北의 국민, 특히 지식인까지도 무관심사로 등한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나는 北-朝鮮을 방문하였을 때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北-조선에서는 金日成 출생지인 만수대와 고구려 동명왕릉을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을 보았는데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왕은 농민을 착취하는 인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동명왕을 찬양하며 선전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과 김일성은 평안도 사람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강조하기 위해서요, 또 그들은 앞으로 南-한국과 北-조선의 통일이라는 명목으로 고려연방정부체제[高麗聯邦政府體制]를 제의 주장하고 있다. "조선연방정부"라는 국호는 南-한국이 용납하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北-조선은 "한국연방정부체제"의 국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인 것 같다. 그 이면에는 동명왕이 건국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왕조의 고려를 따서 "고려연방정부체제"의 국호로 쓰고자 南-한국 정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와 영어로는 "Korea"로 南-北이 동일하게 쓰고 있으니 고려 국호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의도인 것 같다.

中國에서는 연방정부체제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의 中國이요, 하나의 中國人이라고 믿고 있다. 하나의 中國에 다양한 제도, 다시 말하자면 홍콩, 마카오, 장래의 대만도 포함하여, 내몽고, 티벳 등 그 지역에 따라 자치제도 혹은 자주자치체제로서 그 지역에 합당한 제도를 택하지만, 그들의 하나의 中國, 하나의 中國人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中國人은 대만인이든 만주인이든 그 모두를 華僑(화교)라고 부른다. 미국합중국은 하나의 미국을 세우기 위하여 "Melting Pot"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세계 어느 민족이든 미국의 "도가니" 속에 넣어서 녹인다"라고 하는, 新 America 단일민족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다. Canada는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Mosaic"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쓰며 이 모두가 하나의 국가를 건국하겠다는 목표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이와 정반대이다. 두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 개념의 연방정부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 이는 영원히 두 나라로 분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이며, 오백여 년 지켜온 통일조선을 南-한국과 北-조선으로 분리하고, 南-韓國族과 北-朝鮮族으로 뚜렷하게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南-韓國族 국민은 현재 중국에 사는 교포를 朝鮮族이라고 부르며 경멸하고, 南-한국이 조국이라고 믿고 찾아온, 또는 귀국한 동포를 동족으로 대우하지 않고 심한 차별을 하고 있다. 南-한국이

과거 수십 년간 외자를 차입하여 불안정하나마 경제 성장을 이루고 생활향상이 되었다고 이들 교포를 멸시하고 확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준 설움과 원한의 상처는 언제나 사라질 것이나 南-한국 국민이 몰지각하게 이와 같은 확대를 계속한다면 우리 나라 장래의 또 하나의 비극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8) 북한의 지역패권주의와 함흥

7 일간의 나의 고향 함흥 방문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였다. 그 중의 하나는 北-조선정권은 北-조선의 평양이 장래의 고려연방국의 수도가 될 것이니 세계 수준의 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北-조선의 국민을 설득시켜; 모든 문화시설을 집중적으로 평양에만 건립하고 이상적 도시라고 欺滿(기만)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서 北-조선의 두 번째 도시인 함흥은 평양과 비교의 대상이 안되며 김일성 정권은 의식적으로 철저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 이유는 역시 지역감정과 霸權(패권)싸움에 기인한다고 믿는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함흥도는 일본침략 기간에 끝까지 많은 항일운동 인사들이 살고 있었던 고장이며 저 유명한 朝鮮語學會事件(조선어학회사건)의 고장도 함흥이었다. 일본침략 집권자들은 이 인사들을 思想犯(사상범)이라고 불렀고, 그 인사들의 대부분은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日本에 유학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 그 시대의 思想潮流(사상조류)인 社會主義(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한 수가 있었는데, 그들을 총칭하여 사회주의자라고 하였다. 8.15를 맞이하면서 많은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北-조선 정권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함흥도 사람들과 평안도 사람들 사이에 지역감정의 대립과 갈등이 있던 중 6.25 동란이 일어났고, 北-朝鮮軍이 南-韓國에서 후퇴하게 되면서 미군과 南-韓國軍이 압록강, 함경도 三水(삼수), 甲山(갑산), 惠山嶺(혜산진)까지 진격하였을 때 미군과 南-한국군들이 함흥을 점령한 동안 김일성 정권의 차별대우에 불만이 있던 함흥지방 사람들이 美軍과 南-한국군들을 대환영하였다. 이로 인

해 金日成은 함경도 지방 세력 제거책으로 甲山討伐(갑산토벌)이라는 별명을 가진 피의 숙청으로 함경도 인사들을 모조리 北-조선 정권에서 추방하고, 함경남도를 갈라서 '랑강도'를 신설하고 함경남도의 제 2의 도시인 원산 지방을 강원도에 편입시켰다. 지금의 함경남도를 8.15전 함경남도의 반 정도로 축소시키고 함경도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 "피의숙청"과 지역 차별로 지금 함흥의 문화시설은 내가 고향 떠난 55년 전 보다 별다른 발전이 없으며 아직도 동란에 파괴된 문화시설들은 복구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고구려 동명왕릉을 찬란하게 개축한 데 비하면 조선을 통일한 李成桂가 출생한 땅의 사적은 고의적으로 방치하여 거의 찾아볼 수도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의 살던 고향 함흥은 아름다운 성천강[城川江]이 흐르고 만세교[萬歲橋]가 있고, 반룡산[盤龍山]이 시작하는 동산에 낙민루[樂民樓]와 八角亭[팔각정]이 서 있어 모든 함흥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겨 놀던 곳이었다. 그 동산에 올라가면 뒤로는 높은 반룡산이 보이며, 성천강과 만세교를 한 눈에 내다볼 수 있고 함흥시 전경은 물론, 광대한 함흥평야가 내다보이는 곳이다. 이곳 낙민루 언덕 新昌里(신창리)에 바로 내가 태어난 집이 있었다. 나의 실망과 분노는, 내가 태어난 집은 물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주택들과 함주군 청사 등 건물들을 철거시키고 그곳에 대공원을 건설하고 그 언덕 정상에 초대형의 김일성 동상을 세워 놓았으며 그 동상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함흥 시민들로 하여금 참배케 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마치 "지금 나 金日成은 함흥 전 시가를 내려다보면서 조선을 통일한 李成桂를 배출한 함흥 땅을 지배하고 있다하는 위세상징의 동상을 세우고 함흥시민을 위협하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南-韓國 서울 南山에다 李承晩 동상을 세웠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동상들의 운명과 종말을 잘 알고 있다. 8.15후 金日成 정권에 반대하는 막대한 수의 함경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南-韓國으로 이주하였다. 나도 그 중의 한사람

이다. 고향을 상실한 그들은 김일성 정권을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갈려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南-한국 군에 대거 참가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정권을 세운 朴正熙는 함경도 사람을 경원하고 경계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는 피해과민[被害過敏]과 두려운 마음에서 "아라스가 토벌"이란 별명의, 피만 흘리지 않은 金日成의 "甲山討伐(갑산토벌)"과 비슷한 숙청으로 南-한국군에서 유능한 함경도 출신의 군인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경상도사람 장성과 장교 일색의 군대를 조직하여 군사독재 정치를 하였다. 이들 함경도 출신 군인들이 지방세력의 뒷받침이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朴正熙는 이들을 숙청하니, 이들은 일언반구의 말도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이를 당해야만 했던 것이다.

지금 나의 고향 함경도 함흥은 苦難[고난]받은 땅이요, 受侮[수모]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과 수모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朝鮮을 통일한 경력을 가진 그들의 霸氣[패기]와 애국하는 마음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역사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南-한국 정권이 나 北-조선 정권은 민족의 사명을 인식하고, 온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의 성취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현명한 방법으로 지역감정을 초월해서 제이의 함경도, 함흥의 李成桂의 출범이 없이 사대지역사람들은 물론, 모든 지역 사람들이 상호이해, 상호양보와 양식을 가지고 有和[유화]하고 대동 단결하여 하나의 우리 나라, 하나의 우리 민족이 되어 500년 통일국가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 나라가 또 한 번 500년의 통일국가로 발전하고 다음 또 500년 아니, 영원한 통일 국가의 우리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나의 살던 고향. . ." 樂民樓(낙민루) 동산에 또 한 번 ". . .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 ." 꽃들이 피는 아름다운 희망의 동산, 평화의 동산, 통일의 동산을 만들어 우리의 소원을 이루자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다.

<끝>

영구 보존되는 재미동창회보 투고 요청

재미동창회보는 비주 권역에서 각자 전문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 동문들의 사색의 소신인 文稿들을 모아, 우리 동문들의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보의 독자 여론 조사에서 동문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글을 읽고 함께 보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1) 남북한 관계의 진전 상황
- 2) 미국의 외교정책
- 3) 한국 경제
- 4) 세계 경제
- 5) 한국의 교육 개혁
- 6) Nano 기술
- 7) 생명공학
- 8) 보건 의료 분야
- 9) 조세, 은퇴, 투자 방안
- 10) 동문들의 자전적 수상, 시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11) 기타 동문들의 창의적인 글을 기다립니다.

SNUA OPINION LEADER

지구를 살리는 빗물모으기 운동

지난 1995년 UN으로부터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된 한국.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할 지금, 미래를 대비하고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쉽게 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최근 한국 빗물모으기 운동본부 설립한 韓교수로부터 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우리 나라는 강우특성상 봄 가뭄, 여름홍수의 피해를 주기적으로 겪어 왔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봄 가뭄이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여름에는 집중강우로 변하는 추세 때문에 올해에도 물문제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장래에도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물관리 방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나라의 강우량은 세계 평균강우량과 비교해 적지 않으나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1인당 활용가능

직한 빗물모으기 방법은 공공건물이나 집집마다 빗물탱크를 두어 빗물을 받아서 수세변소수나 청소 및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부수적으로 시민들에게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물절약의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댐 건설, 해수의 담수화, 중수도, 인공강우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모두 엄청난 시설비용과 운전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에너지 과다사용 등으로 지구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들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빗물이용이다.

다음의 예를 보면 빗물이용이 경제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댐의 물을 쓰거나 하면 멀리서부터 끌어와야 하는데, 이때 에너지와 운송비용이 들게된다. 반면에 빗물은 떨어진 바로 그 그곳에서 모아 사용하게 되므로 운송비용이 들지 않는다. 옛날에 집에서

다. 최근에 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나 조경물에는 모두 다 빗물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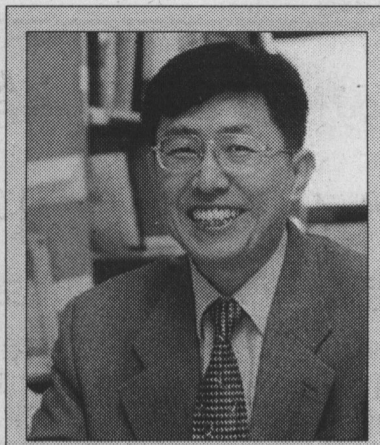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경우 빗물이용의 개념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측우기를 발명해 비의 소중함과 활용방법을 실생활에 적용시켜 왔다.

물문제 해결하기 위해 집집마다 빗물탱크 두어 수세변소수·조경용수로 사용해야 한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해왔으며 지금도 섬지방에는 빗물을 유일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월드컵 경기장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것이 전부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 빗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제공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다. 미국도 각 주의 실정에 맞도록 빗물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권장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가정마다 2톤 가량의 빗물탱크를 설치해 현재 약 1천5백만개의 빗물탱크가 이미 보급됐다. 대만의 동물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빗물을 모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 물의 중요성과 물절약을 깨우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인도나 중국 등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자구책으로 어떻게 하든지 댐 건설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물을 자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들 모두 빗물이용에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강우량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나라에서도 빗물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

우리가 새로운 수자원이자 빗물을



韓 武 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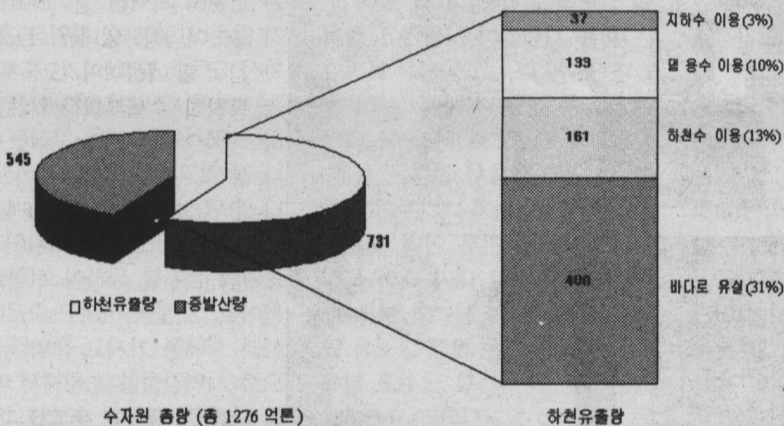
- 1977년 모교 공대 졸업
- 1979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1978~1984년 현대건설 근무
- 1989년 美텍사스 오스틴대학 박사학위
- 1989~1991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1991~1999년 경희대 교수
- 2002년 한국 빗물모으기 운동본부 회장
- 현재 모교 공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용해 현재 당면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빗물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제도화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교 공과대학의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 빗물모으기 운동본부를 설치해 빗물의 소중함, 빗물이용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에 건의를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빗물이용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에 주력하면서 빗물이용과 관련된 산업체의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물문제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빗물모으기 운동이다. 이 문제는 2003년에 열릴 세계 물 포럼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국의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선진국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빗물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구차원의 환경보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수자원 현황 (단위 : 억톤)



수자원량은 연간 1,488m³로서 UN 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물부족 국가란 1인당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000~1700m³인 나라를 말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있다.

우리 국토에 내리는 빗물의 총량은 1천2백76억톤이다(건설교통부, 2001), 이중 지하수, 하천수, 댐에서 이용되는 양은 28%인 3백31억톤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가거나 증발산으로 없어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물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누구든지 홍수 때 빗물이 그대로 강으로 버려지는 것을 보고 『빗물을 잘 모았다가 가뭄 때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빗물모으기 운동』인데, 다양한 종류의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 빗물을 보관해 가뭄 때 쓰자는 것이다.

빗물을 모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댐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환경문제로 인해 반대의견도 많이 있다. 빗물을 모아 땅속으로 침투시켜 지하 대수층에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보다 더 바람

빨라나 청소를 하기 위해 힘들게 우물물을 길어다 쓰기보다는 빗물통에 받아 놓은 물을 쓰는 것을 선호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빗물이 댐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경제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또 해수담수화 시설이 설치된 섬지방의 주민들이 비가 올 때 해수담수화 시설을 가동할지 아니면 빗물을 사용할지를 비교해보면 빗물이 경제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수도라는 것은 한번 쓴 물을 다시 처리해 하드웨어로 사용하는 것인데, 빗물은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장마가 지는 여름날, 공짜로 떨어지는 빗물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비싼 처리비용을 들여서 중수도를 쓰자고 고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빗물의 상대적 경제성 비교 외에도 빗물을 이용하면 도시의 홍수 예방과 가뭄의 대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수질 오염이나 친환경적인 공간창출에도 빗물이 사용되고 있다. 강우 초기의 도로배수에는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처리해서 사용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에서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모아둔 빗물을 사용하면 된



빗물이용은 세계공통의 과제

남가주 소식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개소 동문들 慶弔事 소식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난 달 3월26일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개소식에는 임낙균 회장과 40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셔서 남가주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배의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3700 Wilshire Blvd., L. A. CA 90010 이며, 사무실 연락은 전화 213-365-9669, Fax 213-365-1686 이다. 남가주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이나 소식들은 임낙균 회장 사무실 213-999-1600, 총무국장 김지영 213-532-3600, 재무국장 성주경 213-500-7977, 사업국장 백옥자 818-620-8316 동문에게 연락주시길 바란다.

또, 남가주 총동창회는 여러 동문들께서 **총동창회 회보에 게재될**

크고 작은 경조사에 관한 소식들과 본인과 이웃동문들에 관계된 일간 신문의 보도자료 및 사진들을 백옥자 사업국장(전화 818-620-8316)이나 재미 동창회보 편집실(회보 1면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매달 18일까지 도착된 자료는 재미 총동창회보에 그달에 게재될 수 있다.** 또, 여러 동문들은 재미 동창회보에 다양한 글을 기고하여 우리동문들이 구성하는 격조있고 유용한 재미 동창회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재미 총동창회는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회보와 앞으로 발행될 모든 회보를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 도서관의 특별자료실에 보내어 재미동포사의 연구 자료로써 영구 보존하게 된다.**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동문들.



①4/4/02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친선골프대회에 제일 많은 선수가 참가한 공대 team ②단체우승한 사범대학 team 왼쪽부터 이동희, 임항균, 주영세회장, 강신용, 김지영, 김지호, 이성래 동문
③남자 champion, 공대 박경륜 동문 ④여자 champion Mrs. 김건진
⑤남자 medalist, 사범대 이성래 동문 ⑥여자 medalist Mrs. 오홍조

단과대학동창회 임원진 자료

남가주 총동창회로 보내주십시오

남가주 총동창회는 각 단과대학 동창회와 신속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각 단과대학 동문회의 이사님들의 명단과 주소, 전화, 팩스, 입학년도 등의 자료를 남가주 총동창회의 사무실(213-365-9669)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속히 회신을 보내주신 각 단과 대학 회장님, 광고협찬 동문님, 이사님, 임원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미 총동창회 평의회 남가주 대표단 구성

오는 6월 14일부터 16까지 3일 동안 시카고에서 열리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제 11차 평의회에 남가주 지역동창회는 임낙균 회장을 포함한 7인의 평의원(곽철, 방석훈, 서영석, 이청광, 이명상, 임낙균, 전희택)께서 참석할 예정이며, 오홍조 재미 총동창회 수석부회장께서는 당연직 임원으로서는 평의회에 참가하게 된다. 또, 이병준 재미 총동창회 고문(제 3대 회장)은 6월 14일 열리는 재미 총동창회 10주년 기념 Symposium에 주제 발표자로서 참가한다.

장윤정 동문 연극 출연

장윤정 (법대) 동문의 연극 (Coriolanus) 출연을 축하드리며 이 공연에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임낙균(약대 64입) 회장 초청 골프성료

지난 4월 4일 신입 임낙균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골프대회가 30여명의 이사 및 임원진이 참가한 가운데 Landmark 골프장에

서(Oak Quarry) 있었다. 이날 골프대회 후에는 화기 애애한 가운데 만찬을 갖고, 남가주 총동창회의 발전을 다짐하였다.

남가주 총동창회 봄철 골프대회 師範大 동창회 단체전優勝

남가주 총동창회는 지난 4월 25일 Los Serranos Country Club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가졌는데 8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참석하여 11시에 Tee-off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대회는 단과대학 별 단체전과 남자부 및 여자부의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시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우승: 사범대 (이동희, 이성래, 김지호, 강신용, 김건진, 김성록)

준우승: 공대(강준현, 서치원, 이국진, 김윤호, 김경무, 이

범진)
남자부: Champion-박경륜(공대) Medalist - 이성래(사대) 1등 - 이복한(법대) 2등- 오영문(수의대) 3등 - 오인근(약대) Longest-김민용(수의대) Closest-조한원(의대)

여자부: Champion-Mrs. 김건진(문리대) Medalist - Mrs. 오홍조(치대) Longest-Mrs. 김영일 Closest-Mrs. 조영일

임낙균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수고한 임원들께 감사를 표했다.

하 고

정만영동문 聘母 별세

4월 4일 전 약사회 정만영 전 회장님의 장모님이시고 정이전 약사의 자당이신 이 오제 여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김정선동문 父親 별세

4월 7일 서울 약대 동문회 회장인 김정선 동문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두 喪禮의 입관예배에 참석해 주신 동문들과 弔問 회환을 보내주신 임낙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 남가주 동창 가족의 밤

많은 동문들의 참가 바람

◇일시: 8월24일 토요일
8시30분

Tchaikovsky Spectacular Picnic Time 4시
(각자 식사 지참)

◇장소: Hollywood Bowl
(Highland + Camrose)

Ticket: \$11 or \$20

◇문의처:
이영혜 (714) 809-4481,
사무국 (818) 620-8316

뉴욕지구 소식

文理大 동창회장에 최용열 (72년 입학) 동문

지난 20일에 가진 뉴욕지구 문리과 대학동창회 겸 골프대회에서 72년에 독문과에 입학한 최용열 동문이 한경수 현회장 후임으로 선출되었다. 최신임회장은 현재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힐튼호텔의 이사로 있다. 뉴욕시 근교에 있는 필립 로텔리골프장에서 14명의 문리대동문이 참가한 이날 골프대회

에는 최회장이 87타를 쳐서 수상자가 되었고 근접상은 50년도에 정치학과를 졸업한 당년 77세의 정택수 동문이 차지였다. 특별히 이날 골프대회에는 48년에 정치학과를 졸업한 오병현 동문(보스턴 거주)과 49년에 정치학과를 졸업한 문영철 동문이 참가하여 더욱 의의가 있었다.

전응상 (공대 52년 졸) 동문

동창회 발전 기부금 200달러 출연

1952년 공대화공과를 졸업한 전응상 동문이 뉴욕지구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찬조금으로 200달러를 기증하였다. 전동문은 전에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할 시에도 서울대동창회를 위하여 많은 공로

가 있었으며 뉴욕으로 이사온 후에도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남모르게 공헌하였다. 그는 현재 은퇴하여 1년 중 따뜻한 때는 뉴욕에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자체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다.

뉴욕지구 새 동창회원 명부 발간예정

뉴욕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회장 한창섭)는 새로운 회원 주소록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지금부터 5년 전인 1997년 4월에 최수용 당시회장의 노력으로 주소록을 발간한 후 지금까지 전혀 개정판을 내지 않아, 많은 회원들이 이사 또는 별세 등으로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번에 다시 새로운 주소록을 만들려고 한다고 한창섭 회장이 밝혔다. 한 회장은 새롭고 완벽한 회원주소록을 제작하는데는 무엇보다도 대

뉴욕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NY 지구의 모든 동문들은 각 단과대학동창회장이나 또는 뉴욕지구 총동창회사무실에 전화 (212-594-0493) 나 Fax (212-643-0479) 또는 e-mail: KPACOM@AOL.Com으로 새로운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그리고 e-mail 주소를 알려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한회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8월 31일까지는 발간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뉴욕지구 동창회 회원 명부 자료 모집

금년 8월에 간행 예정인 뉴욕지구 동창회 주소록자 개별 동문들의 자료내용-성명, 전공학과, 입학/졸업년도, 자료내용, 주소, 전화, 팩스와 이메일 주소-를 곧 뉴욕지구 총동창회(사무실 전화 212-594-0493, 팩스 212-643-047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자료마감 : 7월 말일까지).

◆남가주 주소변경 동문

- ◇최예섭 (Ye Sub Choi, 차대 49년 입학)
800 N. Taylor Ave. Montebello CA 90604 Tel 323-722-2258
- ◇박한영 (Han Young Pak, 차대 56년 입학)
10921 Wilshire Bl # 501,

- estwood CA 90021 Tel 310-443-3030
- ◇김진진 (Kun Jin Kim, 문리대 62년 입학)
21040 Tomlee Ave, Torrance CA, 90503 Tel 310-316-2350
- E-Mail Kunjin Kim @ Yahoo. Com H.P 213) 321-3717

뉴잉글랜드 소식

서울대 동창회 음악회 5월1일 저녁 7시30분

서울대학교 동창회 뉴잉글랜드 지부(지부장: 이재신, 공57입)는 2002년 5월 1일 저녁 7시30분에 Brookline에 있는 St. Paul's Episcopal Church에서 자선음악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 음악

회에는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중견 음악인 violin에 황보영동문 (음65입), piano에 변화경동문(음66입), cello에 김이선동문, soprano에 조그레이스동문 등이 출연함으로써 한인 최고 수준의 음악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년 열리고 있는 본 음악회는 이번이 제 4회로서 뉴잉글랜드 지역 교민에게 격조높은 음악을 선사하고 아울러 지역 한인단체를 돕기위한 자선금 모금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투고자 변종원 동문)

NE 동창회 장학생 4명 선발

뉴잉글랜드지부 동창회는 지부 연례 사업 중의 하나인 지부 동창회 장학생 4명을 선발하여 학생당 장학금 \$500을 장학증서와 함께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정기 총회에서 지급하였다. 이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들의 학업열을 고취시키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응모 자격은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계 학생으로 대학진학 예정 고교 졸업자를 포함 대학원 학생이다. 한병의(문 60) 장학위원장은 2002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많아 4명만을 선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장학금 전달식에서 말하였다. 다음은 선정된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정아(여), Ph. D. Candidate, Organ Performance 전공, Boston University 음대 Ph. D.

서대정 (남), Master Program, Majoring in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Design, Harvard University 건축설계.

최선혜 (여), Junior, Molecular Biology 전공, University of Michigan학부 3학년.

신성혜 (여), High School Senior, Andover High School, Senior Johns Hopkins University 지원자.

수상자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장학생 선발에 얽힌 美談
한편 금년도 장학생 선발에 얽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두 동문의 따뜻한 마음씨를 여러동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병의 동문**은 장학기금 모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500을 먼저 기탁하여 다른 동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한편 장학금 지원자 중 모든 자격으로 보아 선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나 추천서 하나가 미달하여 심사에서 제외된 학생이 있다는 말을 한병의 위원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지부 회장 **이재신 동문**(공57)은, 별도로 금일봉을 익명으로 이 학생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재신 동문은 또 "학생도 장래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있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글도 보냈다. 이번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이 두 동문들의 誠心은 서울대인이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美談이라 하겠다.

(투고자 윤희경 동문)

자랑스러운 동문들

송인정 (음대 95입) 동문

Cello 연주회

지난 4월 2일 Boston University Concert Hall에서 송인정 동문은 그간 연마한 절묘한 솜씨로 "Sonata in G minor, OP.19" 등의 주제로 Cello 연주 독주회를 가졌다.

고요한 물살을 가르듯이 잔잔한 파도의 선율을 묘사하면서 가벼운 감상으로 지나간 "Sonata in D major"에 이어서 "Suite No.4..."에서는 마치 부드러운 선율과 음향이 가슴을 파고들듯, 또한 한 마리의鶴이 길게 내려를 펴고서 허공을 나르듯 시원스러운 장관을 묘사하여 주었다.

잠시의 휴식 후에 계속된, "Sonata in G minor..."에서는 웅숙한 한 음악인(maestro)의 技倆을 발휘하여 차분하면서도 격정적인, 마치



폭풍우와 빠져린 사랑의 고독을 함께 엮어 놓은 듯 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묘한 喜悅과 고통으로 휘몰아치는 연주를 하여주었다.

송인정 동문은 예원예중, 서울예고 졸업 후, 서울음대를 거친 후,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Lawrence Lesser의 지도하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는 Boston University에서 Michael Reynolds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을 수료중이다.

(투고자 윤상래 특과원)

시카고 소식

제1차 시카고 지역 동창회 이사회

2002년도 제 1차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이사회가 Lincolnwood에 소재해 있는 Radisson Hotel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저녁 식사 전에 회의를 먼저 마치는 한재은 회장의 말씀에 따라 6시 45분에 시작하여 일사천리로 김동희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재은 회장으로부터 조석제 동문 추모의 간단한 묵념과 약력소개가 있었고 이어 "이사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감사"하는 치하로 시작하여 그 동안의 동창회 운영에 관한 간단한 보고가 있었다. 그에 이어 醫師이신 한재은 회장은 참석 동문들을 위하여 "일반건강의 주의사항"을 열거하였다. 특히 연례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장에서 가장 중요한 liver, stomach, 소/대내장, colon, bladder등 특히 여자분들의 breast, lung, eye 등에서 발생하는 cancer 예방에 대해서 매우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이어서 한회장은 2002년 임원진 소개를 하였으며 모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지역 동창회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현이사 소개는 수석 부회장 장기남(사진)동문이 하였으며 특히 "한번



제1차 이사회 전경.

이사업"으로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다고 하여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한재은 회장은 2002년-2004년 신입 이사 소개, 추천 및 인준을 받았으며 이승자 총무(사진)가 상정한 2002년 행사계획안 상정을 만장일치로 인준 받았으며 이어서 김영 재무의 예산안 상정 및 인준도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박종희 장학기금 관리위원장의 장학기금 현황 보고에 이어 한재은 회장의 사회로 장학생 선발위원 인준, 장학기금 관리위원 인준 및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평의원 선출 및 인준이 있었다.

저녁식사를 하고 회의를 끝내자는 조대현 전회장의 건의로 만장의 찬성 박수를 보내며 식사를 즐겁게 끝내었다.

끝이어 한재은 회장의 사회로 차차기 회장 선출위원회에서 수고하실 7분의 위원을 선택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구경회동문(사진)은 재미 총동창회 현황을 보고하고 6월 15일과 16일에 있는 평의원회에 있을 만찬과 Golf 합동 행사에 많은 동문의 참여를 바란다

고하고 6월 15일과 16일에 있는 평의원회에 있을 만찬과 Golf 합동 행사에 많은 동문의 참여를 바란다 고 하였으며 또 시카고 동창회의 예산에 미주 총동창회 보조금 \$4,000이 포함된 것을 감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한국 총동창회 신입 임광수 회장님과 모교의 이기준 총장님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사항에서는 장학생 선발에 대한 토의가 있을 후 부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제 1차 이사회가 8시 30분에 폐회되었다.



총동창회 사무총장 구경회동문(사진)은 재미 총동창회 현황을 보고하고 6월 15일과 16일에 있는 평의원회에 있을 만찬과 Golf 합동 행사에 많은 동문의 참여를 바란다 고 하였으며 또 시카고 동창회의 예산에 미주 총동창회 보조금 \$4,000이 포함된 것을 감사한다고 전했다.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



2002년도 행사 계획

- ◇1월 12일(토)제 1차 임원회한재은 회장대
- ◇3월 23일(토)제 1차 이사회Radisson Hotel, Lincolnwood
- ◆5월 11일(토)제 2차 임원회김동희 부회장대
- ◆6월 14일 -16일미주 총동창회 평의원회
- ◆6월 16일(일)춘계 Golf Outing
- ◆6월 22일(토)PicnicBusse Grove #12
- ◇9월 7일(토)학생 동문 환영회
- ◇9월 7일(토)제 3차 임원회, 장기남 수석 부회장대
- ◇9월 일자미정지역사회 봉사활동
- ◇9월 21일(토)추계 Golf Outing
- ◇10월 5일(토)제 2차 이사회
- ◇11월 2일(토)제 4차 임원회, 황치용 부회장대
- ◇11월 30일(토)총회 및 연말 Party

2002년도 지역동창회 理事 93명

- 1) 2001년도 당연직 이사(15명)
 - 한재은(의, 회장) 장기남(문, 수석부회장) 김동희(공, 부회장) 황치용(문, 부회장), 김영자(간) 박홍근(공) 유태원(농) 최길용(문) 송원희(미) 지명식(사) 광영로(수) 이기춘(약) 김선영(음) 노영일(음) 이철주(치)
- 2) 2000-2002년도(29명)
 - 강영국(수)강창만(의)김봉현(법) 김사직(상)김운경(치)김이순(공) 김정주(문)김태기(의)김현규(의) 김호범(상)반용균(의)배건재(공) 송순영(문)송재현(의)심기창(문) 유우중(의)이강업(문)이기억(문) 이병주(상)이승자(사)이화영(공) 임근식(문)임현재(의)전현일(농) 조철원(문)진관보(의)최길용(문) 최순분(간)최순용(문)
- 3) 2001-2003년도 (29명)
 - 강수상(의)구행서(공)김광제(문) 김동희(공)김석화(약)김윤범(의) 김윤태(의)김인원(의)노재욱(의) 문병훈(사)박홍근(공)배영섭(의) 소진문(치)송원희(미)양호승(농) 오병진(의)육길원(사)이용락(공) 이유모(농)이철주(치)장기남(문) 전경철(공)정광훈(공)정승규(공) 조대현(공)조중행(의)최호승(사) 한의일(공)한재은(의)
- 4) 2002-2004년도(30명추천)
 - 강화영(문)구경회(의)김길중(의) 김선영(음)김선철(의)김윤하(공) 김해중(의)김현욱(문)노영일(의) 박 숙(의)박영규(농)박창만(공) 서승환(치)신석균(문)오수황(의) 윤덕상(치)윤석환(치)이광선(의) 이소정(음)이수인(의)이승훈(공) 이영우(문)이흥미(약)임이섭(미) 장윤일(공)정지희(문)정 호(공) 최일주(공)한종하(의)황치용(문)

시카고지역 동창회 2002년도 예산안

| 수입 | 2002년 예산 | 2001년 결산 |
|----------------|-----------|-----------|
| 동창회비(\$30*130) | \$ 3,900 | \$ 3,980 |
| 이사회비(\$200*70) | \$14,000 | \$ 14,200 |
| 후원금 | \$ 2,000 | \$ 120 |
| 은행이자 | \$ 400 | \$ 650 |
| 계 | \$ 20,300 | \$ 18,950 |

| 지출 | 2002년 예산 | 2001년 결산 |
|--------------------------|---|----------|
| Newsletter | \$400 | \$1,104 |
| 신문광고비 | \$1,000 | \$570 |
| 이사회 비용 | \$4,100 | \$4,546 |
| 사무용품 | \$1,000 | \$1,117 |
| 인쇄 및 우표(관약지포함) | \$1,600 | \$707 |
| 경조사 | \$500 | \$150 |
| 세무보고 | \$400 | \$400 |
| 미주총동창회 보조 | \$4,000 | \$4,000 |
| 한국총동창회 보조 | \$1,100 | \$1,100 |
| 위원회비용 | \$500 | \$489 |
| 예비비 | \$500 | |
| 지역사회보조 | \$1,000 | \$1,000 |
| 신입학생환영 | \$300 | |
| Website | \$500 | \$316 |
| Spring Golf | \$100 | \$96 |
| Fall Golf | \$100 | \$228 |
| Picnic | \$1,200 | \$1,152 |
| Year-End Party | \$500 | \$89 |
| Loan to Scholarship Fund | | \$4,000 |
| 계 | \$18,800 | \$21,064 |
| Balance for 2002 | | \$1,500 |
| Balance from 2001 | \$21,030(including loan receivable from scholarship fund) | |

獎學 위원회 구성

장학생 선발 위원(2년직) : 유임위원(2001-2002):서승환(치) 설상수(문) 진관보(의) 임이섭(미) 이강업(문) 신입위원(2002-2003) : 김광제(문)

김선영(음) 양홍미(약) 최호승(사) 한의일(공) 장학기금 관리위원(3년직) : 유임위원(2000-2002):박종희(의) 위원장, 김용주(공), 장기남(문) 신입위원(2002-2003):이철주(치), 박영규(농)

재미 총동창회 시카고지역 평의원 명단(3년직)

재미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평의원 : 회장:한재은(당연직), 수석부회장:장기남(당연직), 1999-2001: 최일주(공), 2000-2002: 소진문(의), 2001-2003:송재현(의), 2002-2004:강화영(문)

차기 회장 선발 위원회 구성

조대현(공)위원장, 박영규(농); 구경회(의), 최일주(공), 최길용(문), 최호승(사), 오수황(의)

모교소식

제56회 학위수여식

총 5천6백66명 학위 받아

李총장 "리더십 갖춘 지성인으로 거듭나길"



모교(총장 李基俊)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2001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金在淳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林光洙수석부회장, 鄭哲圭·尹勳煥부회장, 관악회 金秉順이사,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權彝赫·李賢幸·鮮于仲皓 전임 총장과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 閔相基대학원장, 李喜祥기성회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柳佑益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4백47명, 석사 1천8백42명, 학사 3천3백77명 등 총 5천6백6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李基俊총장은 식사를 통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리더십,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리더십을 갖춘 지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 金在淳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으니, 21세기에는 서울대인들의 기골, 정력, 재능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가도록 분발하자』고 역설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이어 음대 성악과 朴世源교수가 축가로 「희망의 나라로」를 선사했으며, 졸업생을 대표해 음대 작곡과 金棼女양이 인사를 했다.

특히 이날 졸업식에서 지난 1975년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집회 도중 할복 자살한 金相眞(당시 농대 축산과 4년)씨에게 지난해 朴鍾哲씨에 이어 민주화 운동 관련 두 번째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또 동구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폴란드 여학생 안나 이자벨라 파라둡스카(언어학)양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에도 능통한 안나양은 새 학기부터 사대 부설 한국어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계획이라고.

또 생활과학대 소비자자동차부를 졸업하는 吳周禧양은 모교 개교 이래 최초로 3개 전공(소비자자동차, 경영학, 경제학)을 이수한 기록을 세웠다.

전체 16개 단과대 중 9개 단과대에서 여자 수석이 배출됐으며, 전통적으로 여학생이 적은 법대, 의대, 치대에서도 여학생이 수석을 차지했다.

각 단과대학별 수석과 차석 졸업생에 대한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시상식이 거행됐으며 수상자

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김재경-김연미 △사회대 : 이정아-오주용 △자연대 : 우지철-김지훈 △간호대 : 우효남-고수희 △경영대 : 이승일-홍명주 △공대 : 남성우-박욱 △농생대 : 강경수-이미화 △미대 : 김은형-박지나 △법대 : 김영란-전재민 △사대 : 이소영-유명은 △생활대 : 박유정-이수희 △수의대 : 정진영-박건택 △약대 : 최권희-박선희 △음대 : 김정녀-정보나 △의대 : 김은기-이민정 △치대 : 하춘여-이주리

"신입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교 200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6일 거행돼 동창회는 5천6백66명(학사 3천3백77명, 석사 1천8백42명, 박사 4백47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 수는 27만4천5백69명(준회원, 단과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 및 동창회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 | |
|---------------|-------|---------|
| 구분 | 2월 졸업 | 총회원 |
| 인문 대학 | 210 | 8,485 |
| 사회과학대학 | 361 | 10,904 |
| 자연과학대학 | 183 | 8,457 |
| 가정 대학 | 86 | 3,226 |
| 간호 대학 | 59 | 2,990 |
| 경영 대학 | 205 | 5,089 |
| 공과 대학 | 777 | 34,663 |
| 농생명대학 | 300 | 18,124 |
| 문리과 대학 | - | 9,731 |
| 미술 대학 | 109 | 4,260 |
| 법과 대학 | 221 | 14,111 |
| 사범 대학 | 323 | 22,783 |
| 상과 대학 | - | 6,723 |
| 수의과 대학 | 37 | 1,957 |
| 약학 대학 | 81 | 5,549 |
| 음악 대학 | 143 | 6,239 |
| 의과 대학 | 188 | 9,906 |
| 치과 대학 | 94 | 5,399 |
| 대학원 | 2,126 | 63,757 |
| 경영대학원 | - | 701 |
| 교육대학원 | - | 653 |
| 보건대학원 | 59 | 2,602 |
| 사범대학원 | - | 508 |
| 신문대학원 | - | 264 |
| 행정대학원 | 43 | 3,742 |
| 환경대학원 | 61 | 1,789 |
| 소계 | 5,666 | 252,612 |
| 준회원 | - | 13,338 |
| (단과과정) | - | 8,619 |
| 총계 | - | 274,569 |

은 다음과 같다.

高永根(국어국문학)교수, 朴熙鎭(영어영문학)교수, 崔淳鳳(독어독문학)교수, 鄭智榮(불어불문학)교수, 李炫馥(언어학)교수, 吳麟錫(서양사학)교수, 金璟東(사회학)교수, 金載周(통계학)교수, 李敏浩(물리학)교수, 張浚成(물리학)교수, 權寧命(생명과학)교수, 朴龍安(지구환경과학)교수, 朴英一(농생명공학)교수, 禹建錫(농생명공학)교수, 尹明老(서양화)교수, 李好珽(법학)교수, 崔基元(법학)교수, 林承權(교육학)교수, 朴承載(물리교육)교수, 張楠基(생물교육)교수, 李殷芳(약학)교수, 李純炯(의학)교수, 李種昕(치의학)교수.

高永根교수 등 23명 정년퇴임



지난 2월 28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李基俊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퇴임한 교수 명단은 다

金在淳회장 졸업축사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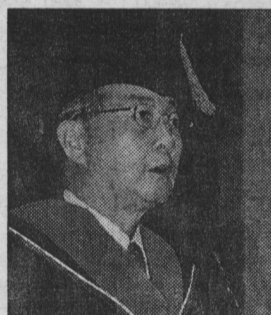


전쟁과 혁명의 20세기는 가고 물리, 화학 시대에서 Bio와 IT가 주역이 되는 21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IT혁명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지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일으킨 인류역사 초유의 세대혁명임을 통감합니다. IT혁명의 물결은 「개인」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겹겹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온갖 장벽-국적이며, 국경이며, 연령, 성별, 계층 등을 뛰어 넘어 개인의 힘이 지금보다 몇 배, 몇 승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움직여가는 원동력은 바로 개인의 선구성, 창의성, 사명감에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삶의 보람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은 나라로서의 힘이 없어

李基俊총장 졸업축사 요지



서울대학교는 해방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겨레와 함께 영광의 역사를 개척해 왔습니다. 이 나라 각 분야에서 활약해온 수많은棟樑들을 배출해냄으로써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여 왔으며, 여러분들이 활동하게끔 금세기에도 그 역할은 결코 축소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대학은 권위적인 시스템의 보호에 의해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끊임없는 변화의 역동적 추동력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성과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취임 이후 서울대학교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이를 실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학문적 수월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졸업생을 배

국권을 잃기도 했었고, 가난에 찌들어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오기도 하였으나, 21세기에는 하늘이 준 우수한 자질을 거리낌 없이 뽐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라 안에서 立身出世에 몸과 마음이 매일 것이 아니라,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 젊음을 불사르십시오! 큰 인물, 세계적인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 체육인-오직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國格이 있으니, 21세기에는 우리 서울대인들의 기골, 정력, 재능으로-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가도록 분발 또 분발하십시오. 큰 역사가 문명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 서울대인들이여 분발하십시오.

서울대인이 이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별들은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동문들이 떼지어 德性을 보이면 큰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인은 조국 앞에 무한책임이 있다』-이는 우리 동창회의 모토입니다.

21세기를 향해서 冠岳의 문을 나서는 동문들에게 영광있으라!

출하기 위해 세계일류대학의 제도, 전략, 인프라를 벤치마킹하고, 2010년까지 세계 40위권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재임한 지난 3년간 서울대는 국제무대에 나서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국내 제일이라는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쓴 자기 성찰과 아픈 개혁을 통해 국제무대로 나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연구와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을 받아들이고, 그에 기초하여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며, 궁극적으로 학문의 발달에 기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계인사들로 구성된 최고자문위원단은 적절한 대학운영체제의 개발,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자원의 확보와 예산 독립의 세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본인은 불확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지배하는 변혁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크나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학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모교 대학신문(주간 裴永洙교수)은 지난 2월 4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본회 金在淳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林光洙수석부회장, 李聖秀·李達雨·洪性大 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관악회 鄭八道·李炯均·金秉順이사, 모교 趙完圭전임총장,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 鄭正佶대학원장, 金基善학생부처장, 자연과학대학 朴聖炫학장, 함춘프레스클럽 任孝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5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가졌다.

裴永洙주간의 「대학신문」 연혁 소개에 이어 李基俊총장은 기념사에서 「밝은 미래사회를 지향하며, 자유를 위협하는 비판 세력에게 일침을 가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지성지가 바로 대학신문」이라며 「모교가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대학신문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金在淳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대학신문」이 대학 교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교수와 학생 그리고 모교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되돌아보자」고 강조했으며,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자매체를 대표하는 신문이야말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켜가며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했다.

또 1960년대 대학신문 기자로 활동한 함춘프레스클럽 任孝彬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50년 뒤에도 대학신문이 그 소명을 다하고 있을지, 모교는 언론이 잘 정착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우리 모두가 대학신문을 사랑하며 잘 지

켜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은 裴永洙주간에게 대학신문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의 지원비를 전달했다. 또 모교 李鍾祥박물관장은 진리 추구와 정론으로 지켜온 「대학신문」의 반 백년 역사를 기리는 의미로 수목화를 기증했다.

이어 대학신문사 발행인 및 주간, 함춘프레스클럽 회장, 총동창회 회장단 등이 대학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루떡 접단식을 가졌다.

발행인, 교수, 재학생을 포함해 38명의 인원이 만들어가고 있는 「대학신문」은 1952년 2월 4일 타블로이드 4면으로 출발해 1974년 국내 대학신문으로서 최초로 매주 8면 발행을 시작했으며, 1988년 국내 대학신문 가운데 최초로 가로쓰기 편집 전환 및 전산편집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 나라 대학신문을 선도해왔다.

또 1956년 당시 5·15 대통령 부정선거를 비판해 신문을 회수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으며, 1980년 5월 12일 「개교 35주년 대학축전 강행과 반대 속에 끝나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인해 기자 전원이 사퇴 당하는 일 등을 겪으며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한편 「대학신문」은 대학언론 및 대학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토론하게 될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학신문 50년사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신문 창간 50주년 金在淳회장 격려사
대학신문은 대학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大學新聞 創刊 50周年을 맞으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또는 앞으로의 50주년을 내다보는 意義깊은 時點에 서있음을 느끼게 된다.

大學新聞도 Journalism의 Category에 屬함은 물론이다. Journalism, Journalist는 知識있는 사람들, 즉 모든 종류의 지식인, expert, 專門家에게 思考를 獨占시키지 말고, 一般 大衆에게도 未來의 重要한 선택에 관해서 자기의 意見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Journalist와 知識人의 對話는 아마도 市民生活을 革新하는데 하나의 條件이리라. 그것은 精神의 自由에 끊임없이 威脅을 미치는 모든 權力과 對抗하여 思想의 獨立을 옹호하는 行爲이기도 하다.

그래서 Journalism의 精神에는 해서는 안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 權力에 아부하는 것. - 大衆에 영합하는 것.

Mass-Com은 權力과 거리를 두고 緊張關係를 지키면서 自己檢證이 필요하다. 歷史의 證言者로서의 資格을 自身에게 물어가며 歷史에서 배우며 未來에의 길을 더듬어 가는 것을 讀者, 시청자와 더불어 생각해야 한다.

한편 Journalism의 使命은 熱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쏘이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Journalism의 一般論을 머리에 두고 「大學新聞」이 걸어 온 지난날을 되돌아 볼 일이다. 大學은 무엇하는 곳인가-언제나 그 原點을 忘却해서는 안된다. 쉽게 말해서 大學-高等교육의 目的은 叡智와 德性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는 人生의 目的이기도 하다. 그동안 「大學新聞」은 이러한 大學의 原點에 充實하였던가. 大學교육에 얼마나 奇異를 했다고 自認하는가.

大學新聞이 教授와 學生-그리고 學園 분위기 조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던가.

교수-平凡한 教師는 그저 지껄인다. 좋은 교사는 잘 설명한다. 훌륭한 교사는 스스로 해보인다. 그리고 偉大한 교사는 마음에 불을 지른다.

學生들은-서울대가 世界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제일 卒業하기 쉬운 大學이라는 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大學新聞」은 이러한 學園 분위기에 관심을 표한 일이 있는가. 그동안 大學新聞은 學園의 自由, 學究의 自由에 어떤 공헌을 하였던가.

大學新聞이 權力의 御用 역할을 한 일은 없었던가. 한편으로 이른바 「運動권」에 탐닉하여 balance를 잃은 일은 없었던가.

「나는 너의 見解에 찬동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의 意思를 표현할 수 있는 自由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리라」- 이는 2백50年 前에 Voltaire가 한 말이지만 적어도 民主主義 50年을 경험해 오면서, 韓國의 知性은 이 정도의 水準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民主主義 教育이 追求하는 것은 教育의 기회균등이지 教育內容의 準準 또는 均質性이 아니리라.

교육이란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의 手段이기도 하다. 國家운영과 教育은 언제나 같이 간다. 오늘날 世界情勢 속에서 우리나라의 國家운영이 지금 이대로 좋을 것인가. 「民族의 大學」이라고 하지만, 그 內容은 어떤 것인가. Program은 만들어져 있는가. 있다면 교수나 學生들 중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學窓時節에 가질 수 있는 特典은 참다운 친구를 얻는 것이다. 古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東西古今의 偉大한 人物, 그리고 尊敬하는 教授, 同僚 들과 벗삼는 일이다. 이들과의 靈魂의 접촉-이 보다 더 尊貴한 財産은 없다.

끝으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여 後輩들에게 하는 激勵辭에 같음한다.

「내일, 내주, 내달,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예측하여 훗날 왜 그대로 되지 않았던가를 說明할 수 있는 能力을 키우라」

모교 병원

「기억 장애 클리닉」 개설

모교 병원은 기억력 장애와 초기 치매의 정확한 감별진단,

치료를 위해 신경정신과 외래에 「기억장애클리닉(담당:趙孟濟교수)」을 개설한다.

치매는 다양한 정신 증상으로 보이는 뇌질환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불면, 흥분, 망상 등 여러 가지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며 인격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노인성 질환이다.

특히 우리 나라 치매 원인의 약 6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초기 단계에는 약간의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우울감 등의 문제만 보여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조차 치매의 초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진단과 치료가 어렵다. 따라서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는 노인인 대한 정밀하고 포괄적인 진단과 치료 및 이론을 통한 치매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구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모교 병원의 기억장애클리닉은 기억력 장애, 초기치매의 정확한 감별진단과 치료 그리고

치매의 원인 규명과 치료에 대한 연구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개설된다.

기억장애클리닉에 환자가 내원하면 전문의 면담에 이어 심리학자에 의한 신경인지 기능의 평가가 이뤄지고 뇌영상 및 혈액검사 등 몇 가지 검사 소견을 종합해 담당교수가 환자와 보호자 교육, 약물처방을 하게 된다.

(기억장애클리닉-일시:매주 목요일 오전 9:30~12:00, 장소: 신경정신과 외래)

인턴·레지던트 모집
타대 출신 크게 늘어

모교 병원(원장 朴容暎)의 올해 인턴 및 레지던트 모집 결과, 지난해에 비해 타 대학 출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감된 올해 인턴 및 레지던트 모집 결과, 타 대학 출신 합격자가 인턴은 전체 1백72명 중 11명으로 6.4%를 차지해, 지난해의 1.44%(전체 합격자 139명 중 2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원자 또한 늘어나, 지난해는 2명이 지원한 반면 올해는 12명이 지원했다.

이같이 타 대학 출신 합격자가

사회과학대 학장에 鄭雲燦교수 취임

지난 2월 18일자로 사회과학대학 학장에 경제학부 鄭雲燦교수(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鄭雲燦교수는 1970년 모교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마이애미대에서 석사학위,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모교에 부임한 이후 금융발전심의위원, 경영평가위원장,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증가한 것은 레지던트도 마찬가지. 올해 합격자 1백54명 중 타 대학 출신자가 20명으로 12.99%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41명 중 10명으로 7.1%. 지원자도 올해는 30명이 지원했으나 지난해에는 11명이었다.

이는 더욱 우수한 의료인 선발 및 육성을 위해 올해 인턴 및 레지던트 선발시 타교 졸업자에게 문호를 본격 개방한 결과.

모교 병원은 그동안에도 매년 상당수의 타교 출신 인턴 및 레지던트를 선발해 현재 다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점차 타교 출신자가 증가하고 있다. (雙)

모교소식

2002학년도 4천1백58명 입학

李총장 “적당주의 버리고 대학생활 임해주길”



모교(총장 李基俊)는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을 비롯한 1백여 명의 교내 인사를 포함해 동경대 사사기 다케시(佐佐木毅)총장,

본회 林光洙수석부회장, 孔大植 공대동창회 상임부회장, 신입생, 학부모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학사보고, 신입생 선서, 기관

장 소개에 이어 李基俊총장은 식사를 통해 『신입생 여러분은 안일주의, 기회주의, 적당주의를 철저히 버리고 열과 성을 다해 대학 생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경대 사사기 총장은 축사에서 『21세기에는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사고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실천가가 필요하다』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悟性을 사용하는 용기를 배양해 21세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이후 순서로 오후 2시 학생처 주최로 문화관 대강당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다. 환영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초청기수로 김경호, 성시경 등이 출연했다.

2002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 결과는 수시와 정시전형을 포함한 3천7백93명, 정원의 학생입학전형 87명, 재외국민 41명, 특수교육대상 7명, 외국인 2백30명 등 총 4천1백58명이다.

간호대 洪京子학장 선임 생활과학대 金敏子학장



洪京子 학장

지난 3월 1일부터 간호대학장에 간호학과 洪京子교수, 생활과학대학장에 의류학과 金敏子교수가 선임됐다.

신임 洪京子학장은 1966년 모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美위싱턴대에서 석사학위,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3년 모교에 부임, 병원 간호과장



金敏子 학장

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 간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신임 金敏子학장은 1971년 모교 가정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美오레곤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모교에 부임, 학생담당부학장보, 의류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林光洙회장 대학신문 인터뷰

“명분 중시하는 선비의 기개 닦기를”

모교 대학신문 3월 25일자 제1572호에 본회 林光洙회장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지난 3월 21일 모교 대학신문 배정현·송재용기자가 임광도건 회장실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을 만나 신임 동창회장에 취임한 소감과 향후 동창회 운영계획 등을 물어보았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떻게 총동창회장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게 됐습니까? 동기가 있으신지요.

『서울대 총동창회장이라는 자리가 하고 싶다고, 또 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직책은 아니지요. 다만 제가 공과대학 동창회장을 맡아 공대인의 숙원인 「엔지니어하우스」를 완공하고, 또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을 2년째 맡아오면서 직분과 책무를 다하겠다는 초심을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헌신해온 점들이 아마 여러 동문들께 조그마한 믿음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학신문 송재용 기자 제공

더불어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20만 서울대인의 확고한 신념이 우리 대학의 교육자원과 환경의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또 이를 동창회 차원에서 후원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앞장 설 책임을 맡겼다고 봅니다.

—공대 출신으로서 작금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 대학은 물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산업화 시대에 기간산업을 일으키고, 또 IT 정보통신, BT 생명공학, NT 나노공학 등 21세기 첨단 과학기술과 신산업화 시대에 중추가 되는 사람들이 기초과학과 이공계 출신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된 채 국가경쟁력을 도모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특히 기초과학은 창조의 뿌리이며 번영의 샘입니다. 「과학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유치·양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학생은 물론 국민들도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국가, 사회 차원에서 과학기술과 이공계 출신들의 활동상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력과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병역해택, 장학금 지급의 대폭 확충, 우수 인력에 대한 해외유학과 연수 적금 지원,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 제고 등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취임사에서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깔고 서울대인을 휴먼리소스화 하여 모교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유용한 네트워크를 작동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에 직접 답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답할까 합니다. 저는 1952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공학도로서 제가 배우고 닦은 공부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간접자본 즉 SOC와 산업인프라 건설에 일생을 바쳐온 건설경영인입니다.

다.

이러한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모교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적자원은 물론, 국내외 20만 서울대인이라는 양질의 인적자산을 우선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입니다.

올해 중반쯤 발간될 「서울대 인명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인적자료를 집대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팅하여 「직업별·직장별 명부」도 함께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다원화·전문화·개성화되고, 글로벌라이즈 되는 시대변화는 물론, 국제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칭 「서울대 지적자원 봉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미 재미동창회 소속 동문들부터 먼저 학교 당국과 협의중이며, 그 발족을 준비하고 있음을 차제에 밝힙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인 시각과 함께 영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 정보화 시대의 컴퓨터 등 IT 능력을 배양하는데 선배들이 나설 것입니다.

—역시 취임사에 서번트 리더십에 관해 강조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그것은 바로 군림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또 실천하는 엘리트 를 말합니다. 그 요체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 즉 「고귀하고 지체가 높으면 높은 만큼 책임을 다 하라」입니다. 둘째, Sympathy :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제 사회적 약자는 물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라. 셋째, Listening : 계획과 방안을 강구하는데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진지하게 듣고 수렴하라. 넷째, Stewardship : 봉사하며 헌신하고 감사하라. 사랑하는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각 계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한겨레나 조선일보 등 각종 일간지에서 이른바 「서울대 문제」에 대해 많이 지적하는데 사회에서 서울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립대학이라는 특성과 한계 때문이었지만 모교는 예산, 인사,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경직적인 관료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수재를 모아서 둔재를 배출한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대 학생마저도 학교수업이 사회생활에 별 쓸모나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자평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과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모두는 뼈를 깎는 자성과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교가 미국이나 일본 우수대학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또 사사건건 교육당국의 규제와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특히 과학논문색인(SCI) 인용횟수는 지난 4년간 세계 126위에서 55위까지 오르는 등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동문들이 모교발전을 위해 힘을 합하기만 한다면, 또 우리 국민들의 깊은 이해가 함께 한다면 모교가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강하십시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다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력을 기르고 닦으십시오. 학생의 실력은 우선 공부와 연찬을 통해 지적 소양과 견식을 넓히고 깊게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와 여행,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 그리고 인간적 감성의 세계를 넓히십시오. 명분을 중시하는 올곧은 선비의 기개를 닦으십시오. 명분은 도의요 도덕이며, 원칙이자 순리입니다. 사회를 정화하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려면 우선 지식인의 도덕적 원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34회 정기총회

제19대 회장에 林光洙 동문 선출

吳仁錫·孫京植·黃禹錫 동문 「관악대상」 수상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3월 15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2002년 신입회원 환영회 겸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金在淳회장, 林光洙수석부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등을 비롯한 회장단과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 高柄翊·權彝赫·趙完圭·鮮于仲皓 전임 총장,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 鄭正偉대학원장 등 보직교수 및 동문 4백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金在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상이 걱정·상심되는 일이 많아 세상이 다 음산하게 보일 때도 없지 않지만, 아무쪼록 새로운 활력을 얻어 모교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동창회 일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모교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세계 일류대학의 제도, 전략, 인프라를 벤치마킹하고 세계 40위권 수준의 대학을 목표로 개혁사업을 추진해 국제 무대에 진입하려 한다』며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에서 참여 부문에 재미동창회 吳仁錫(62년 法大卒·모교와 후진을 위한 100만불 기금위원회 위원장) 명예회장, 협력 부문에 제일제당그룹 孫京植(61년 法大卒·모교 발전후원회 회장) 회장, 영광 부문에 모교 수의대 黃禹錫(77년 獸醫大卒)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소감 및 프로필 6면 참조)

본회는 이번 시상을 위해 지

난 1월말까지 20명의 후보자 접수를 받아서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 수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안전심의를 통해 제19대 신입 회장에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方孝宣감사의 후임으로 朱成民(73년 法大卒·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동문을 새로 선임하고 朴英俊감사를 재선임했다.

한편 부회장단 인선은 신입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으며, 전임 金在淳회장을 명예회장으로, 李聖秀(52년 師大卒·정책평가연구원장)·鄭元植(54년 師大卒·前국무총리)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林회장은 취임사에서 『개인적으로는 벅찬 감격과 무한한 영광을 느끼며, 동시에 동문 상호간의 유대와 결속을 다져나가는 한편, 모교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제한 후 『20만 동문들과 함께 우리 동창회를 명실상부한 모교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후원자가 되게끔 건강하게 운영하는 한편 인적, 물적 자산을 배가하여 실력을 갖추고 동창회 사업도 그 명분이 뚜렷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사 요지 참조) 金在淳명예회장은 퇴임 인사를 통해 『인생살이 본질은 고뇌와 웃음을 배우는 것이고 모든 사물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한 뒤 『지난 8년간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동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權彝赫 전임 총장의 건배사로 시작된 만찬 중에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본회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예·결산 요약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했으며, 만찬이 끝난 후 2001년도 결산 심의와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鮮于仲皓 전임 총장은 신입회원 환영사에서 『모교를 졸업한 것을 자랑이자 명예로 생각해야 하며, 그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중인 全幸民동문이 답사를 통해 『동문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서울대인의 위상을 지켜 나가고, 우리 뒤를 이을 후배들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하고 『서울대인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악대상 수상자와 신입 회장 선임을 축하하기 위해 모교 사대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李慶珠(69년 師大卒·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예능보유자)교수가 기획한 「꽃살풀이 북춤」을 선사해 참석한 동문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문 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뿌리패」의 흥겨운 공연을 끝으로 정기총회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작년에 이어 이날 총회에서도 두리비전(사장 李璣鍾·43기 AMP·13기 AIP)의 기술진이 행사 중계와 영상물 상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모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신포니아타단원들이 흥겨운 음악을 선사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 준비한 기념품(만보계)을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했다. (變)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신임 林光洙회장 취임사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속에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19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벅찬 감격과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문 상호간의 유대와 결속을 다져나가는 한편, 모교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학도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간접자본 즉 SOC와 산업 인프라(Infra) 건설에 일생을 바쳐온 경영인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공대 동창회장으로서 또 본회 수석 부회장으로서의 직분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초심을 간직하면서 누구 못지 않게 정열과 용기를 가지고 땀 준비가 되어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사회 인프라를 개발·건설해온 나름대로의 경영 경험과 안목으로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깔고, 서울대인을 휴먼리소스(Human Resource)화하여 모교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유용한 네트워크(Network)를 작동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20만 동문들과 함께 우리 동창회를 명실상부한 모교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후원자가 되게끔 건강하게 운영하는 한편 인적, 물적 자산을 배가하여 실력을 갖추고 동창회 사업도 그 명분이 뚜렷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점들은 식견 높은 여러 동문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기원하는 교직원 여러분들이 채워 주시리라 굳게 믿고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아래 동창회장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 그리고 영광이라는 동창회 운영의 기본방향을 살려, 서울대인 모두가 뜨거운 가슴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당연한 과제로서는, 무엇보다도 장학사업 확대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장학금을 대폭 유치하여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모교의 질실한 요망과 동문들의 염원을 충분히 수용하여 20만 서울대 동문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동창회관 신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칭 「동창회관 신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모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계 및 입지선정 등에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교가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각계 동문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대학발전을 위한 콘텐츠(Contents)를 가꾸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재미 서울대동창회가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00만불 모금 운동을 벌여, 지역관리 미주 지역 동문들의 출연과 약정, 유증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 때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군림하는 엘리트(Elite)가 아니라 진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엘리트(Elite)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내에 있는 동문들도 이와 같은 기운에 동참하여 베품과 나눔을 함께 하는 작은 실천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동문 여러분! 모교가 배출한 인재들이 과연 조국 앞에 응분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자신의 것을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차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다함께 뜻과 힘을 한데로 모아야 합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우리 나라가 산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기총회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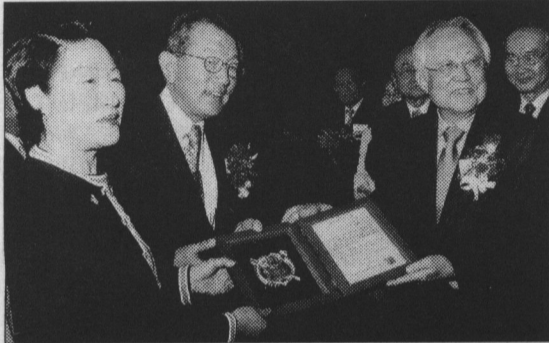
동문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함.



金在淳회장의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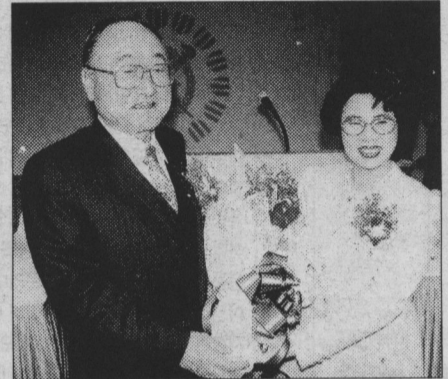
제19대 회장에 林光洙수석 부회장(右)이 선출됨.



재미동창회 吳仁錫명예회장(中)이 관악대상 참여상을 수상함.



李基俊총장의 인사말씀.



경원대 李吉女 총장(右)이 신임 林회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함.



제일제당그룹 孫京植회장(中)이 관악대상 협력상을 수상함.



權善赫 전임 총장의 건배제의.



鮮于仲皓 전임 총장의 신입회원 환영사, 全宰民 동문의 답사.



모교 수의대 黃禹錫교수(中)가 관악대상 영광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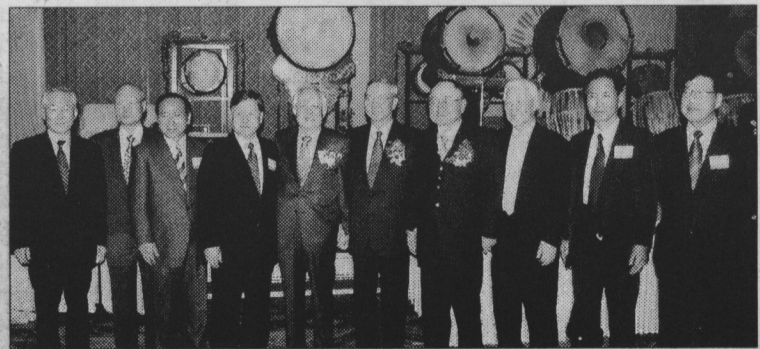
朴英俊감사의 동창회 감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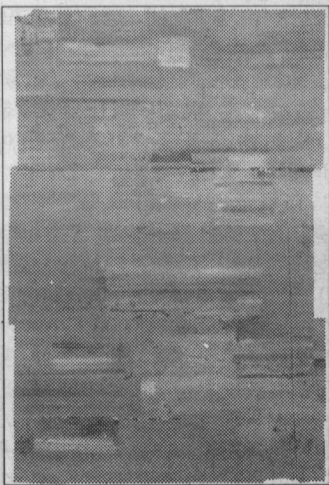
모교 사대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꽃살풀이 북춤」 축하공연.



전문 타악기 연주자 「뿌리패」의 축하공연.



정기총회 폐회 후.



「不二」, 한지, 수간채색, 아크릴, 142x210cm, 2002

미술작품 朴利善作

<작가약력>

- △ 76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 △ 90~2002년 개인전 6회
- △ 84~85년 동아전
- △ 86~92년 한국회화전
- △ 87년 서울현대 미술제, 33인의 초대전
- △ 88년 한국현대작가 12인전, 문스터시 초대 「동과 서의 만남」
- △ 91년 현대미술 한국성을 향한 제언전
- △ 93년 한중미협전, 유심회전, 새미전
- △ 2000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한국베트남평화전시회
- △ 현재 전업작가, 미술협회·새미회·비상전 회원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 지역 번호 | 지부명 | | 명 단 |
|-------|---------------------|-----|--|
| 01 | 남가주 | 336 | <p>김명자(\$ 100, 차대 57입) 현순일(문리대 58입) 최재윤(문리대 54입) 진선준(사범대 53입) 권이덕(음대 69입) 이창신(법대 57입) 김병목(의대 49입) 김광자(약대 62입) 신우천(차대 64입) 한홍택(공대 60입) 민희숙(간호대 74입) 정근희(의대 72입) 강일선(약대 44입) 전동희(공대 58입) 김광은(음대56입) 김원경(약대 59입) 정황(공대 64입) 최승규(간호대 65입) 김석구(공대 66입) 양은석(음대 70입) 이순희(음대) 김용선(의대 55입) 고재천(공대 37입) 김달준(약대 50입) 임화식(차대 59입) 권기홍(의대 60입) 최경윤(사범대 51입) 양효준(차대 68입) 최범식(차대 56입) 신무수(차대 63입) 고석규(차대 65입) 지인수(상대 59입) 백남하(의대 59입) 육중훈(상대 67입) 김구자(미술대 61입) 이중희(공대 53입) 방윤자(문리대 59입) 한혜순(간호대 70입) 노병일(경성법학 41입) 홍훈정(음대 70입) 송정자(의대 73입) 윤순재(사범대 60입) 김재부(상대 58입) 임동호(약대 55입) 호기원(차대 70입) 조상문(보건대학원 71입) 강경수(법대 58입) 채규환(법대) 권영덕(공대 54입) 정진화(약대 54입) 문철수(농대 50입) 김창덕(약대 53입) 임유택(약대 63입) 이우근(음대 50입) 나도명(차대 63입) 최무식(약대 70입) 방연희(간호대 59입) 이병희(수의대 75입) 김상익(공대 46입) 김현주(음대 88입) 이상욱(차대 66입) 이봉수(수의대 66입) 강정훈(미술대 56입) 김선기(법대 59입) 김두희(문리대 58입) 임창희(공대 73입) 김영배(미술대 61입) 도영미(사범대 52입) 김종원(문리대 69입) 김상용(사범대 50입) 송경자(미술대 61입) 김현직(농대 58입) 황보찬(문리대 48입) 정준성(공대 65입) 이주영(행정대학원 60입) 권순찬(공대 60입) 김태윤(법대 53입) 장진성(약대 66입) 황석우(의대 53입) 이명상(문리대 59입) 오재인(차대 33입) 박재호(차대) 안정희(미술대 62입) 김명수(차대) 강현호(사범대 58입) 조정시(공대 60입) 원광웅(공대 60입) 장인숙(간호대 74입) 채수안(사범대 73입) 최수명(문리대 59입) 이진영(공대 68입) 이태준(음대 62입) 장기선(간호대 54입) 나정자(간호대 70입) 최희봉(상대 56입) 김희창(공대 64입) 조동현(공대 66입) 윤석철(상대 60입) 이수남(차대 65입) 김창호(상대 57입) 김성호(법대 64입) 백만일(공대 64입) 박해옥(간호대 69입) 이창대(공대 60입) 김종현(공대 59입) 탁해숙(음대 67입) 서치원(공대 69입) 박상호(의대 65입) 김대우(차대 62입) 이상숙(차대 31입) 조성윤(법대 46입) 김원호(약대 63입) 서재선(상대 53입) 김창신(사회대 79입) 추준득(공대 69입) 한 일(의대 75입) 권혁창(법대 57입) 유진형(상대 48입) 유동희(공대 77입) 장동호(공대 53입) 최해명(미대 61입) 박경순(간호대 53입) 전희택(의대 60입) 김중자(사범대 61입) 김수백(차대 48입) 박범순(가정대 70입) 김상호(사범대 52입) 배운배(차대 66입) 이범식(\$100, 공대 61입) 이승희(간호대 47입) 강배영(상대 54입) 최명룡(음대) 신우식(차대) 박진득(농대 67입) 김정애(간호대 69입) 김동훈(의대 71입) 김정화(미술대 63입) 이상구(상대 57입) 윤용길(공대 55입) 한태호(문리대 75입) 김태웅(의대 63입) 김동성(음대 64입) 전낙관(사범대 60입) 이정열(간호대 68입) 김상엽(공대 57입) 강명식(의대 61입) 이동휘(공대 63입) 탁의용(상대 58입) 이상학(공대 59입) 박재인(약대 60입) 원영배(미술대 74입) 정동구(공대 57입) 이재선(농대 58입) 이범모(차대 74입) 이동일(의대 68입) 이완규(공대 54입) 박남수(문리대 74입) 오인근(의대 59입) 서정빈(법대) 이정근(사범대 60입) 박부강(사범대 64입) 이재우(음대 60입) 양은혁(상대 56입) 이해란(미술대 72입) 하영희(간호대 54입) 문일영(음대 66입) 김죽봉(문리대 53입) 임몽오(의대 57입) 신광재(공대 73입) 김준일(공대 62입) 이광연(상대 59입) 윤경민(법대 55입) 김동익(법대 57입) 김성해(음대 71입) 이홍표(의대 60입) 윤한돈(차대 69입) 김진호(의대 60입) 이정규(농대 69입) 김영기(의대 54입) 추교훈(농대 63입) 강신호(사범대 49입) 심진숙(간호대 68입) 주훈(음대) 김의창(의대 56입) 정전길(의대 49입) 김선명(공대 75입) 조용명(차대 54입) 최준호(차대 58입) 김동산(법대 59입) 차민영(의대 78입) 권치균(공대 51입) 배재호(공대 58입) 정동주(가정대 72입) 이계식(공대 78입) 김용채(문리대 61입) 남정우(차대 48입) 나병철(자연대 84입) 이대영(의대 68입) 김세담(법대 55입) 김창섭(약대 44입) 김순덕(법대) 김지익(의대 44입) 고용규(의대 67입) 박해란(음대 73입) 이기풍(상대 54입) 김석기(상대 56입) 박영순(음대 44입) 김정현(차대 59입) 윤병인(의대 64입) 심영춘(수의대 64입) 김생철(법대) 오양숙(의대 60입) 공성식(경영대 89입) 김재영(농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김종표(법대 58입) 이호경(차대 63입) 이상휘(농대 66입) 신관경(약대 36입) 심상은(상대 54입) 정동구(공대 61입) 이승우(농대 67입) 구자란(농대 72입) 박계영(공대 57입) 강진진(문리대 60입) 구철희(의대 78입) 박태호(차대 66입) 김성환(의대 71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호준(공대 55입) 정현진(간호대 72입) 김인영(공대 58입) 안승호(공대 71입) 민경택(의대 61입) 신대식(상대 60입) 정원훈(상대 38입) 이현세(법대 68입) 이실홍(의대 42입) 박명근(상대 63입) 우원섭(차대 65입) 이건설(차대 54입) 홍진(간호대 55입) 한중철(차대 62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이상호(의대 72입) 이기준(법대 54입) 하기환(공대 66입) 이종무(간호대 73입) 정기상(상대 69입) 박선희(가정대 81입) 이종도(공대 66입, \$100) 신정식(상대 64입) 노명호(공대 61입) 김옥자(음대 56입) 이기재(사범대 52입) 김연선(미대 57입) 이영승(차대 63입) 전병희(약대 55입) 장진성(약대 66입) 권중건(차대 65입) 김설희(공대 71입) 박영근(상대 56입) 최종권(문리대 59입) 김기은(음대 66입) 이환진(상대 68입) 임재영(공대 59입) 김용일(보건대학원 65입) 허영석(미대 67입) 김현경(차대 56입) 최승룡(상대 53입) 장대욱(음대 57입) 이영식(농대 59입) 김승철(사범대 56입) 김해인(가정대 69입) 박인희(간호대 67입) 서중용(공대 57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복근(사범대 69입, \$100) 한영옥(차대 56입) 김동호(차대) 이병국(수의대) 신인자(문리대 59입) 곡철(법대 64입) 김원탁(공대 65입) 이재자(수의대 45입) 김대평(문리대 63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임낙규(약대 64입) 윤홍기(의대 64입) 문원철(사범대 59입) 이영주(차대 62입) 박임하(차대 56입) 장정용(미대 64입) 김은희(차대 50입) 이호일(의대 60입) 박호웅(약대 63입) 권봉성(문리대 64입) 오수남(의대 5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김태윤(법대 53입) 박일진(차대) 서동영(사범대 60입) 최덕순(간호대 59입) 권순철(차대) 신동국(수의대 76입) 임선영(음대 57입) 임문빈(상대 58입) 김교복(농대 63입) 이동성(의대 53입) 이태재(법대 53입) 김성웅(농대 70입) 엄세욱(간호대 69입) 서관석(미대 67입) 허영진(문리대 62입) 양명교(의대 55입) 이수복(약대 70입) 홍주안(공대 66입) 김홍기(사범대 58입) 문덕수(공대 73입) 이근실(상대 56입) 정광진(농대 76입) 최예섭(차대 45입) 김재신(음대 60입) 박취서(약대 60입) 강영빈(문리대 5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광근(차대 59입) 오길평(차대 61입) 김진호(약대 64입) 강항운(농대 52입) 이규호(문리대 59입) 신정자(사범대 63입) 권길상(음대 46입) 김용삼(음대 49입) 윤진수(의대 57입) 장동식(문리대 66입)</p> |
| 02 | | 1 | 김항자(약대 61입) |
| 03 | 샌프란시스코 | 8 | 박세복(\$100, 의대 57입) 김양주(공대 48입) 김이호(상대 55입) 황동하(의대 65입) 정유석(의대 58입) 정지선(상대 58입) 정조웅(공대 60입) 김은종(상대 59입) |
| 04 | 뉴욕 (NY, NJ, PA일부CT) | 262 | <p>오영식(법대 72입) 고애자(음대 57입) 이덕인(미술대 60입) 문미애(미술대 56입) 한용진(미술대 56입) 손광호(의대 59입) 윤성수(공대 71입) 박경숙(간호대 72입) 이현호(공대 58입) 김기훈(상대 52입) 추재욱(의대 63입) 고순정(간호대 69입) 김훈(의대 65입) 배상규(약대 61입) 이미령(미술대 83입) 조숙자(간호대 59입) 이선호(의대 75입) 용하식(법대 58입) 박고자(음대 61입) 이강홍(상대 60입) 우한호(문리대 61입) 김진승(문리대 53입) 최구진(약대 54입) 김현중(공대 63입) 이필영(사범대 54입) 김주은(공대 71입) 김형덕(상대 57입) 이정자(간호대 63입) 최용열(문리대 72입) 김기웅(차대 49입) 유정자(간호대 68입) 전민욱(간호대 66입) 김익성(상대 52입) 최철용(농대 61입) 허재순(사범대 54입) 배명애(간호대 45입) 김기훈(상대 52입) 최한선(공대 56입) 나연수(사범대 53입) 정순자(음대 63입) 성백문(공대 61입) 정기봉(사회과학대 79입) 전원일(의대 83입) 고희진(의대 66입) 장동만(문리대 61입) 선종철(의대 57입) 김세중(공대 50입) 이종성(의대 64입) 이대연(약대 65입) 선우지민(약대 54입) 조문혜(약대 59입) 양문석(\$100, 상대 54입) 김용연(문리대 63입) 최수봉(간호대 66입) 진봉일(공대 50입) 이능석(의대 63입) 김태호(약대 63입) 민현(의대 55입) 송영순(사범대 60입) 동형근(의대 51입) 이영일(의대 60입) 김학수(상대 65입) 송용길(신대대학원 69입) 신남철(인문대 81입) 전용상(공대 46입) 연봉원(문리대 61입) 윤병남(\$100, 사범대 62입) 손갑수(약대 59입) 김양수(미술대 69입) 김한중(의대 56입) 김문경(약대 65입) 이상훈(법대 64입) 이강욱(공대 70입) 방정화(의대 61입) 김인형(미술대 59입) 김학자(간호대 59입) 최정애(간호대 66입) 이찬서(자연대 82입) 곡선섭(공대 61입) 최수용(상대 55입) 김용재(의대 60입) 김영희(사범대 62입) 송재한(의대 61입) 전재우(공대 75입) 조창현(문리대 66입) 이봉상(약대 59입) 엄종열(미술대 65입) 김영만(상대 59입) 박대규(사범대 55입) 유재은(미대 71입) 차국만(상대 56입) 이재제(상대 58입) 윤영선(의대 63입) 정택수(문리대 45입) 양순우(법대 71입) 김경빈(약대 54입) 장태환(의대 61입) 정연희(미대 64입) 유두영(\$100, 공대 66입) 서병선(음대 65입) 장기선(약대 61입) 홍선경(의대 58입) 임서태(법대 46입) 김준준(의대 52입) 이영숙(간호대 56입) 김정용(의대 67입) 송관호(의대 58입) 손영철(공대 68입) 양성훈(의대 71입) 이진수(의대 63입) 김호연(의대 46입) 강연선(공대 50입) 이우찬(의대 58입) 임공세(의대 63입) 조규웅(의대 66입) 김종원(사범대 62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찬명(약대 57입) 허병렬(사범대 42입) 권오근(상대 62입) 김용재(의대 60입) 최형무(법대 69입) 최종진(의대 58입) 김훈일(공대 60입) 조대영(공대 61입) 강호(음대 63입) 박소희(의대 49입) 고석원(문리대 60입) 이문자(간호대 70입) 조은래(법대) 이태서(공대 69입) 문길용(음대 45입) 이정은(의대 58입) 최윤희(문리대 56입) 이성근(의대 60입) 김영철(의대 55입) 임건식(음대 54입) 정인식(상대 58입) 김원복(문리대 50입) 이재진(의대 59입) 양명자(사범대 63입) 원도수(차대 68입) 김해암(의대 58입) 한용호(법대 52입) 장병호(의대 56입) 이기덕(농대 56입) 이기영(농대 70입) 김경순(상대 57입) 서재숙(음대 65입) 전병삼(약대 54입) 김현기(공대 62입) 최창식(의대 61입) 김종울(사범대 51입) 이국진(사대 51입) 윤순철(사범대 44입) 이종성(의대 58입) 변찬의(상대 63입) 유재섭(공대 69입) 박상원(음대 69입) 김영덕(공대 53입) 김희국(약대 54입) 민만기(공대 62입) 정진우(의대 72입) 노용면(의대 55입) 아홍호(의대 63입) 강재현(상대 70입) 이연찬(공대 52입) 선우문(의대 60입) 김세환(공대 65입) 최한용(농대 58입) 탁명양(약대 56입) 황문하(수의대 76입) 김충진(농대 68입) 김상각(상대 57입) 윤갑석(공대 53입) 김우영(상대 60입) 이현순(미대 60입) 김승관(의대 76입) 윤정욱(약대 50입) 김지익(의대 71입) 이재애(미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장수현(농대 80입) 윤인숙(간호대 63입) 변광록(간호대 63입) 백영복(간호대 69입) 김병술(약대 52입) 이재덕(법대 60입) 조상근(법대 69입) 조달훈(사범대 66입) 노경희(간호대 66입) 강석권(법대 61입) 변영철(의대 64입, \$100) 박경원(미대 66입) 최영태(문리대 67입) 정사열(법대 55입) 이성길(차대 66입) 허선영(의대 58입) 임은진(농대 46입) 이준우(의대 55입) 임종오(문리대 63입) 김순자(약대 60입) 호민선(상대 59입) 이시진(문리대 58입) 김규화(상대 63입) 이정순(법대 53입) 송기인(의대 60입) 정일화(상대 55입) 박창익(농대 64입) 백윤자(간호대 64입) 이상수(공대 60입) 신혜봉(약대 55입) 홍준호(의대 67입) 조종수(공대 64입) 이재원(법대 60입) 서종웅(약대 70입, \$100) 이경림(상대 64입) 손완배(농대 70입) 조경호(의대 66입) 성기토(약대 57입) 신규호(의대 68입) 이종오(의대 58입) 변영선(의대 65입) 이명희(의대 60입) 최일단(미대 55입) 박영태(상대 63입) 박순영(법대 56입) 조충영(의대 60입) 조성무(공대 56입) 김옥현(의대 59입) 서상철(의대 56입) 유호근(법대 71입) 김광호(의대 72입) 허병렬(사범대 42입) 한승원(미대 60입) 이종현(의대 60입) 서홍선(의대 65입) 김일하(차대 58입) 민발식(의대 66입) 최희웅(문리대 64입) 신정택(약대 52입) 이준무(음대 65입) 정현진(법대 63입) 백승원(의대 73입) 민준기(공대 59입) 석창호(의대 66입) 한영수(의대 61입) 유숙현(간호대 61입) 남일우(법대 57입) 윤현남(공대 63입) 장영자(간호대 68입) 전희근(의대 54입) 조희재(음대 58입) 박승균(의대 55입) 김창수(약대 64입) 남상래(간호대 65입) 차대웅(상대 54입) 최영혜(간호대 64입) 박장생(의대 54입) 이상민(문리대 58입) 홍정표(음대 67입) 주성문(의대 58입)</p> |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 지역 번호 | 지부명 | 명 단 |
|-------|-----------------------------|---|
| 05 | 시카고(IL, IN, WI, MO, MI, OH) | 175 노영일(의대 64인) 문조훈(의대 62인) 최길용(문리대 57인) 이치훈(의대 63인) 김갑조(간호대 51인) 장홍(문리대 61인) 구자원(법대 55인) 이소희(의대 61인) 노재욱(의대 64인) 진관보(의대 72인) 하용수(의대 61인) 임준수(의대 37인) 배건재(공대 53인) 김앤드류(상대 50인) 이화영(공대 62인) 이승자(사범대 60인) 임이섭(\$100, 미술대 54인) 손기용(의대 68인) 윤덕상(치대 68인) 김윤하(공대 70인) 최애욱(간호대 47인) 이소정(음대 84인) 정호(공대 62인) 장철(의대 71인) 김유식(의대 64인) 하상태(의대 59인) 박준환(의대 57인) 송용덕(의대 57인) 유석홍(상대 61인) 이재광(의대 38인) 구행서(공대 69인) 김기태(의대 52인) 정태(\$100, 의대 57인) 임정혁(사범대 54인) 김우영(의대 70인) 이범구(공대 59인) 이수인(\$200, 의대 56인) 김영호(의대 77인) 조철원(문리대 66인) 송원희(미술대 60인) 문광재(의대 62인) 이재현(사대 67인) 유준석(의대 53인) 민영기(공대 65인) 김정근(의대 61인) 곽익성(의대 60인) 이경자(미술대 65인) 신석균(문리대 54인) 김현규(의대 47인) 서영일(의대 68인) 조철(공대 49인) 장재찬(100, 의대 59인) 강태수(의대 65인) 문경웅(의대 67인) 홍해태(사범대 72인) 김경수(문리대 69인) 김경주(문리대 64인) 신영규(의대 57인) 주명순(간호대 64인) 설상수(문리대 56인) 정우철(의대 55인) 문병훈(사범대 46인) 하정윤(치대 81인) 양홍미(의대 67인) 서유석(의대 62인) 김원정(의대 69인) 이한중(의대 61인) 마동일(의대 57인) 김이순(공대 56인) 진순금(간호대 64인) 송용재(의대 63인) 한성수(의대 56인) 박정일(의대 61인) 황규정(의대 65인) 박영준(문리대 67인) 이윤모(농대 57인) 박숙(의대 64인) 김현석(문리대 69인) 이원호(의대 59인) 윤석환(치대 62인) 임영신(의대 52인) 임동숙(간호대) 이기억(문리대 47인) 이광선(의대 65인) 이종일(의대 71인) 엄우광(문리대 61인) 지명식(사대 65인) 백준철(공대 66인) 최순강(음대 65인) 한의일(공대 62인) 한동하(의대 58인) 이상일(의대 54인) 김윤태(의대 63인) 윤봉수(간호대 73인) 황현상(의대 55인) 권순희(간호대 78인) 김동수(공대 48인) 계명수(의대 69인) 장홍(문리대 61인) 이백기(의대 58인) 김형수(농대 68인) 김태기(의대 68인) 안창현(의대 55인) 이진주(문리대 55인) 진보린(의대 56인) 이진정(공대 73인) 김용우(공대 58인) 이수인(의대 56인) 장시경(의대 58인) 정영숙(사범대 63인) 안은식(문리대 55인) 장세곤(의대 57인) 허서룡(의대 60인) 김건(문리대 63인) 한재은(의대 59인) 김병현(법대 51인) 이민우(의대 67인) 원종수(의대 69인) 배영섭(의대 54인) 이명자(간호대 60인) 한경희(간호대 67인) 이기춘(의대 42인) 정길화(의대 65인) 김창구(의대 65인) 이태안(의대 67인) 최혜숙(의대 53인) 김일훈(의대 51인) 이규달(의대 68인) 임근식(문리대 56인) 위정호(의대 67인) 한성화(의대 57인) 박봉수(공대 59인) 표양순(간호대 71인) 장병호(의대 66인) 최영영(의대 75인) 김인수(상대 60인) 이인선(미대 72인) 최용소(공대 60인) 임현제(의대 59인) 강영국(수의대 67인) 소진문(치대 58인) 유태임(교육대 67인) 김용성(상대 54인) 고병철(법대 55인) 정승규(공대 60인) 장윤일(공대 60인) 강창만(의대 58인) 구경희(의대 59인) 계훈택(의대 55인) 송재현(의대 48인) 배건재(공대 53인) 이덕수(문리대 62인) 이철주(치대 77인) 전영자(미대 58인) 남상용(공대 52인) 고영철(의대 45인) 이영웅(의대 62인) 김택수(의대 63인) 조철원(의대 54인) 박창훈(공대 66인) 정남재(사범대 56인) 이범세(의대 57인) 임재일(농대 64인) 이정일(농대 57인) 장기남(문리대 62인) 김정일(의대 57인) 서상현(\$100, 의대 71인) 조중행(의대 63인) 조영재(상대 68인) 김봉주(사대 72인) 차광순(사대 70인) 최동규(법대 79인) 이용락(공대 48인) |
| 06 | 워싱턴 DC (MD, VA) | 95 한인섭(문리대 55인) 안용구(음대 46인) 박수용(100, 의대 69인) 한의생(수의대 60인) 강순임(사범대 64인) 서휘열(의대 55인) 전희순(간호대 80인) 안승건(문리대 55인) 남광순(음대 64인) 박홍(의대 45인) 김신자(음대 54인) 맹옥열(간호대 68인) 이선규(\$100, 문리대 65인) 이규섭(상대 68인) 임낙중(의대 55인) 박양희(음대 58인) 최규식(상대 64인) 신영철(의대 53인) 김병오(의대 63인) 박준영(의대) 김정환(문리대 60인) 김재동(인문대 70인) 박홍우(문리대 65인) 박윤수(\$100, 문리대 48인) 백순(법대 58인) 김영기(법대 50인) 한해경(간호대 43인) 김명자(법대 52인) 유달(의대 61인) 민길우(문리대 61인) 오인환(문리대 63인) 이영목(공대) 박경일(농대 69인) 이재승(의대 55인) 도상철(의대 63인) 오해현(의대 59인) 방은호(의대 42인) 조근실(사범대 40인) 조병선(의대 71인) 마계일(치대) 한해경(간호대 43인) 심준보(상대 55인) 문성길(의대 63인) 이정균(미술대 77인) 이항열(법대 57인) 주일(의대 46인) 문세희(법대 57인) 엄승용(농대 57인) 오기창(법대 50인) 김석호(공대 78인) 고무환(법대 57인) 김창호(법대 56인) 이정섭(의대 48인) 박명영(의대 66인) 조남현(의대 64인) 김충규(의대 60인) 이신규(\$100, 공대 63인) 김창웅(법대 60인) 김진홍(의대 68인) 장병규(사회과학대 76인) 이내원(사범대 58인) 박형순(의대 60인) 김국(농대 75인) 박태조(음대 64인) 박영호(공대 64인) 홍영석(공대) 김택경(의대 54인) 신상균(의대 52인) 조인옥(간호대 71인) 최동현(문리대 50인) 장효강(공대 66인) 김수용(문리대) 이근순(간호대 73인) 강준희(의대 71인) 윤개일(의대 60인) 김재구(의대 56인) 전경철(공대 55인) 소숙영(간호대 64인) 이홍서(공대 49인) 변만식(사범대 49인) 정재성(의대 68인) 임필순(의대 54인) 김기환(공대 67인) 박성태(문리대 71인) 신영철(의대 53인) 진금섭(의대 57인) 김효성(공대 51인) 이형모(의대 45인) 유영준(의대 68인) 정두현, 석규범(문리대 61인) 박인영(의대 69인) 정약훈(의대 49인) 이정희(의대 59인) 오광동(공대 52인) |
| 07 | 워싱턴주 (WA) | 25 고희선(법대 64인) 이재수(공대 65인) 권영길(의대 64인) 한만섭(공대 49인) 이철(사범대 48인) 최준한(농대 58인) 허윤철(사범대 57인) 안승적(농대 59인) 최경수(사범대 52인) 전병택(상대 69인) 이대원(사범대 58인) 이혜숙(문리대 64인) 김영일(공대 53인) 양용관(수의대 62인) 채태용(법대 55인) 윤재명(의대 65인) 김봉오(법대 74인) 김장태(문리대 53인) 전계상(공대 40인) 김재호(상대 54인) 유성렬(공대 72인) 맹병규(문리대 70인) 이순모(공대 56인) 이동립(의대 52인) 황수택(의대 65인) |
| 08 | 휴스턴 (HOUSTON) | 29 이재동(공대 83인) 김영열(공대 60인) 최동주(문리대 64인) 문해련(미술대 73인) 박태우(공대 64인) 이길영 임광국(문리대 64인) 신용선(공대 55인) 김정훈(공대 46인) 박민자(사범대 58인) 김홍열(의대 56인) 노승국(의대 64인) 함호자(음대 62인) 박승균(의대 59인) 김태훈(공대 57인) 유금영(법대 50인) 허천(공대 60인) 김성철(의대 61인) 김학래(공대 60인) 이숙배(문리대 62인) 이찬주(공대 63인) 김영창(공대 64인) 박진수(의대 58인) 이은실(문리대 53인) 현인섭(공대 57인) 최광욱(문리대 73인) 최관일(공대 54인) 이진현(의대 67인) 이규진(의대 60인) |
| 09 | 달라스 (DOLLAS) | 6 권혁초(사범대 52인) 신철영 강성호(수의대 81인) 전중희(공대 56인) 김인호(공대 47인) 임성빈(사범대 56인) |
| 10 | 미네소타 (MN) | 18 권학주(치대 59인) 김권식(공대 61인) 주영돈(농대 54인) 송창원(문리대 53인) 김영남(사범대 53인) 권승립(공대 52인) 남세현(공대 67인) 변우진(인문대 81인) 양규현(의대 56인) 주현수(농대 62인) 박상빈(공대 71인) 남세현(공대 67인) 김태환(의대 58인) 최정음(공대 58인) 신학철(공대 75인) 김권식(공대 61인) 문일지(공대 61인) 조형준(문리대 62인) |
| 11 | 조지아 (GA) | 20 김용자(사범대 64인) 김이순(문리대 68인) 김재철(공대 69인) 임한웅(공대 60인) 이철남(의대 50인) 사영주(\$100, 사범대 70인) 윤민자(음대 65인) 주중광(의대 60인) 유우영(의대 68인) 장병건(대학원 64인) 김만복(문리대 72인) 한영수(의대 54인) 이관호(공대 45인) 은철수(상대) 백낙영(상대 61인) 조덕성(공대 71인) 박진기(법대 56인) 이주남(의대 59인) 계광무(공대 63인) 오경호(농대 60인) |
| 12 | 아리조나 (AZ) | 6 서기권(공대 70인) 최종태(공대 69인) 최상호(공대 53인) 박양세(의대 48인) 이은수(경원대학원 73인) 진명규(공대 70인) |
| 13 | 유타 (UT) | 5 김인기(문리대 58인) 이정면(사범대 47인) 한성양(문리대 62인) 김성완(문리대 59인) 손홍용(공대 58인) |
| 14 | 하와이 (HI) | 14 신동인(공대 58인) 최치덕(법대 59인) 정태우(사범대 44인) 김동립(사범대 55인) 김성일(의대 68인) 백영기(의대 50인) 유재호(\$100, 문리대 59인) 구해근(문리대 60인) 오갑열(행정대학원 75인) 박성재(상대 49인) 남궁중(공대 52인) 황재만(농대 71인) 김창원(공대 49인) 김용진(공대 50인) |
| 15 | 오레곤 (OR) | 11 이철민(공대 50인) 조희원(수의대 55인) 최태인(사범대 59인) 김선호(사범대 59인) 박창성(사범대 72인) 박희진(문리대 57인) 김상순(상대 67인) 김상만(음대 46인) 성성모(사범대 67인) 최동근(문리대 50인) 이태호(문리대 61인) |
| 16 | 기타 (서부) | 8 이순환(의대 53인) 박종익(사범대 87인) 최원열(상대 56인) 서만길(의대 63인) 이학은(의대 57인) 홍지호(공대 53인) 박용호(의대 59인) 김현철(의대 57인) |
| 17 | 기타 (중부) | 3 김호균(의대 62인) 이희백(의대 55인) 유태준(의대 59인) |
| 18 | 기타 (동부 & 캐나다) | 15 김정권(의대 55인) 오석일(의대 70인) 김수산(의대 52인) 한경섭(공대 52인) 장영규(농대 65인) 한광수(의대 57인) 오신중(의대 60인) 정양수(의대 60인) 정구영(의대 50인) 박종선(공대 60인) 오인석(법대 59인) 박준홍 정병욱(의대 59인) 조동립(의대 56인) 이종진(공대 55인) |
| 19 | 플라미피아 (PA) | 47 유영길(의대 72인) 김영섭(의대 52인) 양운택(\$100, 의대 58인) 이신삼(농대 63인) 홍종환(문리대 75인) 송영락(의대 66인) 김사영(의대 56인) 성정호(의대 59인) 강영배(수의대 59인) 김태영(의대 55인) 이병인(수의대 69인) 윤일길(의대 65인) 이재희(상대 88인) 원종민(의대 61인) 강순철(사범대 39인) 최종무(상대 63인) 진병학(의대 37인) 이윤성(수의대 81인) 이순환(공대 56인) 이만택(의대 58인) 김세경(미술대 62인) 이상봉(\$100, 문리대 65인) 이규호(공대 56인) 엄극용(의대 60인) 윤정나(음대 57인) 정덕순(상대 63인) 정학량(의대 56인) 서준민(공대 64인) 김현영(수의대 58인) 남신우(공대 61인) 김용국(의대 58인) 임광상(공대 57인) 심원섭(의대 73인) 이광연(공대) 윤석희(치대 68인) 주기목(수의대 68인) 안지영(문리대 71인) 구정울(의대 55인) 오진석(치대 56인) 김영우(공대 55인) 신성식(공대 56인) 문상규(의대 62인) 서진석(의대 62인) 최환(공대 68인) 양운택(의대 58인, \$100) 이기범(의대 56인) 전방남(상대 73인) |
| 20 | 뉴잉글랜드 (MA) | 35 정혜숙(간호대 66인) 윤희경(문리대 61인) 정정욱(의대 60인) 여재홍(공대 67인) 안광원(의대 53인) 김동희(간호대 62인) 이희규(공대 69인) 김인수(사범대 55인) 김종성(경원대 76인) 김영호(치대 45인) 변중원(공대 70인) 김성빈(문리대 59인) 김은하(의대 60인) 최인섭(의대 72인) 김재호(상대 56인) 김호영(의대 52인) 김교안(의대 59인) 박현자(음대 62인) 채도경(의대 59인) 강길원(의대 59인) 강경식(문리대 55인) 윤상래(수의대 62인) 박병준(공대 52인) 김양일(경원대) 이재신(공대 57인) 김문소(농대 61인) 변희경(음대 66인) 문대욱(의대 73인) 문형성(의대 65인) 정용국(공대) 박기순(간호대 70인) 김경석, 배성호(의대 65인) 노인규(의대 52인) 김순규(문리 53인) |
| 21 | 하트랜드 | 24 이정화(의대 88인) 지일성(의대 61인) 김호원(치대 52인) 박영자(사범대 54인) 차병희(의대 57인) 김백년(의대 52인) 배규영(사범대 68인) 오명순(가정대 69인) 이경배(사범대 61인) 류광현(문리대 58인) 박옥동(상대 56인) 박우환(문리대 52인) 신두식(의대 58인) 오태오(의대 56인) 오계숙(미대 59인) 임하진(의대 79인) 민경환(의대 56인) 유준혜(의대 70인) 박세희(의대 76인) 이상강(의대 70인) 김경숙(가정대 70인) 서원중(의대 60인) 구명순(간호대 66인) 이상문(상대 57인) |
| 22 | 펜실베이니아 | 5 박문희(의대 52인) 임옥인(공대 75인) 홍수용(의대 59인) 심기권(상대 57인) 심재철(공대 78인) |
| 특별기부금 | | 2 (고) 전사본 동문회 미량인 \$ 50, Mrs. 안광원 \$ 82 |
| 계 | | 1,150 58, 932 |

조수미 CD 주문서

조수미 CD 'Love from Washington' 주문서 (8-25-01 Washington DC 공연 실황 녹음)

구입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구입 수량 및 금액: CD _____ 개 총액 \$ _____ (우송료 포함)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 *가격: 1장 당 \$15.00 (우송료 별도)
 우송료는 1장 당 \$3.00, 복수 구입시 추가 1장 당 \$1.00 추가

*주문서를 기입하여 CD대금과 우송료를 합계하여 재미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SNUAAUSA
 790 BUSSE ROA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 판매대금 전액은 재미 동창회를 위한 관악후원금과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에 적립됩니다.

질문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필)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1)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2)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 ()시간 정도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 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시해도 됩니다)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래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예()
- 2) 아니오()

- 1) 만족한다()
- 2)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X) 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앞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동문>

성명:

주소:

전화:

e-mail:

Fax :

기타 의견란

동문이 운영하는 우편주문 가능한 Gift Shop

지명식 동문(사대 65입)부부는 시카고 근교 Northbrook의 White Plains Shopping Center내에서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한국인 피부에 적합한 Shiseido, 참존, 아모레 화장품과 지성피부, 여드름 전용화장품 Dr. Eslee를 취급하고 있다.

그 밖에 각종 선물용품, 가정용품, 부엌용품, 속옷류, 전기제품, 악세사리, 영양제, 비타민 등을 구비하고 있고, 전자파를 방지하여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Sheild Life 제품도 갖추고 있다. 귀국 선물로 인기있는 로얄제리, 커피 및 꿀가루등도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전화주문이나 우편주문은 UPS로 즉시 발송하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10:00AM-8:00PM, 일요일 1:30PM-5:00PM 이다. 많은 동문들의 이용을 기다리겠습니다.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 동문 (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 지부 | 회장 |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
|----------|-----------------------------------|---|
| 뉴욕 |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 김종윤 B:914-714-0587 F:914-686-0186 |
| 남가주 | 임낙균 B:213-999-1600 H:310-530-4353 | 백옥자 B:213-365-9449 C:818-620-8316 |
| 샌프란시스코 | 정조용 B:408-496-6838 H:408-972-4026 | 임승래 B:415-777-1133 H:510-537-5369 |
| 시카고 | 한재은 B:841-741-7990 H:847-428-4929 |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
| 뉴잉글랜드 |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
| 조지아 |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
| 미네소타 | 김태환 B:612-863-4060 |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
| 워싱턴 DC | 진금섭 B:703-205-8064 H:703-631-0631 | 김 국 B:703-304-2129 H:703-830-7979 |
| 워싱턴주 | 허윤행 B:360-683-4195 H:360-683-4197 |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
| 휴스턴 |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
| 달라스 |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
| 아리조나 |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 권형욱 B:520-624-8254 H:520-624-8254 |
| 하와이 |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
| 유타 |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
| 오레곤 | 라재관 B:503-696-3422 H:503-645-5550 |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
| 필라델피아 |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 주기목 B:215-745-9030 F:215-745-3055 |
| 하트랜드 |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 장명우 F:402-472-5290 |
| 중부펜실베이니아 | 송재훈 B:814-865-6998 H:814-466-0542 | 이 욱 B:814-862-0494 |
| 캐나다/온타리오 | 유희자 B:416-960-0074 | 정순교 B:416-512-1833 H:905-884-4306 |
| 캐나다/밴쿠버 | 황태구 B:604-433-8539 | 박병우 B:604-570-0803 H:604-420-7034 |
| 캐나다/에드먼튼 | 정기진 B:780-437-7669 | |

동문 사업체 안내

| | | | | | |
|---|---|---|---|--|--|
| <p>강관 Pusan Pipe America 이병준 (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p> <p>골프용품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 60입) (212)564-2255 New York, NY</p> <p>공인회계사 Young Sik Oh CPA 오영식 (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법선 (상 48입) 이경림 (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 (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p> <p>Deloitte & Touche LLP 김낙구 (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희 (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섭 (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p> <p>공익사업 IBECONS INT'L 김재철 (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p> <p>교외 진리교회 김태철목사 (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 I. E. Exit 33 South)</p> | <p>국제금융 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 (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 (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p> <p>금고 Alco Lock & Safe 정인식 (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p> <p>금융/용지 Nina America Inc. 강석권 (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정옥 (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 (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p> <p>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 (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p> <p>면허사 최형무 변호사 최형무 (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p> <p>한국서적 전문 서울서점 권혁진 (문 60줄) 창업 (773)463 7756</p> | <p>김용화 변호사 김용학 (법대 69입) (212)619-1770 New York, NY</p> <p>병실 내과 Joon J. Bang, MD 방준재 (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p> <p>병실 스키와(투골병원) Charles H. Song, DVM DVM 성홍관 (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p> <p>병실 신경외과 Rim and Sul, MDPC 임춘수 (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 MI</p> <p>병실 신경정신과 Kenneth Song 송과호 (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p> <p>병실 위장내과 Chang Ho Suk 석창호 (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p> <p>병실 치과 Sung Bo Hong, DMD 홍성보 (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p> <p>모식 Gold Plus 서재숙 (음 65입) (212)354-8988 New York, NY</p> <p>모집 KOI 종합보험 김성희 (상 67입) (213)387-5252 Los Angeles, CA</p> | <p>한미종합보험 박일순 (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 (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p> <p>부동산 Cosmo Realty 이재택 (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원 (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 (회망부동산) 최 호 (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 (농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 (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p> <p>로얄 부동산 임무광 (문 65줄) (800)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 (농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p> <p>설계 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 (공 49줄) (310)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 (공대 71입) (718)392-0111 L.I.C, NY</p> | <p>업적 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 (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p> <p>운송부품 S. Y. Shipping 김종표 (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p> <p>용지 Equitable Financia Service 윌영배 (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 (문리 57줄) (213)368-9000 Los Angeles, CA</p> <p>의료기구 MASH 심상은 (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p> <p>의류 Jeffrey Allen Corp. 이기영 (농 70입) (201)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광 (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p> <p>인터넷 사업 KS E biz 장세완 (농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p> <p>신문집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p> | <p>인터넷 시점 Aladdin USA 이형렬 (문 79입) (323)692-9888 LA, CA</p> <p>지주지 부품 Knox-Seeman Whse, Inc. 서동영 (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p> <p>전자 Amkor Anam 정홍택 (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p> <p>주류상 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현 (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p> <p>익선 Kumon Educatinal Institute 김형덕 (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p> <p>한의원 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 (보건대학원 71줄) (718)353-6207 Flushing, NY</p> <p>브루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 (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p> <p>피자점 Revicci(레비치) 신정택 (약대 52입·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p> <p>화점 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 (음 65입) (800)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형 (간호 72줄) (626)287-6161 San Gabriel, CA</p> |
|---|---|---|---|--|--|

새 회계년도입니다. 응답 꼭 보내주세요.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1. 7. 1 ~ 2002.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address : _____
5. New home adress : _____
6. New home Tel. No. _____
7. 직장이름 : _____
8. 직장주소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사업 종류 (다음 해당되는 항목 또는 복수항목에 서클하여 주십시오.)

가정주부, 가정복지 자문, 간호원, 감정사, 경영간부, 경찰, 수사관, 사설탐정, 공무원, 공인회계사, 군인, 금융자문, 은행원, 기업인,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디자이너, 미술가, 서예가, 음악가, 연예인, 작가, 기타 예술인, 검사, 판사, 변호사, 법률보조, 법의학, 보험, 부동산 중개사, 실험실요원, 언론인, 엔지니어, 연구원, 요리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 은퇴, 장의사, 종교인, 투자자문, 재정자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타 컴퓨터 관련업, 통관사, 체육인, 학생, 건설 건축 관련업, 국제무역, 농업, 수산업, 제조, 통신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인쇄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 소매, 기타 직업.

11. 위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간단하게 아래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사의 경우) "정신과" : (변호사의 경우) "가정법" : (교수의 경우) "물리학" : (언론인의 경우) "일간신문기자" : (도매업) "의류" 등등

12.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5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자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1. 7. 1 ~ 2002. 6. 30 구독료 \$5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No. ()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3.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지역동창회

1 2001. 7. 1. ~ 2002. 6. 30 회계년도 동창회 회보 구독료 \$50.00을 납부합니다. ()

2 미주 관악후원회 3차년도 후원금 납입서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 매년 불입 후원이사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 총액(금액명기 \$)
 ①일시불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납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